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기초 연구

최종보고서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기초 연구

최종보고서

연구 기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 책임: 맹준호 연구위원

공동 연구: 안세아 연구위원

제 출 문

충청남도의회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기초 연구」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0년 11월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조 양 순

연구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사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존의 보육 및 양육 등의 돌봄문제를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돌봄정책 추진으로 대응해 왔음.
-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왔고, 3차에 걸쳐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음. 저출산 대책이 제1차에서 제3차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등장과 대상 확대, 돌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생애주기별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온종일 돌봄을 위한 연계성도 부족한 수준임.
-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정규수업이 짧고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돌봄 수요가 더 높지만, 학교 내의 공적 돌봄(초등돌봄교실) 이용 가능 시간은 최대 17 시까지로,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충남도 역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초등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은 미비한 실정임.
- 효율적인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각 부처별로 분절되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충남 방과후 공적 초등돌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돌봄수요자의 돌봄실태 및 돌봄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충남의 공적 초등돌봄서비스 개선 및 실효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충남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 내용

- 충남의 아동 인구 현황 및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 현황 분석
 - 전국 및 충남의 아동 인구 현황과 충남 및 각 시군의 초등돌봄서비스 기관, 이용 현황 분석
 - 충남 및 각 시군별 초등돌봄 관련 수요 인원, 돌봄서비스 공급률 분석
- 충남 방과후 초등돌봄 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 분석
 - 초등학생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서비스 종류, 사교육 이용 실태,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 현황 등 분석
 - 방과후 공적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인식 분석
 - 공적 돌봄서비스의 필요성 및 우선 개선사항, 코로나19에 따른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분석
-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제언
 - 통합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 제언

가. 연구 방법

- 문헌자료 검토 및 통계자료 분석
- 설문조사
- 초점집단인터뷰

3. 충남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 추정

가. 교육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

-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공적 돌봄서비스인 초등돌봄교실에 따른 공급률 추정에는 실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을 중심으로 추산하였고, 공급률은 초등학생 전체 인원과 초등돌봄교실의 주요 대상자인 저학년(1~3학년)을 나누어 추정하였음.
- 초등학생 전체 인원에 따른 공급률은 13.19%로 나타났음. 수요 대비 공급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청양군으로 56.59%의 공급률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예산군이 35.18%, 공주시가 30.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요 대비 공급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아산시로 7.21%의 공급률을 나타냈음.

- 저학년(1~3학년) 인원예 따른 전체 공급률은 26.02%로 나타났음. 시군별 수요 대비 공급률은 전체 인원예 따른 공급률과 마찬가지로 청양군이 가장 높은 112.47%로 나타난 반면, 아산시는 13.76%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나.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

-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수요 대비 공급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급률은 6.02%로, 지역아동센터가 5.76%, 다함께돌봄센터가 0.26%로 나타났음.
-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의 수요 대비 공급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천군이 25.68%로 가장 높은 반면, 당진시가 2.54%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다. 여성가족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

- 여성가족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의 공급률을 전체 인원 대비 이용 인원예 분석 결과, 전체 수요 대비 공급률은 2.29%로 나타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1.91%, 아이돌봄서비스는 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0.26%로 나타났음.
-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 대비 공급률은 서천군이 26.86%로 다른 시군예 비해 월등히 높은 반면, 아산시의 공급률은 0.02%로 가장 낮았음.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률은 부여군이 1.18%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급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아산시로 0.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7개 시군 중, 청양군의 공급률이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시군별 전체 수요 대비 공급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천군이 27.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당진시가 11.12%, 부여군이 3.94%로, 시군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공급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예산군으로 0.02% 수준예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라. 충남의 방과후돌봄서비스 공급

- 충남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충남 전체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은 34.33%로 나타났음. 공급률이 가장 높은 시도예 청양군(126.32)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천군이 106.65%, 예산군이 83.81%, 부여군이 71.02% 순으로 나타났음.

- 충남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을 초등돌봄교실이 끝나는 17시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7시 이전의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은 26.02%로 나타난 반면, 17시 이후의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은 8.3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4. 충남의 방과후 초등돌봄 실태조사

가. 조사개요

구분	내용
조사지역	■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역
조사대상	■ 초등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
표집방법	■ 충남도 내 초등학교를 통한 전수조사
표본 수	■ 초등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 5,099명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 2020년 8월 10일 ~ 8월 28일
응답기준	■ 2019년 및 설문 시점
조사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통계분석	■ 빈도분석,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정, t-test 및 ANOVA

나. 조사결과

(1) 돌봄 실태

- 2020년 기준 공적 돌봄서비스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5,099명 중 34.4%(1,754명)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에 있어 자녀 학년, 거주지, 맞벌이 여부, 가구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1년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은 응답자 3,553명의 44.0%인 1,563명이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서비스를 이용한 주된 이유는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서’가 4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29.0%)’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난 1년간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사교육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332명의 6.9%(367명)만이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학습 및 적성·특기를 위해서’가 59.2%로 가장 높았으나,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11.7%)’나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2.3%)’의 응답도 높게 나타나, 돌봄공백으로 인한 사교육 이용률도 낮지 않았음. 또한, 사교육 이용에 있어서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의 이유로 사교육을 선택한 맞벌이 가정(16.1%)은 외벌이 가정(3.6%)보다 약 5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지난 1년간 방학기간 중 돌봄공백 해결 방법은 전체 응답자 3,553명 중 45.9%인 1,631명이 양육자에 의해 직접 보살핌을 받았고, 21.3%인 757명은 자녀 혼자(형제자매끼리) 지냈으며, 474명(13.3%)은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보살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공적 돌봄서비스만 이용’과 ‘공적 돌봄서비스와 사교육과 병행’의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합한 경우에도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전체의 10% 수준이고, 보호자 없이 자녀끼리 머무는 나홀로 아동의 경우도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의 정규수업 및 돌봄서비스 운영 여부는 전체 응답자의 47.0%인 2,397명이 학교 정규수업 및 돌봄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받는 것으로 조사됨. 37.7%(1,921명)는 모두 받고 있으며, 10.0%(512명)는 정규수업만 받으며,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4.2%인 213명으로 조사됨.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의 해결 방법은 직접 돌봄을 하는 경우(1,626명, 51.2%), 자녀 혼자 지내는 경우(808명, 25.4%),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361명, 11.4%)이 대다수로, 직·간접적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남.

(2)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욕구

- 정규수업 전후의 공적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에 조사한 결과, 전체의 57.8%(2,949명)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42.2%(2,150명)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선호하는 돌봄서비스 장소를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이 84.6%로, 선호도가 매우 높았으며, 그 밖에 10% 이하의 수준에서 ‘주거지 인근 공동공간(10.0%)’,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내 공간(2.6%)’, ‘지역 내 별도의 공간(2.2%)’ 순으로 선호하였음.
- 학교 정규수업 전후 공적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수업 끝난 후~오후 5시’가 47.2%(2,78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오후 5시~오후 6시’가 31.2%(1,843명), ‘정규수업 시작 전’이 12.4%(729명) 순이었음.
- 공적 돌봄서비스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 24.7%(2,516명)가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응답했으며, 18.0%(1,834명)는 ‘방학 중 이용시간 확대’

를, 16.7%(1,699명)는 ‘이용 대상 기준폐지(대상 확대)’를, 12.2%(1,244명)는 ‘주중 이용 시간 확대’를 주요한 개선 사안으로 보았음.

-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1.1%가 재난 상황에서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18.9%는 필요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반면,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절반이 약간 넘은 57.2%가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이유는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가 49.9%(1,452명)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가 23.4%(681명),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서’가 12.1%(353명) 순으로 나타남.

(3)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만족도 점수는 3.63점으로 나타났음. 하위영역별로는 ‘안전성’ 평균이 3.7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접근성’ 평균이 3.61점, ‘인력’과 ‘프로그램’의 평균이 각각 3.58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 공적 돌봄서비스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응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돌봄서비스 인력(24.0%)’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22.4%)’, ‘안전성(16.8%)’, ‘접근성(14.3%)’, ‘시설 환경(13.4%)’, 그리고 ‘식사/간식 제공(9.1%)’ 순으로 나타남.
- 다양한 공적 돌봄서비스를 통합돌봄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주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1.2%(2,100명)는 ‘충청남도 교육청’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2.2%(1,131명)는 ‘학교’, 17.5%(892명)는 ‘충청남도’, 11.9%(606명)는 ‘시·군’, 5.1%(258명)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돌봄 기관’ 순으로 응답함.

5. 정책 추진 방향 및 제언

가. 정책 추진 방향

- 충남의 공적 초등돌봄서비스 개선 및 실효성 제고와 충남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하여 충남의 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 현황을 분석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및 인식, 욕구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충남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낮아서 양적 확대가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이 초등돌봄교실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둘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욕구, 인식 등이 지역별, 가구 유형별로 차이를 보여, 충남의 지역별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하고, 가구 유형별 차이에서 나타나는 돌봄서비스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프로그램 및 돌봄 인력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 제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함.
- 넷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적 지원체계가 갖추어 져야 한다는 것임. 지역적 편차를 줄이고 돌봄서비스의 중복 및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 전담 조직이나 돌봄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생태계 마련이 필요함.

나. 제언

- 충남의 공적 초등돌봄서비스 개선 및 실효성 제고와 충남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하여 충남의 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 현황을 분석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및 인식, 욕구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충남의 공적 돌봄서비스의 개선 과제와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음.
- 구체적인 정책 제언은 공적 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질 제고 방안과 통합돌봄체계 기반 구축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음.

영역	제언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 공적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간 확대
	· 돌봄 인력 확대 및 대체 인력풀 운영
	·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통합돌봄체계 기반 구축	·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 및 컨트롤타워 구축
	· 지자체의 권한 및 책임 강화
	· 충남형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제정
	·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 개발

목 차

I.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배경	3
나. 연구목적	5
2. 연구의 범위	5
가. 연구의 공간적 범위	5
나. 연구의 내용적 범위	6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절차	6
가. 연구방법	7
나. 연구수행절차	8
II. 방과후 초등돌봄 지원정책 및 사업	9
1.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 개요 및 지원정책의 변화	11
가.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 개요	11
나. 방과후 방과후돌봄 정책의 변화	12
다. 온종일 돌봄체계	14
2. 방과후 초등돌봄 관련 지원사업의 내용	16
가. 초등돌봄교실(학교 내 돌봄: 교육부)	16
나. 지역아동센터(지역 내 돌봄: 보건복지부)	18
다. 다함께돌봄사업(지역 내 돌봄: 보건복지부)	19
라. 공동육아나눔터(지역 내 돌봄: 여성가족부)	21
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지역 내 돌봄: 여성가족부)	22
바. 방과후아카데미(지역 내 돌봄: 여성가족부)	23
3. 방과후 초등돌봄 관련 사례	28
가. 서울특별시 중구(지자체 직영 초등돌봄교실)	28
나. 전라북도 완주군(민 주도-관 지원의 민관협력형)	29
다. 강원도 원주시(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민 주도형)	31
III. 충남 초등돌봄 관련 기본현황	33
1. 전국 및 충남의 아동 인구 현황	35
가. 전국 및 충남 인구와 아동 인구	35
나. 충남의 시군별 초등학생 인구	39

2. 충남의 초등돌봄 기관 및 이용 현황	42
가. 초등돌봄교실	42
나. 지역아동센터	43
다. 다함께돌봄센터	43
라. 공동육아나눔터	44
마. 아이돌봄서비스	45
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46
3. 충남의 초등돌봄서비스 공급 현황	47
가. 교육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	47
나.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	48
다. 여성가족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	49
라. 충남의 방과후돌봄서비스 공급	50
4. 소결	52
IV. 충남 방과후 초등돌봄 실태조사	53
1. 조사개요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5
가. 조사개요	55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6
2. 돌봄 실태	59
3.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욕구	80
4.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95
5. 소결	99
V. 결론	101
1. 정책 추진 방향	103
2. 제언	104
가.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104
나. 통합돌봄체계 기반 구축	106
참고문헌	112
부록	114

표목차

〈표 I-3-1〉 조사 설계 개요	7
〈표 II-2-1〉 방과후 공적 돌봄체계 주요 내용	28
〈표 II-3-1〉 관련 기관별 역할	29
〈표 III-1-1〉 전국 및 충청남도 인구 변화 추이	35
〈표 III-1-2〉 충남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	36
〈표 III-1-3〉 충청남도 시군별 아동 인구	37
〈표 III-1-4〉 전국 및 충청남도 시군별 아동 인구변화	38
〈표 III-1-5〉 충청남도 시군별 초등학교 인구변화	39
〈표 III-1-6〉 충청남도 지역규모별 초등학교 인구변화	41
〈표 III-1-7〉 초등학교 학년별 인구 구성	41
〈표 III-2-1〉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및 이용 현황	42
〈표 III-2-2〉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 현황	43
〈표 III-2-3〉 다함께돌봄센터 및 이용 현황	44
〈표 III-2-4〉 공동육아나눔터 및 이용 현황	45
〈표 III-2-5〉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이용 현황	46
〈표 III-2-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및 이용 현황	47
〈표 III-3-1〉 교육부 소관 기관 공급률	48
〈표 III-3-2〉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공급률	49
〈표 III-3-3〉 여성가족부 소관 기관 공급률	50
〈표 III-3-4〉 시간대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	51
〈표 IV-1-1〉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56
〈표 IV-1-2〉 자녀의 일반적 특성	57
〈표 IV-1-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8
〈표 IV-2-1〉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2020년 현재)	60
〈표 IV-2-2〉 지난 1년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복수 응답)	62
〈표 IV-2-3〉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64
〈표 IV-2-4〉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이유	66
〈표 IV-2-5〉 지난 1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 경험	67
〈표 IV-2-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유	69

〈표 IV-2-7〉 지난 1년간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사교육 이용 경험(중복응답)	71
〈표 IV-2-8〉 사교육을 이용한 이유	73
〈표 IV-2-9〉 지난 1년간 방학기간 중 돌봄공백 해결 방법	75
〈표 IV-2-10〉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의 정규수업 및 돌봄서비스 운영 여부	77
〈표 IV-2-11〉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의 해결 방법	79
〈표 IV-3-1〉 정규수업 전후의 공적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81
〈표 IV-3-2〉 가장 선호하는 돌봄서비스 제공 장소	82
〈표 IV-3-3〉 학교 정규수업 전후 공적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	83
〈표 IV-3-4〉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85
〈표 IV-3-5〉 공적 돌봄서비스 개선사항	86
〈표 IV-3-6〉 공적 돌봄서비스 우선 확대 영역	87
〈표 IV-3-7〉 재난 상황에서 공적 돌봄서비스의 필요성	89
〈표 IV-3-8〉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91
〈표 IV-3-9〉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이유	94
〈표 IV-4-1〉 하위영역별 공적 돌봄서비스 만족도	95
〈표 IV-4-2〉 공적 돌봄서비스 만족도	96
〈표 IV-4-3〉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	96
〈표 IV-4-4〉 공적 돌봄서비스를 통합돌봄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주체	98
〈표 V-2-1〉 충남형 방과후 돌봄체계 운영 모델	111

그림 목차

〈그림 I-1-1〉 공적돌봄체계	4
〈그림 I-2-1〉 공간적 범위	6
〈그림 I-3-1〉 연구수행절차	8
〈그림 II-1-1〉 방과후돌봄 정책 추진 경과	14
〈그림 II-1-2〉 온종일 돌봄 공급 계획	15
〈그림 II-1-3〉 서울시 맞춤형 온마음돌봄체계도	16
〈그림 III-1-1〉 행정구역(시)별 초등학생 인구 변화	40
〈그림 III-1-2〉 행정구역(군)별 초등학생 인구 변화	40
〈그림 IV-1-1〉 자녀의 일반적 특성	57
〈그림 IV-1-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9
〈그림 IV-2-1〉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60
〈그림 IV-2-2〉 지난 1년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63
〈그림 IV-2-3〉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65
〈그림 IV-2-4〉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이유	67
〈그림 IV-2-5〉 지난 1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 경험	68
〈그림 IV-2-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유	69
〈그림 IV-2-7〉 사교육을 이용한 이유	73
〈그림 IV-2-8〉 지난 1년간 방학기간 중 돌봄공백 해결 방법	76
〈그림 IV-2-9〉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의 정규수업 및 돌봄서비스 운영 여부	78
〈그림 IV-2-10〉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의 해결방법	80
〈그림 IV-3-1〉 공적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81
〈그림 IV-3-2〉 가장 선호하는 돌봄서비스 제공 장소	83
〈그림 IV-3-3〉 공적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	84
〈그림 IV-3-4〉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85
〈그림 IV-3-5〉 공적 돌봄서비스 개선사항	87
〈그림 IV-3-6〉 공적 돌봄서비스 우선 확대 영역	88
〈그림 IV-3-7〉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 욕구	90
〈그림 IV-3-8〉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92
〈그림 IV-4-1〉 공적 돌봄서비스 만족도	95
〈그림 IV-4-2〉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97
〈그림 V-2-1〉 충남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및 컨트롤타워	107
〈그림 V-2-2〉 충남형 방과후 돌봄체계 운영 모델	111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기초 연구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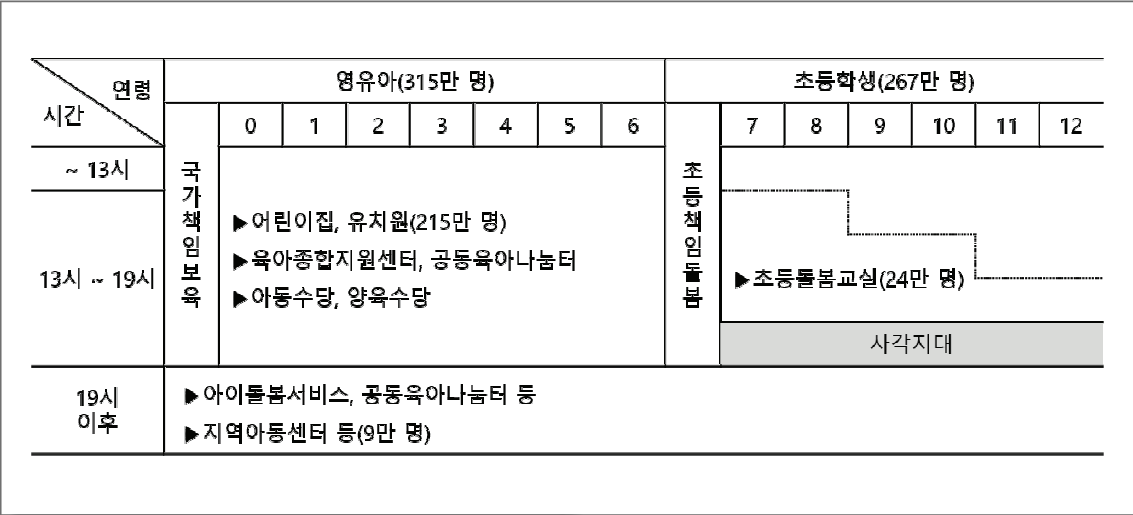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 우리나라는 급진적인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해 가족체계의 변화와 축소를 경험하였음.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의 확대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음.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은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가족체계 및 구조의 변화와 탈가족화라는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왔음.
-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맞벌이가구의 증가는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최영, 2019), 저출산 현상은 사회가 안고 있는 고용 및 교육, 주거 등의 고질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회·구조적인 현상임. 특히, 출산 이후의 돌봄 문제는 저출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힘.
-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사회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기존의 보육 및 양육 등의 돌봄문제를 개인 차원을 넘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돌봄정책 추진으로 대응해 왔음.
- 지금까지 추진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고, 현재까지 3차에 걸쳐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는 양육비용 지원과 육아지원서비스 확대가 주요한 내용으로, 초기의 저출산 대책은 주로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과 미비한 서비스 제공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였음.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더 나아가 양육비용 지원 대상 확대와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음.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양육수당과 보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기존의 양육지원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일·가정양립 정책 강화를 통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음.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그동안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음. 주요 내용은 다양한 가족의 지원강화와 맞춤형 돌봄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저출산 대책이 제1차에서 제3차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다양한 돌봄서비스의 등장과 대상 확대, 돌봄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생애주기별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온종일 돌봄을 위한 연계성도 부족한 수준임. 더욱이 돌봄서비스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의 부재로 돌봄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그 효과성이 더욱 감소됨. 또한, 저출산 대책이 주로 영유아의 돌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되어 온 결과, 영유아에 비해 초등아동의 돌봄 사각지대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음. 초등아동의 돌봄 대책 미비로 초등아동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영유아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
-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정규수업이 짧고 보호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돌봄 수요가 더 높지만, 학교 내의 공적 돌봄(초등돌봄교실) 이용 가능 시간은 최대 17시까지로,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그림 1-1-1). 학교 내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인프라 미비로 인해 실질적인 이용에는 한계가 따름.



〈그림 1-1-1〉 공적돌봄체계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867>).

- 따라서, 돌봄 사각지대와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돌봄체계 구축 노력이 매우 중요함. 충남도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아이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임신부 전용창구 개설 및 우대금리제도, 충남형 아기수당 도입, 공공기관 육아기 근무 단축,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충남도 민선 7기의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면,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미비함. 특히, 초등돌봄 대책이 부재하여 초등아동의 돌봄 부담 완화 및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이 시급함. 또한, 도농격차로 인한 공적 초등돌봄서비스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고, 지자체 및 학교-교육청, 지역사회 등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미비로 인한 실효적인 정책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효율적인 초등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구축과 각 부처별로 분절되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연계할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함. 지역에 따라 수요 편차가 발생하고, 돌봄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 특성별 돌봄서비스 모델 발굴이 필요함. 특히, 충남도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커서 지역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지역 수요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검토 및 장기적인 시점에서의 정책 방향 제시는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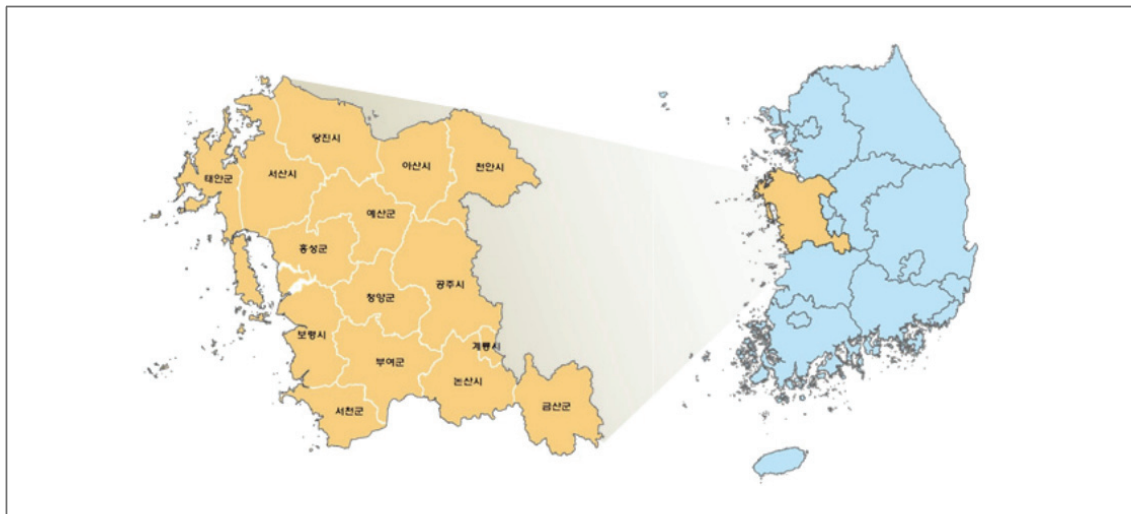
나.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충남 방과후 공적 초등돌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돌봄수요자의 돌봄실태 및 돌봄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충남의 공적 초등돌봄서비스 개선 및 실효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충남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범위

가. 연구의 공간적 범위

-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공적 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 실태와 돌봄수요자의 돌봄실태 및 돌봄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역을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고, 각 시군의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음. 또한, 충남도 15개 시군을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그림 1-2-1〉 공간적 범위

나. 연구의 내용적 범위

- 충남의 아동 인구 현황 및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 현황 분석
 - 전국 및 충남의 아동 인구 현황 검토
 - 충남 및 각 시군의 초등돌봄서비스 기관, 이용 현황 분석
 - 충남 및 각 시군별 초등돌봄 관련 수요 인원, 수요 인원에 따른 서비스 공급률 분석
- 충남 방과후 초등돌봄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초등학교생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서비스 종류, 사교육 이용 실태,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 현황 등 분석
 - 방과후 공적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통합돌봄체계에 대한 인식 분석
 - 공적 돌봄서비스의 필요성 및 우선 개선사항, 코로나19에 따른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분석
-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제언
 -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의 추진체계 및 협력체계 제언
 -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제언

3. 연구방법 및 연구수행절차

- 본 연구의 연구방법은 문헌자료 검토 및 통계자료 분석과 돌봄실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토론회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음. 각각의 연구방법에 대한 수행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연구방법

1) 문헌자료 검토 및 통계자료 분석

- 문헌자료는 방과후 초등돌봄 관련 선행연구 및 보고서, 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수집·검토하여 타 지자체의 현황 및 실태를 검토하였고, 연구방법 및 실태조사 내용 등을 참고하였음.
- 또한, 충청남도 내의 인구 구조 및 아동 인구 현황 파악을 위해 통계청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충청남도의 초등돌봄 이용 현황 및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부자료를 활용하였음.

2) 설문조사

- 충청남도 내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및 인식, 욕구 등에 대해 온라인 조사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충청남도 15개 시군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통해 초등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5,099명의 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확보하였음.

〈표 1-3-1〉 조사 설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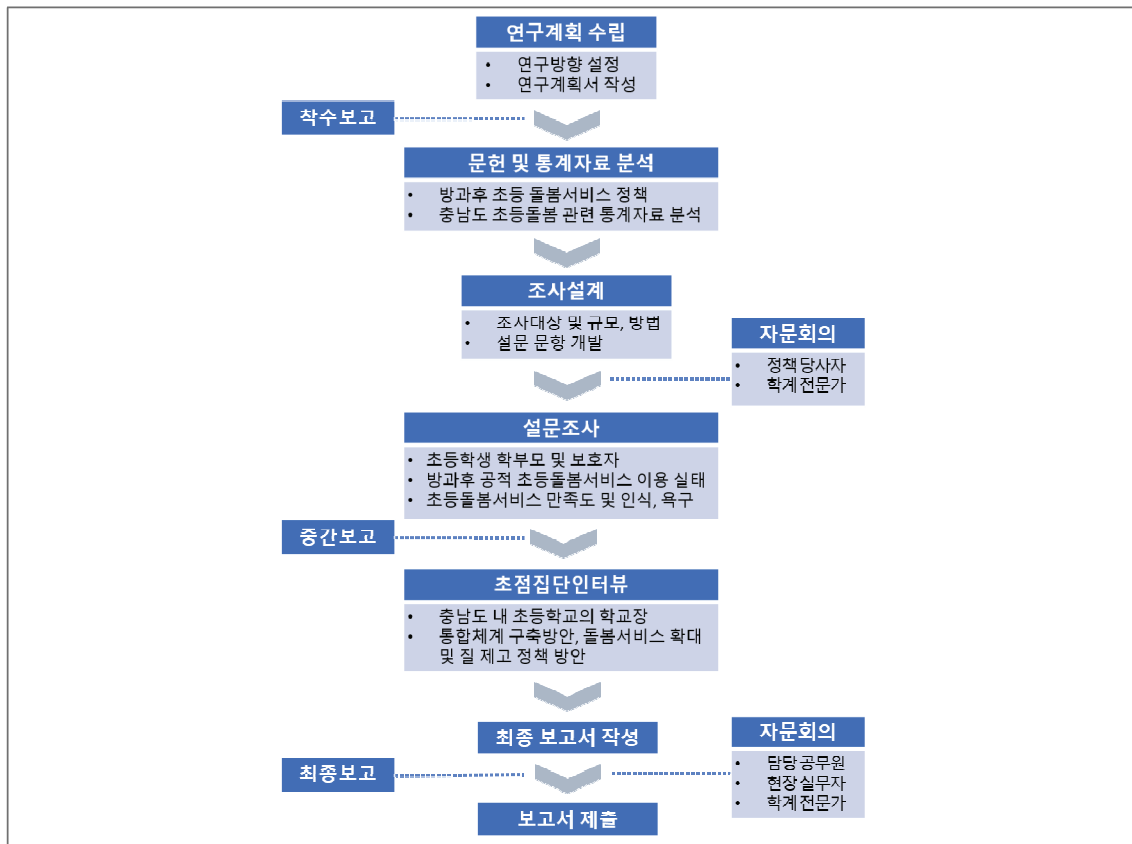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지역	■ 충청남도 15개 시·군 전역
조사대상	■ 초등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
표집방법	■ 충청남도 내 초등학교를 통한 전수조사
표본 수	■ 초등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 5,099명
조사방법	■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 2020년 8월 10일 ~ 8월 28일
응답기준	■ 2019년 및 설문 시점
조사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통계분석	■ 빈도분석,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정, t-test 및 ANOVA

3)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충남의 초등학생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질 제고와 통합체계 구축방안 모색을 위해 충남도 내 초등학교의 학교장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음. 대상자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집방법 중, 판단표집(judgement sample)방법을 사용하였음.
- 초점집단인터뷰는 도농 격차에 따른 지역 맞춤형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향 및 운영 주체의 다양화, 개선 및 확대 방안,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을 주제로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충남의 정책 및 제도 운영 방향을 도출하였음.

나. 연구수행절차

- 본 연구의 수행절차는 총 5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음. 1단계의 연구계획 수립에서부터 2단계 문헌 및 통계자료 분석, 3단계 설문조사, 4단계 초점집단인터뷰, 5단계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절차를 거쳐 연구를 진행하였음. 세부적인 연구수행절차는 다음의 <그림 1-3-1>와 같음.



<그림 1-3-1> 연구수행절차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기초 연구



II. 방과후 초등돌봄 지원정책 및 사업

II. 초등돌봄 지원정책

1.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 개요 및 지원정책의 변화

가. 방과후 초등돌봄서비스 개요

- 초등돌봄서비스는 주로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이후에 제공되기 때문에 방과후 돌봄서비스로도 불리고 있음. 초등돌봄서비스를 방과후 돌봄, 보호, 활동,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아동·청소년의 학습과 심신의 발달을 위한 서비스(정익중 외, 2009)로 정의하는가 하면, 정규교육과정 이후에 초등학교 학령기 단계의 아동에게 제공하는 돌봄 활동(정영모, 2019)으로 한정하기도 함. 반면, 방과후라는 시간적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방과후 또는 방학 중에 아동·청소년이 학습과 심신의 발달을 위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09)으로 정의하기도 함.
- 우리나라의 방과후돌봄은 학교 중심의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사회 중심의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보미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되기 시작하였음. 방과후 공적 초등돌봄은 2004년 교육부의 방과후 교실로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한정된 대상과 서비스로 돌봄 수요 대응에는 한계를 나타냄. 이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
- 현재 초등돌봄서비스의 문제점으로 초등아동의 돌봄공백, 서비스의 분절성·중복성, 일원화된 정보제공의 한계 및 유사 서비스 제공이 지적되고 있음. 첫 번째, 초등아동의 돌봄공백 문제는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37%가 평균 한 시간 이상 홀로 지내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부모 자녀의 경우 장시간(4시간) 혼자 보내는 아동이 많음(장혜경 외, 2015).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10명 중 1명은 성인 보호자의 적절한 돌봄 없이 주당 9시간을 보냄. 맞벌이 가구일수록, 형제자매가 있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학년이 올라갈수록 돌봄공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임혜정, 2017).
-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에 따르면, 무상보육 실시 중인 만 0~5세 아동과 달리 초등학생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여러 부처의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체 아

동 267만 명 중 33만 명으로 12.5%에 그치고 있고, 초등 방과후 돌봄 욕구가 큰 맞벌이 가구의 초등돌봄 수요가 46만 명에서 6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적게는 23만 명에서 31만 명이 초등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측됨(최영,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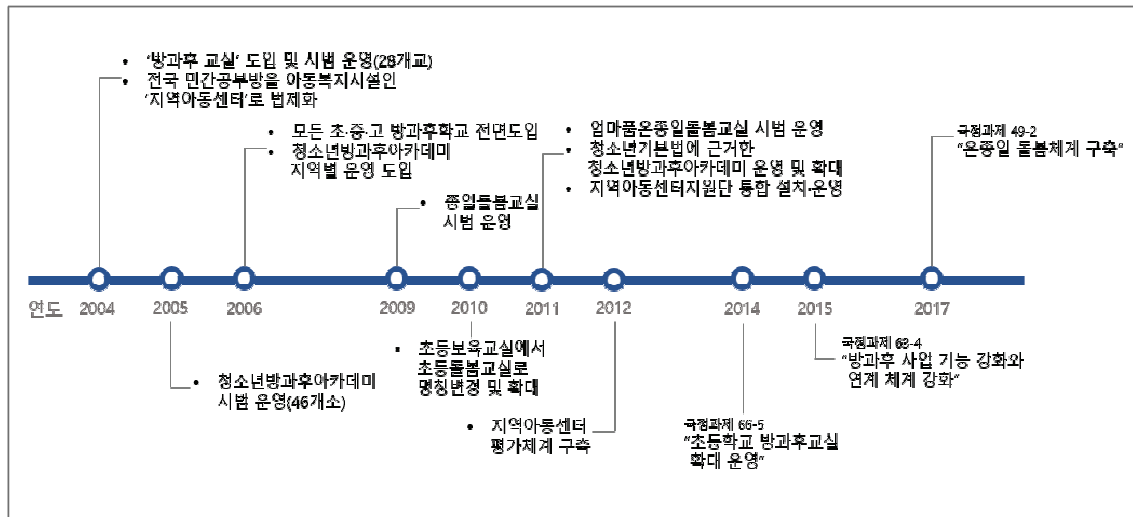
- 두 번째, 돌봄서비스가 분절적이고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현재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중앙-지방-돌봄기관,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그동안 각각의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효율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시도하고 있음. 이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2017년 범정부 자문단·추진단을 구성하고 2019년 일부 시범 지역을 중심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시도하고 있음.
-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중복이 발생하고 있음. 대부분의 방과후 돌봄 제공기관에서 교육지원과 정서 지원, 생활 지원,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어 사업 간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주재현·신동석, 2014).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학습지원과 특기 및 적성개발, 부모교육 등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모두가 제공하고 있음. 다만, 돌봄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급식 제공이나 정서 지원 등은 복지체계 내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음(강지원·이세미, 2015).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오후 돌봄에서는 간식 위주로 제공되며, 저녁 돌봄의 경우 급식이 제공되나 소수의 방과후 아동을 위해 학교 급식시설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매식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급식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세 번째, 일원화된 돌봄서비스의 정보제공과 연계·협력의 한계임. 돌봄서비스는 주관 부처가 다양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정보제공과 서비스 전달의 한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즉, 돌봄서비스의 경우 동일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유사 서비스가 중앙의 부처별로 각각 제공되고 있어 지역 단위에서 연계와 협력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음. 이를 위해 지역 내에 돌봄협의체가 존재하나, 예산이나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관 간 서비스 내용을 조정하고 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나.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의 변화

- 방과후 돌봄서비스 정책은 외환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로 인한 맞벌이의 증가와 함께 변화해왔음. 더욱이 급속한 사회변화 속에서 가족의 축소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면서 아동 돌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음.
- 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기 아동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온 것과는 달리, 초등단계의 학령기 아동을 위한 온종일 돌봄

체계의 기반은 미약하여 적절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과 양육자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 초등아동의 온종일 돌봄체계의 기반이 되는 방과후돌봄 정책은 비슷한 시기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음. 2004년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방과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음. 방과후 돌봄교실은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이 아닌 방과후학교 정책의 일환으로 포함되어 시작되었음. 2004년 28개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교실을 도입하여 시범 운영을 추진하였음.
- 또한,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에 전국에서 민간 공부방으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아동복지 시설인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하였음.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와 돌봄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방과후 공적 초등돌봄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듬해인 2005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전국 46개소에서 시범 운영하였음. 청소년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후 나홀로 아동 및 청소년의 생활지원 종합대책으로 도입되었음. 또한, 여성가족부는 2006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2010년 공동육아나눔터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는 주로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서비스 대상자에 영유아부터 초등아동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주 대상자는 영유아로, 현재까지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제공은 미진한 편임.
- 이후, 교육부는 2006년에 모든 초·중·고에 방과후학교를 전면 도입하였고, 2009년에는 돌봄 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하는 종일돌봄교실을 시범 운영하였음. 2011년에는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도입하여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 아침돌봄에서 야간의 저녁돌봄까지 온종일 돌봄체계를 시범 운영하였음. 교육부가 추진하는 방과후교실은 2014년 국정과제로 확정되면서 확대 운영하게 되었지만, 돌봄서비스 공급의 한계에 직면하게 됨. 이용 가능한 한정된 대상 및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의 제한으로 인한 돌봄공백은 방과후 돌봄교실의 한계로 지적되었음. 이에 문제인 정부는 온종일 돌봄체계를 국정과제로 도입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안전망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지역아동센터는 법제화가 된 이후,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하에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관리·감독 및 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한 것은 2012년에 이르러서였음. 이후, 서비스 이용대상 기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2017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공동 공모사업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사업 1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 운영을 추진하였음. 2018년 다함께돌봄센터 17개소의 설치·운영을 시작으로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그림 II-1-1〉 방과후돌봄 정책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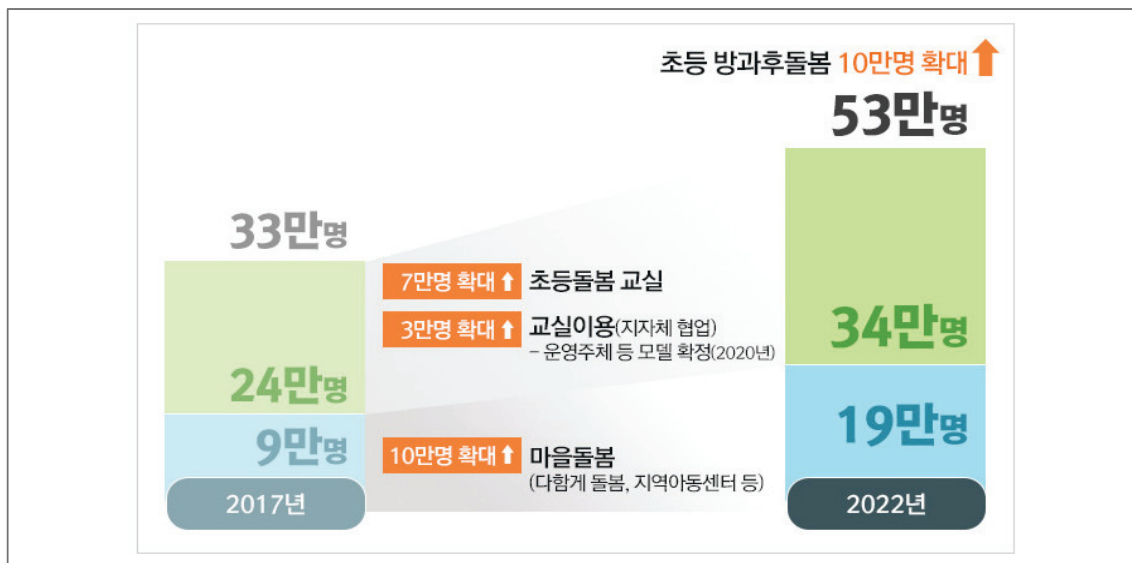
출처: 이해숙 외. (2018).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다. 온종일 돌봄체계

- 온종일 돌봄체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및 맞벌이 가정의 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누리과정 국고지원을 통합하고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 지역사회와 학교간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온 방과후 돌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방과후 교육·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음(김진석 외, 2018).
- 온종일 돌봄정책의 추진은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음. 2017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기본방향 및 범정부 공동추진단 구성을 확정하고 기본방향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정책 방향을 논의하여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 시안을 마련하였음. 이후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18년 온종일 돌봄정책을 발표하였음.
-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정책 방향은 초등 방과후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핵심전략은 첫째, 부족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 둘째, 마을과 학교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자율성을 강조한 것임(최영, 2019).
- 정부의 온종일 돌봄 확대 공급계획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와 학교 교실을 지역사회에 개방, 지역아동센터의 일반 아동 비율을 조정, 다함께돌봄센터 신설을 통해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여 2022년까지 총 20만 명의 아동에게 추가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마을과 학교의 연계·협력체계는 현재 학교 내 돌봄과 지역 내 돌봄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상황에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이 어렵고, 돌봄서비스의 중복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려움. 온종일 돌봄체계에서는 지자체의 역할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자원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임.

- 학교 내 돌봄의 경우, 2022년까지 돌봄교실 총 3,500실 확대와 유휴교실 1,500실을 활용할 계획임.



〈그림 II-1-2〉 온종일 돌봄 공급 계획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3867>).

- 중앙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지자체는 서울시로, 서울시는 온종일 돌봄 정책을 서울시만의 자체적인 방과후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소득수준과 생활여건에 관계없이 초등 전 연령을 대상으로 보편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 서울시는 지역 내에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안으로 서울형 '다함께돌봄센터'인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신설·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 서울시는 기본계획 당시, 공적 초등돌봄 적용이 약 14%에 불과하였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확대를 위해 2019년 17%, 2021년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임. 각 마을(동)별 '우리동네 마을돌봄조정관'을 지정하여 마을학교 책임 운영 및 마을정보 제공, 자원 연계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그림 II-1-3〉 서울시 맞춤형 온마을돌봄체계도

출처: 서울시 우리동네키움 포털([https://icare.seoul.go.kr/icare/index.do#none](https://icare.seoul.go.kr/icare/index.do#none;)).

2. 초등돌봄 관련 지원사업의 내용

가. 초등돌봄교실(학교 내 돌봄: 교육부)

■ 목적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내의 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 및 보호자의 양육부담 완화를 도모

■ 주요 내용

-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교실' 도입 정책 발표 및 28개교 시범 운영 후, 2009년에는 300개교를 대상으로 돌봄 시간을 야간까지 확대한 '종일돌봄교실'을 시범 운영
- 2010년에는 6,200실의 '초등돌봄교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확대하였으며, 2011년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아침돌봄(6:30~9:00), 오후돌봄(방과후~17:00), 저녁돌봄(17:00~22:00)의 체계 확립
- 2015년에는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 대상 만족도 높은 돌봄교실 운영'을 통해 1~2학년 중심 돌봄교실 운영, 3학년 이상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

- 2017년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현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2018년 4월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음

■ 법적 근거

-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의 방과후 돌봄지원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황
- 다만, 교육부의 부령 성격을 가진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초·중등교육과정 총론)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에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후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고 제시한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하여 보급하는 ‘초등돌봄 운영 길라잡이’가 운영의 근거

■ 이용대상

- 설치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주요 대상

■ 돌봄 유형

- 오후돌봄교실,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유형
- (오후 돌봄교실)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오후돌봄은 오후돌봄 전용·겸용 교실을 활용하여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놀이 위주의 개인 활동과 단체 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
-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초등 3학년 이상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용·겸용 교실에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단일 학급 내 인원은 20명 내외로 구성
- (저녁돌봄)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오후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돌봄 전용·겸용 교실에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우선지원) 특히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돌봄의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을 우선 지원

■ 운영 형태

- (장소) 전용교실 설치를 위한 활용 가능한 교실이 없는 경우 특별실, 도서실, 일반교실 등을 돌봄겸용교실로 활용 가능
- (돌봄인력) 돌봄전담사는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인력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도별로 채용기준·절차 마련 가능
- (비용) 급·간식은 수익자 부담으로 제공하되, 교육비 지원대상 아동은 무상으로 제공.

프로그램은 무상프로그램 이외 학부모가 수익자 부담으로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유상으로 운영하되, 교육비 지원대상 아동은 무상으로 제공

- (자원 연계) 지역의 돌봄기관과 연계하여 운영 가능. 학교여건에 따라 공신력 있는 지역 기관 등과 연계 운영 가능
- (운영 시간) 오후돌봄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17시까지 운영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저녁돌봄은 학생안전관리 등을 감안하여, 5명 이하 참여 돌봄교실 운영은 지역돌봄기관과 연계하는 등 운영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나. 지역아동센터(지역 내 돌봄: 보건복지부)

■ 목적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및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추진

■ 주요 내용

- 기존의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돌봄, 교육보호를 제공하던 '공부방'이 2004년 법제화되면서 시작되었고,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
- 지역아동센터가 본격적으로 시작할 당시에는 895개소 23,347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16년 말 현재 약 4,100여 개소가 약 11만 명(초등생 8만 명)의 취약계층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
- 공부방으로 불리던 지역아동센터는 보편적 아동복지의 추구 및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 통합 정책의 관점에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2004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52조

■ 기능

- 아동보호 및 교육기능,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의 역할 담당
- (아동보호) 안전한 보호, 급식 제공 등
- (교육기능) 일상생활 지도, 학습, 능력 제고 등
- (정서적 지원) 상담·가족지원 등
- (문화서비스) 체험활동, 공연 등

■ 이용대상

- '돌봄 취약 아동'과 '일반아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 이용대상
- **(돌봄 취약 아동)** 선정기준에 따른 소득 기준, 가구 특성 기준, 연령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지역아동센터 정원의 80% 이상은 돌봄 취약 아동 등록 가능)
- **(일반 아동)** 연령 기준을 만족하는 아동을 뜻하며, 일반 아동은 2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 단, 지역별 상황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일반아동 등록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 주된 대상이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거나 만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 만 18세 미만의 학교 밖 청소년, 지역적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등도 연령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

■ 운영 형태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의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2~7시, 방학 중에는 낮 12시~오후 5시가 필수 운영시간

다. 다함께 돌봄사업(지역 내 돌봄: 보건복지부)

■ 목적

- 돌봄이 필요한 초등아동에게 일시 및 긴급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성장 및 발달과 함께 부모 및 보호자의 돌봄공백과 양육부담 완화,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

■ 주요 내용

-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돌봄 인프라로 2017년 7월 10곳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 2018년 4월 관계부처 합동 온종일 돌봄 정책 발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2018년 12월 기준으로 17곳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2019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을 「아동복지법」 제44조 2항에 직접 적용(2019. 4. 16. 시행)하는 등 아직은 초기 단계
-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마을 공동체와의 연계 활동을 강조하는 사업으로 기존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를 보였으나, 새롭게 시작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내의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자체장이 센터를 직접 또는 위탁 설치 운영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 2항(다함께돌봄센터)

■ 이용대상

-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초등학생) 아동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며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입소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
- 이용 자격에 대한 조건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구 아동을 우선 대상(차상위 계층 중심의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 아동의 소득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보호자는 이용을 희망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후 다함께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며, 센터는 정원 및 현원을 고려하여 자체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인에게 이용 결정을 통보

■ 돌봄 유형

-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은 상시 돌봄(일정한 기간이 정해진 돌봄(종일 돌봄, 시간제 돌봄))과 일시 돌봄(학교 휴업, 이용자의 긴급 사유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비정기적 돌봄)으로 구분

■ 돌봄서비스

- (기본 프로그램) 기본적인 돌봄에 관련된 프로그램(출결 및 급·간식)
- (공통 프로그램) 숙제지도 및 보충지와 신체 활동 등
- (학습활동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특기 적성의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으로 자율 참여)

■ 운영 형태

-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2~7시, 방학(단기 방학 포함)에는 오전 9시~오후 6시를 표준 서비스 제공 시간으로 두고 있음
-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은 포함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종일 돌봄은 매일 센터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 동안 이루어지며, 시간제 돌봄은 정기적인 단시간 혹은 요일별 이용에 해당
- (이용 요금) 센터 내·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비 및 외부강사 인건비 등 프로그램 활동비, 센터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현장학습비, 상해보험료, 급·간식비 등

라. 공동육아나눔터(지역 내 돌봄: 여성가족부)

■ 목적

- 육아품앗이 및 정보와 자원 나눔 등을 통해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구축

■ 주요 내용

- 2010년 5개 지역을 시작으로 시범사업 실시
-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확대 추진
- 2012년 2월에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으로 사업 확대
- 2019년 현재 전국 140개 시군구에 22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운영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로 운영하며, 그 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군부대 등도 운영 주체로 참여

■ 법적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1항(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1항(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3항(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 이용대상

- 서비스 이용의 대상자는 18세 미만 자녀와 부모. 그러나 주이용층은 미취학 아동과 부모

■ 돌봄 유형

-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 시간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 돌봄 유형은 공동육아나눔터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오후~저녁 종일돌봄과 오전개방 오후 돌봄, 혼합형 등으로 구분
- 기본적으로 주중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상시 개방되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프로그램 및 자녀돌봄 품앗이 등의 서비스를 이용

■ 돌봄서비스

- (공간 제공) 양육으로 인해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부모들에게 소통 공간 제공 및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을 지원
- (정보 및 자원 나눔) 양육 관련 정보 나눔, 장난감도서관, 육아용품 나눔, 봉사 나눔 등

■ 운영 형태

- 주 5일 상시 개방(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
- 맞벌이 가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는 경우 평일 야간 또는 주말 연장 운영 권장
- (이용 요금)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의 자치활동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 간식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기존 예산으로 제공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용자의 요금부담 가능

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지역 내 돌봄: 여성가족부)

■ 목적

-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2세 이하 영아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주요 내용

- 2006년 아이돌보미 양성 및 연계 시범사업으로 최초로 도입되어 천안과 울산에서 시범사업 실시
- 이후, 여성가족부의 신규사업으로 2007년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2009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실시
- 2012년 아이돌봄지원법 제정 이후, 아이돌봄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 2014년 8월부터 시간제 돌봄에 가사를 추가한 종합형과 보육교사 자격을 지닌 아이돌보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아종일제 돌봄보육교사형이 추가
- 2018년에는 가형~다형까지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을 확대하여 실시 중

■ 법적 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4조

■ 이용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돌봄 유형

- (영아종일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만 37개월이 되기 전날(만 36개월 이하인 마지막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은 생일이 지나면 불가능
- (시간제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돌봄서비스

- (영아종일제 서비스) 영아 돌봄에 필요한 이유식 제공 및 기저귀 갈기 등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활동 전반
- (시간제 서비스) 시간제돌봄 서비스의 경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제공,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지원 등. 종합형돌봄 서비스의 경우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세탁 및 청소 등)

■ 운영 형태

- (이용 서비스) 공통사항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 신청.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발생
- (기본 요금)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은 (영아종일제) 9,890원, [(시간제) 일반형 9,890원, 종합형 12,860원],(질병감염아동) 11,860원, (기관연계) 16,740원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율 적용

바. 방과후아카데미(지역 내 돌봄: 여성가족부)

■ 목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및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 청소년 활동 및 복지, 보호, 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 주요 내용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청소년위원회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 시범사업으로 46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 시범사업 이후, 전국 지역별로 도입하여 운영. 100개소까지 확대 운영

- 2008년 전국 185개소까지 확대하였으나, 2009년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중단. 제도 도입 후, 부실 운영 아카데미 폐쇄조치를 통해 161개소로 축소
- 2015년 국무조정실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조정회의에서 방과후아카데미를 중학생 중심의 특화사업으로 조정하였으나, 2018년 온종일 돌봄 구축체계 실행계획 중 마을돌봄 시책에 포함되어 초등아동을 포함
- 2019년 현재 전국 280개소 지원 운영

■ 법적 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 2항(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3항(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제33조의 4(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 사업 실시), 제33조 5항(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이용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초등 4학년~중등 3학년)
 - * 지역 수요에 따라 예비 4학년도 참여 가능(3학년 10월부터)
-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2자녀 이상 가정·맞벌이 가정 등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 지원
- (기타 지원대상) 학교(교장·교사), 지역사회(주민센터 동장·사회복지사 등)의 추천을 받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 승인받은 청소년

■ 돌봄 유형

- (주중 활동)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 20시수 이상의 프로그램에 참여(급식 5시수 의무, 그 외 프로그램의 편성은 기관 자율 편성)
- (주말 활동) 월 1회 5시수 이상의 프로그램 참여(급식 포함)

■ 돌봄서비스

- 주중 및 주말에 운영하는 상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형태

구 분		프로그램 및 시수
주중 (20시수 이상)		○체험활동, 교과학습 등 15시수(기관 특성화 방향에 따라 자율편성) ○생활지원과정 5시수 이상(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주말 (토)	월1회 (주말체험)	○주말체험활동 4시수 ○생활지원과정 1시수(급식, 상담, 건강관리 등)

- (지원 내용) 청소년 모집 및 선발, 청소년 출결관리, 청소년 생활지도 및 관리, 건강·안전지도 및 관리, 중도 포기자 및 대기자 관리

■ 운영 형태

- (시설 설치)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및 지자체·교육(지원)청 관할 공공시설, 민간운영시설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내 설치
- (운영 유형) 지역 특성에 적합한 운영 유형을 선택

구분		2개반	3개반	1개반
기본지원형·농산어촌형		40명	60명	30명
특별	장애형	15~20명	25~30명	8~10명
	다문화형	30명	45명	15명
	인원축소형	-	-	15명

- (운영 일수) 일 4시수, 주 5~6일 운영. 총 240일 운영(월 1회 주말체험 연 12일 포함). 단 장애형의 경우 총 230일 운영

〈표 II-2-1〉 방과후 공적 돌봄체계 주요 내용

주무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사업명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명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법적 근거	- 현재 법적 근거 없음 -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 법적근거를 최초로 마련한 초·중·고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 「아동복지법」 제50조~제52조 제54조~제75조(설치근거 제52조 1항제8호) - 「아동복지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법」 제8조, 「사회복지법」 제3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 구별 자체 조례에 : 서울특별시 강남구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6조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1항(공동육아나눔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1항(지역아동센터의 강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3항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3조 3항(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 실시), 제33조 5항(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추진 목적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내의 시설 공간을 활용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 및 보호자의 양육부담 완화를 도모 -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익적 협력과 연계를 통해 부족한 돌봄서비스 제공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양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육아정책 및 정보와 자원의 융합을 통해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조성을 통해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구축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 완화에 기여
이용대상	- 초등 전학년(전학년 대상이나 학년에 따라 돌봄교실 종류를 다르게 운영)	- (돌봄취약아동)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일반아동) 연령기준(만 18세 미만)을 만족하는 아동(3명 이상 다자녀 가족의 아동 및 맞벌이 가정의 아동 포함) - 신고장원의 80% 이상은 돌봄취약아동, 일반아동은 20% 범위 내	- 돌봄이 필요한 만6세~12세(초등학생) 아동 - ※ 소득 수준과 무관, 지역 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 - (임소 우선순위)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및 장애, 요양, 화자가 있어 돌봄이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시간이 긴 경우	- 서비스 이용의 대상자는 18세 미만 자녀와 부모지만, 주이용층은 미취학 아동과 부모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영아종합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서비스)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일반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주무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내용	- 오후돌봄교실,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유형 단일 학급 내 인원은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교실 공간의 크기, 학년당 학생 수, 퇴실 시간, 학생 발달 단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학급 편성 - 단체 활동 프로그램은 매일 1개 이상 또는 주 5회 이내 무상으로 운영하고, 학부모의 수의자 부담 돌봄 프로그램 수요가 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이 가능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등), 교육 기능(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제공 - 기본프로그램(출결, 이동지원, 급·간식 지원), 공통프로그램(수제지도, 독서지도, 신체활동, 휴식), 학습활동(기초, 외국어, 예체능, 과학, 체험활동 등)	- (공간 제공) 부모들에게 소통공간 제공 및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 -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공동육아 지원)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구성·운영 - (놀이활동 지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교구 등을 지원 - (정보 및 자원 나눔) 양육관련 정보 나눔, 장난감 도서관, 육아용품 나눔, 봉사 나눔 등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질병감염이동 지원 서비스, 기관연계 서비스 (일반형 서비스) 학교, 보육 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챙겨주기 등 -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이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프로그램 운영 편성: 프로그램 과정(자기주도프로젝트 활동, 동아리 활동, 역량개발 활동, 참여활동, 창의융합역량강화, 진로체험활동 등), 학습지원활동 (보통학급, 교과학습 등),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과 정(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주중 활동과 주말 활동으로 분리
	영양상태	- 급·간식은 수의자 부담으로 제공, 교육비 지원대상 아동은 무상으로 제공 - 프로그램은 무상프로그램 이외 학부모가 수의자 부담으로 추가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유상으로 운영, 교육비 지원대상 학생은 무상 제공 - 돌봄교실은 학교여건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 운영 가능 - 오후돌봄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17시까지 운영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의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에는 오후 2~7시, 방학 중에는 낮 12시~오후 5시를 필수 운영시간	- 주 5일 상시 개방(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운영, 맞벌이 가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가 있는 경우 평일 야간 또는 주말 연장 운영 권장 - (이용 요금) 무료를 원칙. 이용자의 자치활동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 (이용 서비스) 공통사항으로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영아 종일제 서비스는 1회 3시간 이상 신청 - 시간제서비스, 질병감염이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1회 2시간 이상 신청,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 발생 -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지원

3. 방과후 초등돌봄 관련 사례¹⁾

가. 서울특별시 중구(지자체 직영 초등돌봄교실)

- 중구는 서울시 중심부의 업무지구로서 상대적으로 주거기능은 약하지만, 초등학생 학부모의 맞벌이 비율이 높아 돌봄에 대한 수요가 많은 편임.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중구청에서는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를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돌봄지원팀을 신설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된 팀원이 돌봄시설 조성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또한, 초등돌봄 관련 협의체(중구 모든아이 돌봄협의체)를 중구청, 서울시, 교육지원청, 학교장, 돌봄전담사,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 돌봄 시설간의 연계, 공동수요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음. 기존 중부교육지원청에서 6개 권역별 협의체를 운영하던 것을 2019년부터 중구청에서 담당하여 운영함.
- 이전까지는 교육지원청의 초등돌봄교실 위주로 운영되었지만, 2018년부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아이돌봄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든 돌봄서비스를 구청이 주도하고 있음. 중구청이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직영 운영을 위해서 관내 공립초등학교에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학교장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함. 돌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구청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초등학생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돌봄사업을 강화·확대하고 있음.
- 서울시 중구는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달리 자치구가 초등돌봄교실을 직영하는 사례임. 현재 5개소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을 중구에서 직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그 중, 흥인초등학교 사례를 살펴보면, 중구청은 교육청·지자체·학교간 업무협약을 맺어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비어있는 흥인초등학교의 3개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였음. 학교에서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서비스는 지자체가 분담하여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중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흥인초등학교위 전체 아동 중에 맞벌이 가정이 해당되는 아동이 51.2%(2,703명)로 절반 이상임. 이 중, 현재 78명(1~3학년)이 이용 중에 있음. 중구청이 운영을 맡게 되면서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하였고, 돌봄인력 확충, 운영시간 연장, 간식과 저녁 식사 제공,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추진하였으며, 전액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서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와 함께 질적으로 향상되었음.
- 운영 주체는 구청이되, 학교 교실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함. 돌봄교실 리모델링 시, 돌봄교실 전용 출입구와 돌봄 보안

1) 이희현 외(2019)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우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사례 중, 충남에 적용 가능한 사례를 요약·정리하였음.

관실을 설치하여 방과후 학교 공간과 돌봄교실 간의 분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방과후 관리 책임은 중구청에 있으며,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들어 대비하고 있음. 공공요금은 면적 대비 산출하여 분담하고 있음.

〈표 II-3-1〉 관련 기관별 역할

구분	중구청	중부교육지원청	학교
역할	· 돌봄시설 설치 · 돌봄교실 운영(강사 섭외, 급식·석식 제공, 시설 리모델링 및 관리, 인력 관리(구청 시설관리공단 위탁) · 협의체 운영 등	· 돌봄교실 운영 지원 · 수요조사 지원 · 교육청 소속 전담사와 고용전환 관련 협의 · 돌봄전담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 공간 제공 · 돌봄교실 운영 관련 원내 협의

- 중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흥인초등학교의 돌봄교실 운영 개요를 살펴보면, 돌봄교실(3교실)의 정원은 75명이고, 돌봄인력은 1교실당 돌봄전담사 2명(전일제 1명, 시간제 1명)을 배정하여 총 6명이 담당하고 있고, 돌봄보안관(시간제 1명)과 보조인력(아침돌봄, 방학중 돌봄)을 지원하고 있음. 프로그램 운영은 매일 2개의 특기·적성 등 프로그램을 매일 다르게 제공함.

나. 전라북도 완주군(민 주도-관 지원의 민관협력형)

- 완주군은 전체 41,732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20,866가구로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해상 학생 수는 약 6,000명 정도로,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임.
- 완주군은 초등돌봄과 관련하여 공적 돌봄기관인 초등돌봄교실 49개소, 지역아동센터 13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개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마을학교 20개, 작은 도서관 10개 등을 설립·운영하는 한편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완주군의 돌봄체계 특징은 민(民)에서 적극적으로 돌봄 정책에 개입하여 활동하고, 관(官)에서는 지역주민이나 단체의 개입 및 활동을 지원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임. 지역 공동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군청과 교육지원청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의 초등돌봄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 완주군은 완주교육청의 로컬에듀 정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풀뿌리교육지원센터 운영과 학부모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음. 완주군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해오던 고산 온

누리살이 사회협동조합이 고산풀뿌리지원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양면의 학부모 단체인 소양의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후 소꿈사) 협동조합이 소양풀뿌리지원센터를 운영함.

- 고산풀뿌리지원센터와 소양풀뿌리지원센터 등과 같은 지역 공동체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방과후돌봄을 담당함으로써 학교는 교육활동에 충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고산풀뿌리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고산초와 삼우초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방학중 돌봄은 고산초와 삼우초가 나누어 학교개발을 하여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마을과 학교의 자생적 거버넌스는 완주군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학교와 학부모, 지역 주민이 참여한 고산향교육공동체가 기반이 되었음. 고산향교육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교육 문제를 협의하고 조정하며 해결해 왔음. 이를 토대로 학부모 공동체가 활발하게 형성되었고, 학부모 및 지역 주민 중심의 협동조합과 함께 완주군청과 완주교육지원청의 지원이 더해져 시너지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고산풀뿌리교육지원센터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 위탁운영하며, 주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학교와 연계하여 방학중 겨울풀뿌리 마을학교와 여름풀뿌리 마을학교를 초등학교 공간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토요일풀뿌리 마을학교도 완주지역경제순환센터 및 고산지역 자연휴양림 등에서 이루어지는 마을학교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지역의 통합적 활동임. 현재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방과후돌봄도 위탁 운영할 계획임.
- 반면, 소양풀뿌리교육지원센터의 경우, 고산풀뿌리지원센터와 동일하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고 방학 및 토요일풀뿌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공식적인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도 방과후시간인 19시 30분까지 급·간식을 제공하는 등의 마을 돌봄을 운영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완주군의 고산초등학교, 삼우초등학교, 소양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지역사회의 자원인 마을강사임. 2017년에는 초등돌봄교실도 풀뿌리교육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각 초등돌봄교실에 돌봄전담사가 배치되어서 초등돌봄교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만을 전담하고 있음.

다. 강원도 원주시(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민 주도형)

- 원주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특징이 점차 두드러지면서 원주시를 구성하고 있는 읍면 지역별로 요구되는 돌봄의 형태나 특징 등에 있어서 차이가 큰 편임. 이러한 특성에 따라 원주시는 민(民) 중심의 중간조직을 중심으로 읍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돌봄을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민관의 긴밀하고 실제적인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원주시의 초등돌봄기관 중 가장 많은 기관은 초등돌봄교실이 104개, 지역아동센터가 31개 순으로, 지역의 공적 초등돌봄 수요 충족 비율은 97.5%로 매우 높은 상황이고, 특히 초등돌봄교실의 개소 수와 이용 아동 수가 다른 돌봄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임.
- 원주시 농촌형 초등돌봄서비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서곡교육네트워크임. 지역 주민들이 마을 아동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교육공동체로, 서곡초등학교와 함께 다양한 체험 중심의 돌봄을 운영하고 있음. 서곡교육네트워크는 2006년 원주 최초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소꿉마당' 조합원 출신 부모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서곡생태마을, 자연누리숲학교, 길배움터와 서곡초등학교를 비롯한 7개 기관으로 구성되었음. 서곡교육네트워크로 구성된 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통해 방학 중 돌봄을 중심으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음.
-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점심과 간식 등을 제공하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예산이 충분치 않아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의 학부모들에게 약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받아 운영한다는 한계가 있음. 또한, 방학 중 돌봄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방과후돌봄을 비롯한 또 다른 형태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를 보임.
- 원주시의 도시형 대표적인 사례는 마을작은도서관 '한라비발디 놀자! 도서관'임. 한라비발디 놀자! 도서관 사례는 아파트 관리동의 도서관을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의 돌봄 인식 개선을 통해 마을단위 돌봄에 참여하고 있음.
- 한라비발디 놀자! 도서관에서는 '푸른원주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소속의 마을활동가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을 계기로 지역공동체와 마을공동체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음. 특히 초등학생 방과후돌봄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 대상의 세대 간 프로그램 운영을 연계하여 새로운 정서적 마을을 형성해가고 있으며 마을활동가 양성에도 기여함.
- 원주시에는 이러한 돌봄 관련 단체들이 모여 설립한 원주아동청소년교육네트워크 '물꼬'가 있음. 물꼬는 지역 실무자들의 소통과 통합사례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지원 및 구축사업'을 운영하면서 각 지역의 돌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 원주시는 마을학교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민간에서 주체적으로 나서서 돌봄 환경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가 강하고, 돌봄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는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함.
- 반면, 민(民)에서 주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따른 지역적 편차가 크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부족하여 시너지효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지역도 발생함.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기초 연구



Ⅲ. 충남 초등돌봄 관련 기본현황

Ⅲ. 충남 초등돌봄 관련 기본사항

1. 전국 및 충남의 아동 인구 현황

가. 전국 및 충남 인구와 아동 인구

- 인구총조사(2000~2019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는 2000년 45,985,289명에서 2019년 50,000,28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남성보다 여성이 282,034명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충남의 인구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전체인구 2,084,631명 중 남성은 1,061,585명, 여성은 1,023,046명으로 여자보다 남자 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증감률을 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증감률이 2.1%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부터 2010년에 다시 6.4%의 급속한 인구 증감률로 나타남. 이는 수도권 기업의 충청남도 이전으로 인한 인구증가율로 보여짐.

〈표 Ⅲ-1-1〉 전국 및 충청남도 인구 변화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전국	총인구	45,985,289	47,041,434	47,990,761	49,705,663	50,000,285
	남성	23,068,181	23,465,650	23,840,896	24,819,839	24,934,662
	여성	22,917,108	23,575,784	24,149,865	24,885,824	25,065,623
	증감률	(+)3.2	(+)2.3	(+)2.0	(+)3.6	(+)0.6
충청남도	총인구	1,840,410	1,879,417	2,000,473	2,036,720	2,084,631
	남성	924,986	945,540	1,007,454	1,034,139	1,061,585
	여성	915,424	933,877	993,019	1,002,581	1,023,046
	증감률	(+)4.3	(+)2.1	(+)6.4	(+)1.8	(+)2.4

1) 전체인구는 내국인만 집계한 수치임.

출처: 통계청, 「각년도 인구총조사」

- 연령대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충남의 평균 연령은 43.1세로 50~59세 연령의 인구가 1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49세가 15.2%, 30~39세가 13.1%, 20~29세가 12.1%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부터 50대까지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한 생산인구는 충남 전체 인구의 56.2%로 나타났다. 0~9세와 70세 이상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충남의 연령대별 인구 구성

(단위: 명, %)

연령	인구	구성비
0~9세	180,551	8.7
10~19세	212,892	10.2
20~29세	252,566	12.1
30~39세	273,761	13.1
40~49세	315,981	15.2
50~59세	329,900	15.8
60~69세	250,076	12.0
70~79세	162,172	7.8
80세 이상	106,732	5.1
합계	2,084,631	100.0

출처: 통계청, 「2019년 인구총조사」

- 전국 및 충청남도 시군별 아동 인구를 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전국의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총인구의 16.6%인 8,292,833명으로 나타났고, 여자 아동 인구(16.0%)보다 남자 아동 인구(17.2%)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충남 총인구의 17.4%인 363,284명으로 나타났다.
- 시군별로 살펴보면, 계룡시의 18세 미만 아동 인구가 2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산시 20.7%, 천안시 19.3%, 당진시 18.7%, 서산시 18.3%, 홍성군 17.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의 18세 미만 아동 인구는 전국 18세 미만 아동 인구 비율인 16.6%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청양군은 10.1%(3,028명)로 충남의 시군별 가운데 아동 인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 충청남도 시군별 아동 인구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18세 미만 아동 인구		
		전체	남자	여자
전국	50,000,285	8,292,833(16.6)	4,276,580(17.2)	4,016,253(16.0)
충청남도	2,084,631	363,284(17.4)	187,765(17.7)	175,519(17.2)
천안시	649,584	125,425(19.3)	64,761(19.6)	60,664(19.0)
공주시	106,959	14,788(13.8)	7,857(14.8)	6,931(12.8)
보령시	95,202	13,431(14.1)	6,911(14.3)	6,520(13.9)
아산시	318,633	65,984(20.7)	33,693(20.4)	32,291(21.0)
서산시	168,621	30,815(18.3)	16,083(18.4)	14,732(18.1)
논산시	116,166	17,623(15.2)	9,260(15.9)	8,363(14.4)
계룡시	40,839	9,395(23.0)	4,821(23.7)	4,574(22.3)
당진시	160,567	30,096(18.7)	15,655(18.5)	14,441(19.0)
금산군	51,201	6,774(13.2)	3,475(13.6)	3,299(12.9)
부여군	63,440	7,237(11.4)	3,839(12.2)	3,398(10.6)
서천군	49,836	5,642(11.3)	2,894(11.8)	2,748(10.9)
청양군	29,885	3,028(10.1)	1,584(10.4)	1,444(9.8)
홍성군	99,198	16,948(17.1)	8,687(17.7)	8,261(16.5)
예산군	75,571	9,025(11.9)	4,691(12.3)	4,334(11.5)
태안군	58,929	7,073(12.0)	3,554(11.9)	3,519(12.2)

출처: 통계청, 「2019년 인구총조사」

- 전국 및 충청남도 시군별 아동 인구 증감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및 충남 모두 18세 미만 아동 인구의 증감률은 감소추세로 나타났음. 전국의 증감률은 2000~2019년까지 꾸준한 감소추세로 나타났으며, 감소폭은 더욱 커지는 추세임. 반면, 충남의 아동 인구 증감률의 경우, 2005년에는 2000년 대비 -8.5%로 큰 폭의 감소추세를 나타냈으나, 2010년에는 2005년 대비 -1.2%로 감소추세가 완화되었음. 그러나 2015년에는 2010년 대비 -10.5%로 다시 높은 감소추세를 보였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홍성군의 경우, 부분적으로 아동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아산시의 아동 인구는 2000~2015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에서 2005~2010년 34.4%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추세를 보임.

- 충남의 시군 중, 2015년 대비 2019년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시군은 홍성군으로 2.3%의 증가율을 나타냈음. 홍성군은 2010년 이후 아동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충남도청의 이전으로 인한 인구유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됨.

〈표 Ⅲ-1-4〉 전국 및 충청남도 시군별 아동 인구변화

(단위: 명, %)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전국	인구	12,485,564	11,449,028	10,548,208	9,406,036	8,292,833
	증감률	-6.5	-8.3	-7.9	-10.8	-11.8
충청남도	인구	484,242	446,225	440,763	398,723	363,284
	증감률	-4.7	-8.5	-1.2	-10.5	-9.8
천안시	인구	125,165	142,643	140,245	131,530	125,425
	증감률	20.5	14.0	-1.7	-6.2	-4.6
공주시	인구	33,668	28,608	24,280	18,783	14,788
	증감률	-13.2	-15.0	-15.1	-22.6	-21.3
보령시	인구	27,979	21,880	19,560	16,425	13,431
	증감률	-21.5	-21.8	-10.6	-16.0	-18.2
아산시	인구	48,435	48,595	65,302	68,659	65,984
	증감률	14.7	0.3	34.4	5.1	-3.9
서산시	인구	39,654	36,090	36,687	34,363	30,815
	증감률	-1.2	-9.0	1.7	-6.3	-10.3
논산시	인구	34,738	28,615	24,318	21,078	17,623
	증감률	-17.8	-17.6	-15.0	-13.3	-16.4
계룡시	인구	9,596	10,374	12,329	10,078	9,395
	증감률	-	8.1	18.8	-18.3	-6.8
당진시	인구	29,968	25,330	28,584	32,251	30,096
	증감률	-3.0	-15.5	12.8	12.8	-6.7
금산군	인구	12,708	9,920	9,049	8,307	6,774
	증감률	-22.2	-21.9	-8.8	-8.2	-18.5
부여군	인구	19,686	14,729	11,566	9,453	7,237
	증감률	-25.3	-25.2	-21.5	-18.3	-23.4
서천군	인구	14,735	10,887	8,811	7,281	5,642
	증감률	-30.8	-26.1	-19.1	-17.4	-22.5
청양군	인구	8,325	5,592	4,432	3,956	3,028
	증감률	-16.5	-32.8	-20.7	-10.7	-23.5
홍성군	인구	22,000	17,881	16,552	16,565	16,948
	증감률	-20.9	-18.7	-7.4	0.1	2.3
예산군	인구	22,659	16,641	13,939	11,518	9,025
	증감률	-18.7	-26.6	-16.2	-17.4	-21.6
태안군	인구	15,511	11,427	9,009	8,476	7,073
	증감률	-11.3	-26.3	-21.2	-5.9	-16.6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나. 충남의 시군별 초등학생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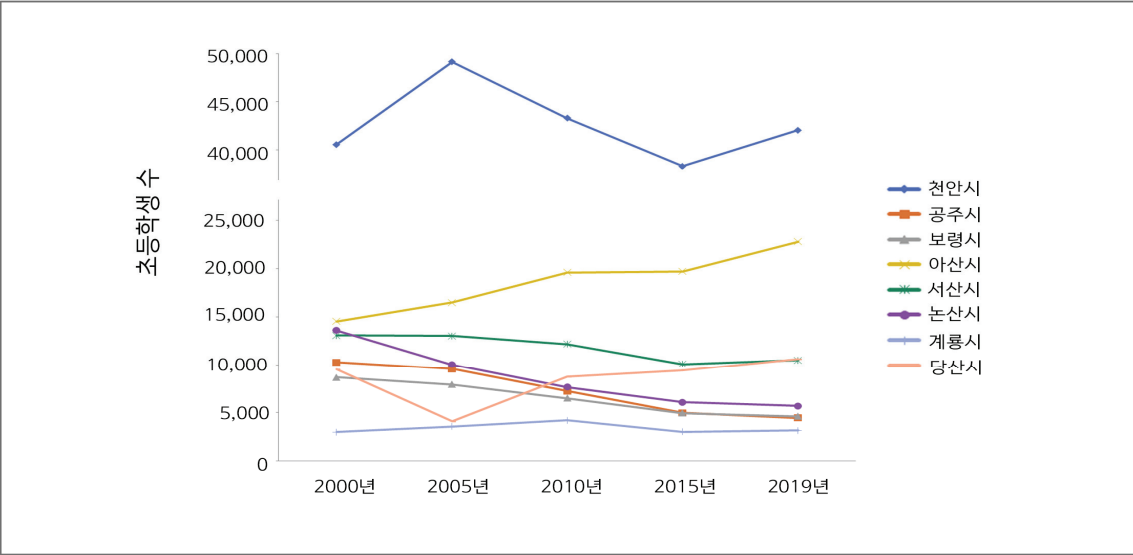
- 충남의 시군별 초등학생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충청남도 전체 초등학생 수는 122,424명으로, 2000년 151,526명에 비해 약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인구가 증가한 시군은 천안시와 아산시, 당진시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시군은 천안시로 나타났다.
- 반면, 농촌 지역은 모두 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초등학생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청양군으로, 현재 959명의 초등학생이 청양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초등학생 인구의 감소폭이 가장 큰 시군은 서천군으로 2000년 대비 2019년 61.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5〉 충청남도 시군별 초등학생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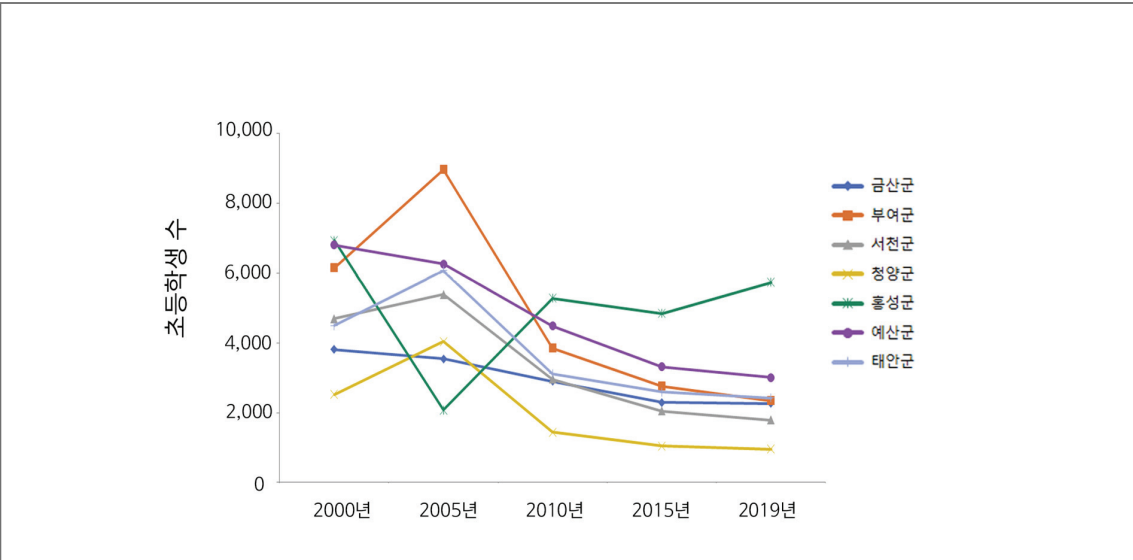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전체	151,526	156,088	138,404	115,484	122,424
천안시	40,563	49,124	43,293	38,323	42,059
공주시	10,260	9,557	7,234	4,986	4,460
보령시	8,663	7,944	6,501	4,959	4,621
아산시	14,533	16,484	19,601	19,707	22,801
서산시	13,093	13,029	12,162	10,078	10,488
논산시	13,613	10,019	7,655	6,099	5,709
계룡시	-	3,568	4,204	3,023	3,161
당진시	9,507	4,089	8,738	9,420	10,613
금산군	3,806	3,547	2,894	2,296	2,260
부여군	6,148	8,968	3,854	2,757	2,345
서천군	4,696	5,385	2,955	2,049	1,787
청양군	2,520	4,035	1,444	1,041	959
홍성군	6,934	2,074	5,277	4,842	5,734
예산군	6,808	6,255	4,482	3,318	3,007
태안군	4,491	6,075	3,121	2,586	2,420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유·초·중등 교육통계 연도별 추이」



〈그림 III-1-1〉 행정구역(시)별 초등학생 인구 변화



〈그림 III-1-2〉 행정구역(군)별 초등학생 인구 변화

- 충청남도 지역규모별 초등학생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전체 초등학생 인구 중 중소도시의 초등학생 인구가 가장 많은 66,911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읍지역 29,459명, 면지역 25,298명, 도서·벽지 지역이 756명으로 나타났다.
- 중소도시의 초등학생 인구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15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로 나타났으나, 중소도시를 제외한 읍지역, 면지역, 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꾸준한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표 Ⅲ-1-6〉 충청남도 지역규모별 초등학생 인구변화

(단위: 명)

구분	2000	2005	2010	2015	2019
전체	151,526	156,088	138,404	115,484	122,424
중소도시	63,351	71,498	65,060	61,729	66,911
읍지역	35,773	42,647	41,754	28,362	29,459
면지역	46,118	40,708	30,535	24,573	25,298
도서·벽지 지역	6,284	1,235	1,055	820	756

출처:국가교육통계센터, 「시도별 지역규모별 학생수」

- 초등학생 학년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충남 전체 420개교에 122,43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의 학생 수가 가장 많은 21,051명이었으며, 4학년은 가장 적은 19,412명으로 나타났음.
- 시군별로 살펴보면, 천안시는 75개교 425,101명으로 학교 수와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아산시가 46개교 22,760명, 당진시 31개교 10,586명, 서산시 31개교 10,50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청양군은 12개교 956명으로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계룡시의 경우, 학교 수는 5개교로 가장 적었지만, 학생 수는 3,152명으로, 학교 수에 비해 많은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Ⅲ-1-7〉 초등학생 학년별 인구 구성

(단위: 개, 명)

구분	학교수	전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420	122,431	21,051	20,586	20,431	19,412	20,041	20,910
천안시	75	42,101	7,476	7,111	7,027	6,576	6,830	7,081
공주시	28	4,468	733	748	729	708	740	810
보령시	32	4,639	729	782	788	747	799	794
아산시	46	22,760	4,125	3,932	3,863	3,585	3,573	3,682
서산시	31	10,502	1,827	1,733	1,731	1,668	1,718	1,825
논산시	33	5,662	893	897	902	922	994	1,054
계룡시	5	3,152	470	504	506	517	549	606
당진시	31	10,586	1,864	1,839	1,830	1,675	1,679	1,699
금산군	17	2,286	318	377	398	368	399	426
부여군	24	2,349	368	367	384	381	411	438
서천군	18	1,791	262	306	318	286	302	317
청양군	12	956	159	162	160	153	170	152
홍성군	21	5,728	940	922	960	944	964	998
예산군	24	3,033	489	501	497	477	489	580
태안군	23	2,418	398	405	338	405	424	448

출처: 국가교육통계센터, 「2019년 하반기 유·초·중등 교육통계 학교별 주요 현황」

2. 충남의 초등돌봄 기관 및 이용 현황

가. 초등돌봄교실

- 충남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전체 420개교에서 750개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음. 전체 이용 초등학생은 16,148명으로, 충남 전체 초등학생수(122,431명)의 약 13.2%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당 평균 돌봄교실 수는 1.8개이며, 교실당 평균 학생 수는 21.5명으로 나타났고, 평균 2개 이상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천안시, 계룡시, 공주시, 청양군, 홍성군뿐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초등돌봄교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천안시(3,454명)로 이는 충청남도 전체 초등돌봄교실 이용자의 21.4%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아산시(1,640명), 공주시(1,371명)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각 시군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수 대비 이용률을 분석해보면, 천안시와 아산시가 각각 8.2%, 7.2%로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청양군은 56.6%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1〉 초등돌봄교실 운영 학교 및 이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학교수	교실수	이용 인원	이용률
전체	420	750	16,148	13.2
천안시	75	159	3,454	8.2
공주시	28	57	1,371	30.7
보령시	32	45	815	17.6
아산시	46	73	1,640	7.2
서산시	31	55	1,292	12.3
논산시	33	58	1,211	21.4
계룡시	5	11	292	9.3
당진시	31	52	1,244	11.8
금산군	17	23	427	18.7
부여군	24	29	618	26.3
서천군	18	26	478	26.7
청양군	12	29	541	56.6
홍성군	21	54	1,077	18.8
예산군	24	46	1,067	35.2
태안군	23	33	621	25.7

출처: 충남도청 내부자료(2020년 7월 말 기준)

나. 지역아동센터

- 충남의 지역아동센터는 총 239개소가 운영 중이고, 현재 6,485명의 아동이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수는 만 18세 미만 학생까지 포함한 수치로, 초등학생만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음. 다만, 대다수 이용 아동이 초등학생으로 중학생 이상은 거의 포함되지 않았음.
- 센터당 평균 이용 아동은 27.1명으로, 센터당 평균 이용 아동이 30명 이상인 곳은 서산시(31.3명), 서천군(32.4명), 예산군(30.1명)으로 조사되었음. 전체 초등학생 수 대비 전체 이용률은 5.3%로, 각 시군별로는 서천군이 1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금산군이 15.5%, 논산시가 11.4% 순으로 나타났음.

〈표 III-2-2〉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센터수	정원	이용 인원	이용률
전체	239	7,056	6,485	5.3
천안시	62	1,769	1,634	3.9
공주시	9	224	199	4.5
보령시	9	251	227	4.9
아산시	39	1,260	1,089	4.8
서산시	14	464	438	4.2
논산시	22	685	648	11.4
계룡시	3	87	78	2.5
당진시	10	269	258	2.4
금산군	16	399	354	15.5
부여군	8	242	234	10.0
서천군	11	376	356	19.9
청양군	3	87	83	8.7
홍성군	12	348	338	5.9
예산군	11	345	331	10.9
태안군	10	250	218	9.0

1) 이용 인원에는 중학생이 포함된 수치임.

출처: 충남도청 내부자료(2020년 6월 말 기준)

다. 다함께돌봄센터

- 다함께돌봄센터는 충남의 15개 시군 중, 8개의 시군 내 12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서천군(3개소)과 보령시(3개소)를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각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음. 전체 12개소 센터의 이용 초등학생은 총 251명으로, 정원 대비 80% 수준임.
- 전체 초등학생 수 대비 전체 이용률은 0.2%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 각 시군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수 대비 이용률 살펴보면, 서천군이 2.5%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보령시가 1.3%, 홍성군이 1.1%의 이용률을 보였음.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앞으로 돌봄 수요의 많은 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임.

〈표 III-2-3〉 다함께돌봄센터 및 이용 현황

(단위: 개소, 명, %)

구분	센터수	정원	이용 인원	이용률
전체	12	313	251	0.2
공주시	1	20	6	0.1
보령시	3	64	58	1.3
서산시	1	20	19	0.2
계룡시	1	20	16	0.5
금산군	1	20	23	1.0
서천군	3	84	44	2.5
홍성군	1	65	65	1.1
예산군	1	20	20	0.7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2020년 7월 말 기준)

라. 공동육아나눔터

- 공동육아나눔터의 현황을 보면, 충남의 시군에 총 3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용 인원은 2020년 7월까지 총 26,656명이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 중, 초등학생은 16,364명이 이용하였고, 매월 평균 2,337.7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기관 당 평균 매월 64.9명에 해당하는 수치임.
- 충남의 15개 시군 중,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지 않는 시군은 4곳으로, 논산시, 계룡시, 청양군, 예산군임.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는 11개 시군 중, 천안시나 서산시 등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 특히, 당진시의 경우,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초등학생에 집중되어 있어 기관 운영이 초등학생 돌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추측됨.

〈표 III-2-4〉 공동육아나눔터 및 이용 현황

(단위: 개소, 명)

지역	기관수	이용 인원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	계
전체	36	10,192	16,364	191	26,656
천안시	13	2,422	2,374	80	4,876
공주시	2	922	221	8	1,151
보령시	1	142	1	-	143
아산시	1	109	27	-	136
서산시	4	2,011	2,061	3	4,075
논산시	-	-	-	-	-
계룡시	-	-	-	-	-
당진시	6	2,791	7,980	75	10,846
금산군	1	534	39	-	573
부여군	1	317	175	2	494
서천군	3	498	3,367	-	3,865
청양군	-	-	-	-	-
홍성군	3	399	75	23	497
예산군	-	-	-	-	-
태안군	1	47	44	-	91

1) 2020년 1~7월까지의 누계임.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2020년 7월 말 기준)

마. 아이돌봄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의 제공 기관 및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전체 시군에 각각 1개소씩 총 1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이용 초등학생은 1,070명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1~7월까지의 누계로, 월 평균 이용 초등학생은 152.9명으로 나타났음.
- 충남의 시군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당진시(268명)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부여군(194명), 천안시(171명), 공주시(106명) 순으로 나타났음. 부여군의 경우에는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영유아보다 초등학생 이용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III-2-5〉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이용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기관수	이용 인원		
		영유아	초등학생	계
전체	15	4,117	1,070	4,952
천안시	1	457	171	628
공주시	1	673	106	779
보령시	1	166	57	223
아산시	1	413	36	449
서산시	1	200	35	235
논산시	1	203	32	235
계룡시	1	140	33	173
당진시	1	1,141	258	1,399
금산군	1	24	8	32
부여군	1	178	194	372
서천군	1	42	20	62
청양군	1	49	36	85
홍성군	1	269	56	325
예산군	1	104	5	109
태안군	1	58	23	81

1) 2020년 1~7월까지의 누계임.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2020년 7월 말 기준)

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충남 15개 시군 중, 7개의 시군에서 각각 1개소씩 전체 7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기관마다 이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음. 충남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전체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은 7개뿐임.
- 7개 기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은 251명으로 부여군이 39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천안시가 12명으로 가장 적었음.

〈표 III-2-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및 이용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기관수	정원	이용 인원
전체	7	313	251
천안시	1	15	12
공주시	1	40	35
보령시	1	40	24
논산시	1	40	32
부여군	1	40	39
청양군	1	20	19
태안군	1	40	36

1) 중학생을 제외한 초등학생 인원임.

출처: 충청남도 내부자료(2020년 7월 말 기준)

3. 충남의 초등돌봄서비스 공급 현황

가. 교육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

- 교육부는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지원하고 있음. 초등돌봄교실에 따른 공급률 추정에는 실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을 중심으로 추산하였고, 공급률은 초등학생 전체 인원과 초등돌봄교실의 주요 대상자인 저학년(1~3학년)을 나누어 추정하였음.
- 초등학생 전체 인원에 따른 공급률은 13.19%로 나타났음. 수요 대비 공급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청양군으로 56.59%의 공급률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예산군이 35.18%, 공주시가 30.68%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요 대비 공급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아산시로 7.21%의 공급률을 나타냈음.
- 한편, 초등돌봄의 주요 대상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저학년 인원에 따른 공급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급률은 26.02%로 나타났음. 시군별 수요 대비 공급률은 전체 인원에 따른 공급률과 마찬가지로 청양군이 가장 높은 112.47%로 나타난 반면, 아산시는 13.76%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전체 인원에 따른 공급률보다 저학년 인원에 따른 공급률에서 시군 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고, 시 지역보다는 군 지역의 공급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음.

〈표 III-3-1〉 교육부 소관 기관 공급률

(단위: 명, %)

구분	이용인원	학생수 (A)	공급률 (A)	학생수 (B)	공급률 (B)
전체	16,148	122,431	13.19	62,068	26.02
천안시	3,454	42,101	8.20	21,614	15.98
공주시	1,371	4,468	30.68	2,210	62.04
보령시	815	4,639	17.57	2,299	35.45
아산시	1,640	22,760	7.21	11,920	13.76
서산시	1,292	10,502	12.30	5,291	24.42
논산시	1,211	5,662	21.39	2,692	44.99
계룡시	292	3,152	9.26	1,480	19.73
당진시	1,244	10,586	11.75	5,533	22.48
금산군	427	2,286	18.68	1,093	39.07
부여군	618	2,349	26.31	1,119	55.23
서천군	478	1,791	26.69	886	53.95
청양군	541	956	56.59	481	112.47
홍성군	1,077	5,728	18.80	2,822	38.16
예산군	1,067	3,033	35.18	1,487	71.76
태안군	621	2,418	25.68	1,141	54.43

1) 초등돌봄교실은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 이용 인원으로 추산한 수치임.

2) 학생 수(A)는 전체 (1~6학년), 학생 수(B)는 저학년(1~3학년)임.

나.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

-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기관인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수요 대비 공급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급률은 6.02%로, 지역아동센터가 5.76%, 다함께돌봄센터가 0.26%로 나타났다.
- 지역아동센터의 공급률은 서천군이 20.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금산군이 17.45%, 논산시가 12.10%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당진시와 계룡시로 각각 2.54%, 2.76%로 나타났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 중인 9개 시군 중, 보령시의 공급률이 1.38%로 가장 높은 반면, 서산시는 0.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의 수요 대비 공급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천군이 25.68%로 가장 높은 반면, 당진시가 2.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3-2〉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공급률

(단위: 명, %)

구분	지역아동센터	공급률 (A)	다함께돌봄센터	공급률 (B)	공급률 (A)+(B)
전체	7,056	5.76	313	0.26	6.02
천안시	1,769	4.20	-	-	4.20
공주시	224	5.01	20	0.45	5.46
보령시	251	5.41	64	1.38	6.79
아산시	1260	5.54	-	-	5.54
서산시	464	4.42	20	0.19	4.61
논산시	685	12.10	-	-	12.10
계룡시	87	2.76	20	0.63	3.39
당진시	269	2.54	-	-	2.54
금산군	399	17.45	20	0.87	18.32
부여군	242	10.30	-	-	10.30
서천군	376	20.99	84	4.69	25.68
청양군	87	9.10	-	-	9.10
홍성군	348	6.08	65	1.13	7.21
예산군	345	11.37	20	0.66	12.03
태안군	250	10.34	-	-	10.34

다. 여성가족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

- 여성가족부 소관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의 공급률을 전체 인원 대비 이용 인원으로 분석 결과, 전체 수요 대비 공급률은 2.55%로 나타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1.91%, 아이돌봄서비스는 0.1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0.52%로 나타났음.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 대비 공급률은 서천군이 26.86%로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다음으로 당진시가 10.77%로 높게 나타났음. 반면, 아산시의 공급률은 0.02%로 가장 낮았음.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률은 대체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가장 높은 시군은 부여군으로 1.18%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청양군이 0.54%, 당진시가 0.35% 순으로 나타난 반면, 공급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아산시로 0.02%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7개 시군 중, 청양군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시군별 전체 수요 대비 공급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서천군이 27.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당진시가 11.12%, 부여군이 5.49%로, 시군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공급률이 가장 낮은 시군은 예산군으로 0.02%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3-3〉 여성가족부 소관 기관 공급률

(단위: 명, %)

구분	공동육아 나눔터	공급률 (A)	아이돌봄서비스	공급률 (B)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급률 (C)	공급률 (A)+(B)+ (C)
전체	2,338	1.91	153	0.12	313	0.52	2.55
천안시	339	0.81	24	0.06	15	0.07	0.94
공주시	32	0.71	15	0.34	40	1.77	2.82
보령시	-	-	8	0.18	40	1.71	1.89
아산시	4	0.02	5	0.02	-	-	0.04
서산시	294	2.80	5	0.05	-	-	2.85
논산시	-	-	5	0.08	40	1.35	1.43
계룡시	-	-	5	0.15	-	-	0.15
당진시	1,140	10.77	37	0.35	-	-	11.12
금산군	6	0.24	1	0.05	-	-	0.29
부여군	25	1.06	28	1.18	40	3.25	5.49
서천군	481	26.86	3	0.16	-	-	27.02
청양군	-	-	5	0.54	20	4.21	4.75
홍성군	11	0.19	8	0.14	-	-	0.33
예산군	-	-	1	0.02	-	-	0.02
태안군	6	0.26	3	0.14	40	3.13	3.53

1) 공동육아나눔터와 아이돌봄서비스는 정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실 이용 인원으로 추산한 수치임.

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고학년(4-6학년) 대비 돌봄서비스 공급률임.

라. 충남의 방과후돌봄서비스 공급

- 충남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충남 전체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은 34.59%로 나타났음. 공급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청양군으로 126.32%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서천군이 106.65%, 예산군이 83.81%, 부여군이 71.02% 순으로 나타났음.
- 15개 시군 중, 청양군과 서천군의 공급률은 이미 10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급률이 높게 나타난 시군의 경우, 대다수가 농촌 지역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에 비해 초등학교 비율이 적어서 이용대상 기준 확대가 가능하고, 이용 정원에 따른 경쟁률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됨.

- 충남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을 초등돌봄교실이 끝나는 17시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7시 이전의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은 26.02%로 나타난 반면, 17시 이후의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은 8.57%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17시 이전의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도 미비하지만, 17시 이후의 공적 돌봄서비스의 공급률이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고 사료됨.
- 17시 이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을 살펴보면, 청양군이 112.47%로 유일하게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주시 및 예산군, 부여군, 태안군, 서천군 등의 공급률은 5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충남의 대표적인 도시 지역인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의 공급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17시 이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을 살펴보면, 서천군이 5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17시 이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과 마찬가지로 농촌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의 공급률이 낮게 나타났음. 천안시 및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계룡시, 홍성군의 공급률은 10% 미만 수준으로, 서천군만이 유일하게 50% 넘는 공급률을 나타냈음.

〈표 Ⅲ-3-4〉 시간대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

(단위: %)

구분	전체	17시 이전 공적 돌봄	17시 이후 공적 돌봄		
		공급률 (A)	공급률 (B)	공급률 (C)	공급률 (B)+(C)
전체	34.59	26.02	6.02	2.55	8.57
천안시	21.12	15.98	4.20	0.94	5.14
공주시	70.32	62.04	5.46	2.82	8.28
보령시	44.13	35.45	6.79	1.89	8.68
아산시	19.34	13.76	5.54	0.04	5.58
서산시	31.88	24.42	4.61	2.85	7.46
논산시	58.52	44.99	12.1	1.43	13.53
계룡시	23.27	19.73	3.39	0.15	3.54
당진시	36.14	22.48	2.54	11.12	13.66
금산군	57.68	39.07	18.32	0.29	18.61
부여군	71.02	55.23	10.3	5.49	15.79
서천군	106.65	53.95	25.68	27.02	52.70
청양군	126.32	112.47	9.10	4.75	13.85
홍성군	45.70	38.16	7.21	0.33	7.54
예산군	83.81	71.76	12.03	0.02	12.05
태안군	68.30	54.43	10.34	3.53	13.87

1) 공급률 (A)는 저학년(1~3학년) 대비 교육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임,

2) (B)는 보건복지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C)는 여성가족부 소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임.

4. 소결

- 충남의 초등학생의 인구와 초등돌봄 기관 및 이용 현황을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돌봄서비스의 수요 대비 공급률은 매우 미비함. 충남의 초등학생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냈으나, 2015년 이후 반등하여 2019년 122,424명으로 증가하였음. 즉, 초등돌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공급률은 저조한 실정임.
- 초등돌봄교실은 충남 전체 420개교에서 750개의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역 아동센터는 239개소, 다함께돌봄센터는 12개소, 공동육아나눔터는 36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은 15개소로 나타남. 이들 돌봄 기관 및 센터에서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율은 수요 대비 34.59%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돌봄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면, 적정 수준까지 돌봄서비스 공급률의 양적 확대가 필요함.
- 둘째, 공적 돌봄서비스의 지역적 편차임. 학교 내 돌봄인 초등돌봄교실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른 돌봄 수요의 편차로 그에 따른 대응에도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가 발생함. 도시 지역의 경우, 돌봄 수요는 많지만, 학교 내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물적 자원의 한계로 지역적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청양군의 경우 전체 초등학생 기준 56.59%로 절반 이상의 청양군 초등아동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음. 반면, 아산시 전체 초등아동의 7.21%만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적 편차가 너무 심하게 발생하고 있음. 돌봄 수요에 따른 학교 내 돌봄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 내 돌봄으로 대응해야 하지만, 지역 내 돌봄도 지역 여건에 따른 지역적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돌봄 수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 시, 돌봄서비스 공급률의 지역적 편차를 고려하여 공급률을 늘릴 필요가 있음. 충남도의 경우, 돌봄서비스 공급률의 지역적 편차가 심해서 돌봄 수요가 많지만, 돌봄 제공 기관이 미비해서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시급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셋째, 17시 이후의 돌봄서비스 공급률은 매우 낮다는 것임. 충남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을 초등돌봄교실이 끝나는 17시를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7시 이전의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은 26.02%로 나타난 반면, 17시 이후의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은 8.57%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 17시를 기준으로 돌봄서비스의 공급률 차이가 큰 것은 충남의 경우 초등돌봄교실의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임. 17시 이전의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도 미비하지만, 17시 이후의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이 매우 낮아 돌봄공백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큼. 17시 이후에도 돌봄공백 없이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시간 확대 및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기초 연구



Ⅳ. 충남 방과후 초등돌봄 실태조사

IV. 충남 방과후 초등돌봄 실태조사

1. 조사개요 및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가. 조사개요

- 본 조사는 충남의 공적 초등돌봄서비스 개선 및 실효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충남 맞춤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 방과후 초등돌봄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돌봄 수요자의 욕구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음.
- 본 조사는 초등학생의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림장 앱을 통하여 2020년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음. 조사대상은 충남도 내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로,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어플리케이션) 알림장(e알리미, 학교종이 등)을 통해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음.
- 본 조사는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돌봄에 대한 실태 및 욕구 파악을 위한 내용으로, 중복성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의 경우 돌봄이 가장 필요한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음.
- 설문내용은 초등학생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 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영역과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영역,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 영역으로 나누어 구성하였음.
-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실태 영역에서는 지난 1년간 이용했던 공적 돌봄서비스,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미이용 이유, 사교육 이용 여부 및 이용 이유, 코로나19에 따른 돌봄 공백 등을 질문 항목을 구성하였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는 공적 돌봄서비스 만족도,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등으로 구성하였음.
- 또한,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 영역은 돌봄서비스의 필요 여부 및 선호하는 서비스 제공 장소, 돌봄서비스의 필요 시간, 우선 지원이 필요한 영역,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 운영 필요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음. 본 조사의 조사영역 및 세부적인 조사내용은 다음의 <표 IV-1-1>과 같음.

-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SPSS 24.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집단 간 분포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카이제곱검정,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t-test 및 ANOVA를 실시하였음.

〈표 IV-1-1〉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대상	조사영역	세부 내용
초등학생 학부모 및 보호자	일반적 사항	- 자녀의 성별, 거주지역, 자녀 학년, 자녀 장애 유무 -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 아동과의 관계, 가구 유형, 경제활동 여부,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돌봄 실태	- 현재 및 지난 1년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미이용 이유 - 지난 1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 여부, 이용 이유 - 지난 1년간 사교육 이용 경험, 이용 이유 - 지난 1년간 방학기간 중 돌봄공백 해결 방안,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규수업 및 돌봄서비스 운영 여부
	공적 돌봄서비스 인식	-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 - 통합돌봄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주체
	공적 돌봄서비스 욕구	- 공적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선호하는 돌봄서비스 제공 장소 및 필요 시간,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 수요자 중심의 공적 돌봄서비스가 되기 위한 개선사항 - 공적 돌봄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우선지원 영역 -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 운영 필요 여부, 이용 여부, 이용 의향, 이용 의향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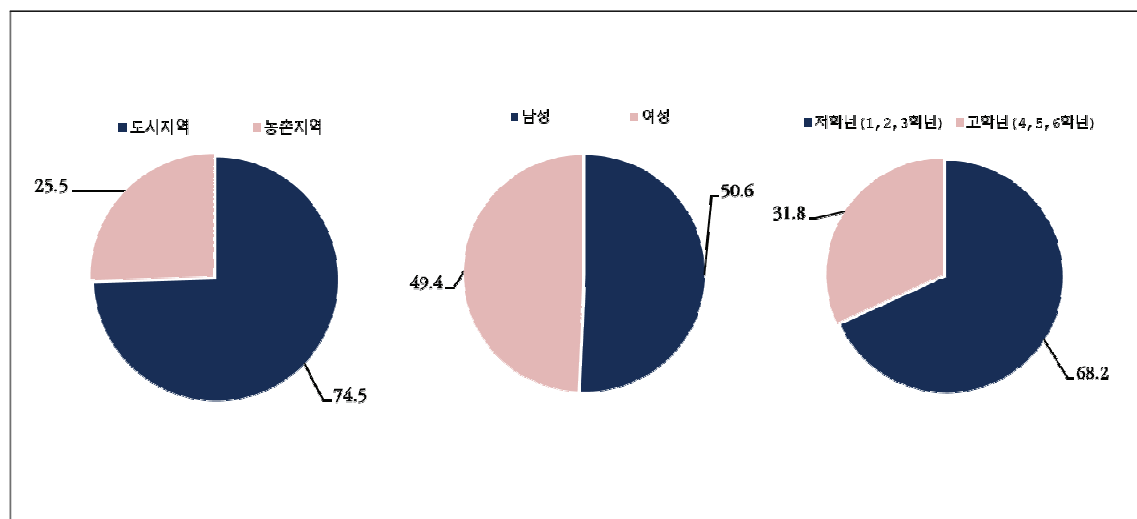
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자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자녀 인구 5,099명 가운데 남성은 2,582명(50.6%), 여성은 2,517명(49.4%)으로 자녀의 대부분은 장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저학년은 3,477명으로, 고학년 1,622명에 비해 약 2배 많고, 도시 지역은 3,801명으로 농촌 지역 1,298명에 비해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자녀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자녀 성별	남성	2,582	50.6
	여성	2,517	49.4
자녀 학년	저학년	3,477	68.2
	고학년	1,622	31.8
거주지	도시	3,801	74.5
	농촌	1,298	25.5
장애 유무	없음	5,043	98.9
	있음	56	1.1
전체		5,099	100



〈그림 IV-1〉 자녀의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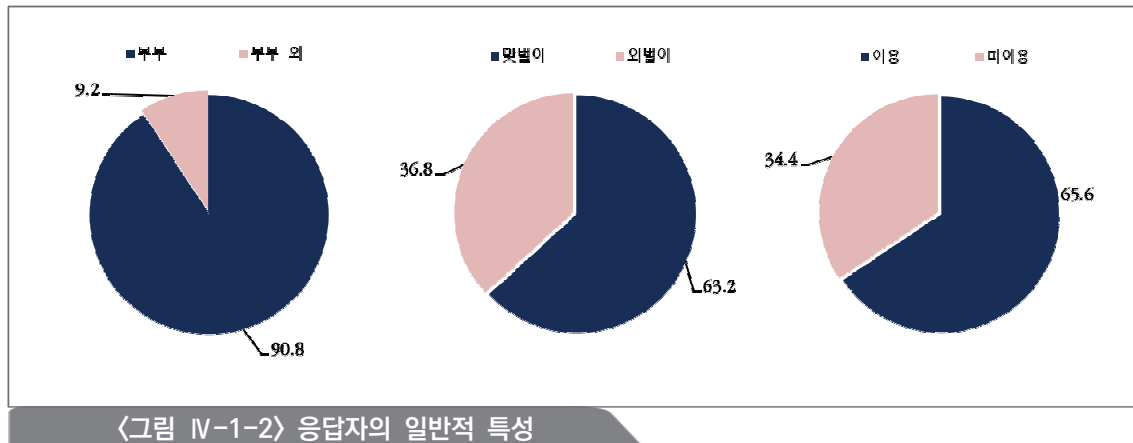
-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40대가 전체 응답자의 5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대가 38.3%, 50대가 3.8%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대와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 미만으로 나타났음. 가구 유형별로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85.7%로 주를 이루고, 한부모+자녀 가구(6.9%), 외조모+부부+자녀(4.9%), 외조부모+한부모+자녀(1.9%), 나머지 1% 미만의 수준에서 외조부모+손자녀 및 기타 가구 유형이 조사됨.

- 경제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5.1%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전체의 90.1%로 나타났다. 응답자 자녀의 초등학교 재학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1명인 경우가 68.1%로 가장 많았으며, 2명인 경우는 29.0%, 3명 이상의 경우는 2.9%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65.6%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1-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2,582	50.6
	여성	2,517	49.4
연령대	20대	32	0.6
	30대	1,954	38.3
	40대	2,898	56.8
	50대	196	3.8
	60대 이상	19	0.4
가구 유형	부부 + 자녀	4,368	85.7
	한부모 + 자녀	353	6.9
	외조부모 + 한부모 + 자녀	99	1.9
	외조부모 + 손자녀	8	0.2
	외조모 + 부부 + 자녀	250	4.9
	기타	21	0.4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음	1,779	34.9
	하고 있지 않음	3,320	65.1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하고 있지 않음	167	3.3
	하고 있음	4,593	90.1
	해당 없음	339	6.6
초등학교 재학자녀 수	1명	3,472	68.1
	2명	1,481	29.0
	3명 이상	146	2.9
공적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이용하고 있지 않음	3,345	65.6
	이용하고 있음	1,754	34.4
전체		5,099	100



2. 돌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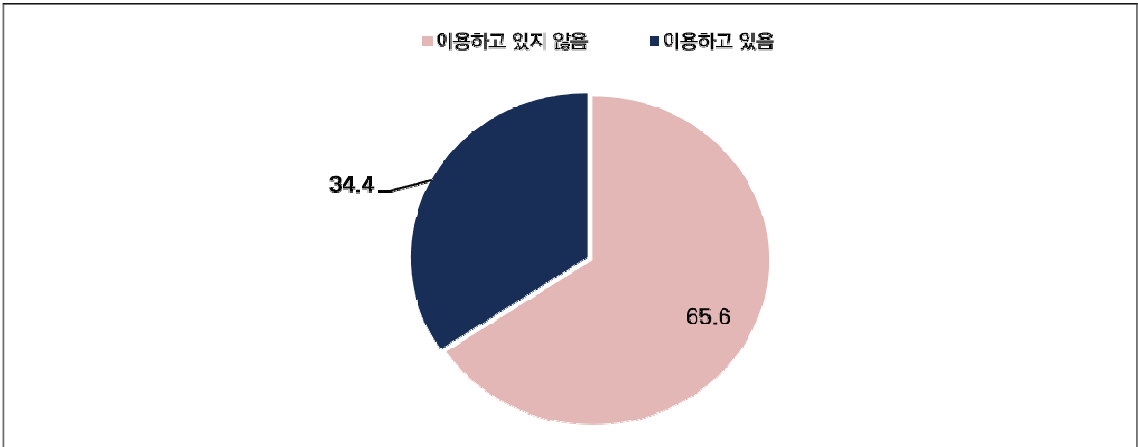
가. 공적 돌봄서비스 욕구

- 2020년 기준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5,099명 중 34.4%(1,754명)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에 있어 자녀 학년, 거주지, 맞벌이 여부, 가구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에 있어 자녀 성별과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에 따른 비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의 학년 간 차이를 살펴보면, 고학년의 83.7%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학년의 비율(42.8%)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학년의 비율(16.3%)보다 높게 나타났음.
- 거주지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를 살펴보면, 도시 지역의 다수(73.0%)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았음. 농촌 지역의 56.0%는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도시 지역(27.0%)보다 이용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맞벌이와 외벌이의 경우, 외벌이의 83.2%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으며, 이용률은 맞벌이(44.7%)가 외벌이(16.8%)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 유형별로는 부부 가구의 32.7%와 부부 외 가구의 51.0%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함.

〈표 IV-2-1〉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2020년 현재)

(단위: 명, %)

구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계	χ ² (p)
		이용하고 있지 않음	이용하고 있음		
전체		3,345(65.6)	1,754(34.4)	5,099(100)	
자녀 성별	남성	1,693(65.6)	889(34.4)	2,582(100)	0.002 (.961)
	여성	1,652(65.6)	865(34.4)	2,517(100)	
자녀 학년	저학년	1,988(57.2)	1,489(42.8)	3,477(100)	343.844 (.000***)
	고학년	1,357(83.7)	265(16.3)	1,622(100)	
거주지	도시	2,774(73.0)	1,027(27.0)	3,801(100)	360.354 (.000***)
	농촌	571(44.0)	727(56.0)	1,298(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783(55.3)	1,439(44.7)	3,222(100)	408.528 (.000***)
	외벌이	1,562(83.2)	315(16.8)	1,877(1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2,292(66.0)	1,180(34.0)	3,472(100)	4.492 (.106)
	2명	969(65.4)	512(34.6)	1,481(100)	
	3명 이상	84(57.5)	62(42.5)	146(100)	
가구 유형	부부	3,114(67.3)	1,514(32.7)	4,628(100)	63.037 (.000***)
	부부 외	231(49.0)	240(51.0)	471(100)	



〈그림 IV-2-1〉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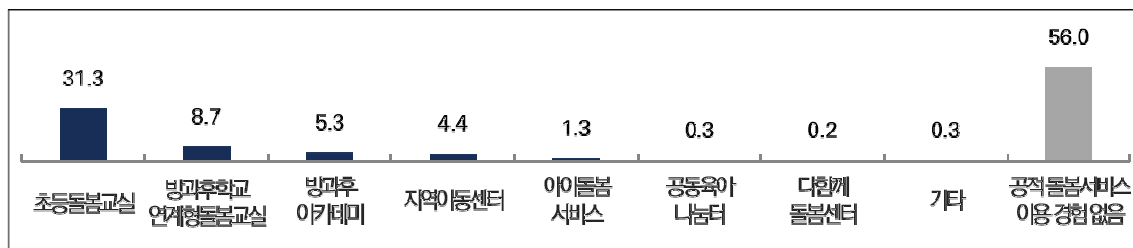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는 복수 응답자 3,553명 중 44.0%인 1,563명이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음. 서비스 유형별 공적 돌봄서비스의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31.3%)의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8.7%), 방과후 아카데미(5.3%), 지역아동센터(4.4%), 아이돌봄서비스(1.3%) 순으로 나타남.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는 0.5% 미만의 저조한 이용률을 보여주었음.
- 지난 1년간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을 분석한 결과, 자녀 학년, 거주지, 맞벌이 여부,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가구 유형에 따라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녀 학년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고학년은 70%가, 저학년은 44.3%가 공적 돌봄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없었고, 초등돌봄교실 이용에 있어서 저학년의 이용률(44.4%)이 고학년의 이용률(1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거주지별로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도시 거주자의 비율(64.2%)이 농촌 거주자(32.5%)보다 약 2배 높았음. 돌봄서비스 유형별로는 농촌 지역의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은 47.0%로, 도시 지역(25.9%)보다 높았고,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이용도 농촌 지역(17.3%)이 도시 지역(5.7%)보다 높았음.
- 맞벌이와 외벌이 유형 간에도 공적 돌봄서비스 경험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맞벌이의 53.8%와 외벌이의 26.8%만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초등돌봄교실 이용에 있어 맞벌이(40.4%)가 외벌이(15.4%)보다 2배 이상 높은 이용률을 보였음.
-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에 따른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57.5%)은 자녀가 2명인 가정(44.3%)과 자녀가 1명인 가정(43.2%)보다 공적 돌봄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였고, 3명 이상인 가정은 초등돌봄교실(45.1%)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11.5%)과 같은 학교 내 공적 돌봄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음.
- 가구 유형에 따른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부부 외 가구 유형(62.1%)이 부부 가구 유형(42.1%)보다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돌봄서비스 종류 중 부부 외 가구 유형은 초등돌봄교실(40.6%),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14.7%), 지역아동센터(13.8%) 순으로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부부 가구 유형은 각각 30.3%, 8.1%, 3.5% 순으로, 가구 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음.

〈표 IV-2-2〉 지난 1년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복수 응답)

(단위: 명, %)

구분	초등돌봄 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 보육서비스	공동육아 나눔터	기타	이용 경험 없음	계	$\chi^2(p)$
전체	1,113(31.3)	310(8.7)	158(4.4)	8(0.2)	188(5.3)	47(1.3)	12(0.3)	12(0.3)	1,990(56.0)	3,553(100)	
자녀 성별											
남성	589(32.1)	149(8.1)	71(3.9)	3(0.2)	95(5.2)	26(1.4)	7(0.4)	7(0.4)	1,030(56.1)	1,836(100)	7.228 (.613)
여성	524(30.5)	161(9.4)	87(5.1)	5(0.3)	93(5.4)	21(1.2)	5(0.3)	5(0.3)	960(55.9)	1,717(100)	
자녀 학년											
저학년	858(44.4)	193(10.0)	82(4.2)	6(0.3)	91(4.7)	31(1.6)	11(0.6)	10(0.5)	855(44.3)	1,931(100)	600.660 (.000***)
고학년	255(15.7)	117(7.2)	76(4.7)	2(0.1)	97(6.0)	16(1.0)	1(0.1)	2(0.1)	1,135(70.0)	1,622(100)	
거주지											
도시	681(25.9)	151(5.7)	72(2.7)	3(0.1)	133(5.0)	26(1.0)	10(0.4)	7(0.3)	1,691(64.2)	2,634(100)	621.488 (.000***)
농촌	432(47.0)	159(17.3)	86(9.4)	5(0.5)	55(6.0)	21(2.3)	2(0.2)	5(0.5)	299(32.5)	919(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915(40.4)	219(9.7)	131(5.8)	6(0.3)	120(5.3)	39(1.7)	10(0.4)	9(0.4)	1,047(46.2)	2,265(100)	525.742 (.000***)
외벌이	198(15.4)	91(7.1)	27(2.1)	2(0.2)	68(5.3)	8(0.6)	2(0.2)	3(0.2)	943(73.2)	1,288(1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723(31.0)	201(8.6)	84(3.6)	6(0.3)	128(5.5)	31(1.3)	11(0.5)	10(0.4)	1,325(56.8)	2,333(100)	41.456 (.001**)
2명	339(30.6)	96(8.7)	68(6.1)	2(0.2)	57(5.1)	16(1.4)	1(0.1)	2(0.2)	617(55.7)	1,107(100)	
3명 이상	51(45.1)	13(11.5)	6(5.3)	-	3(2.7)	-	-	-	48(42.5)	113(100)	
가구 유형											
부부	975(30.3)	260(8.1)	111(3.5)	6(0.2)	172(5.4)	34(1.1)	11(0.3)	10(0.3)	1,861(57.9)	3,213(100)	180.688 (.000***)
부부 외	138(40.6)	50(14.7)	47(13.8)	2(0.6)	16(4.7)	13(3.8)	1(0.3)	2(0.6)	129(37.9)	340(100)	

1) 응답기준이 2019년으로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IV-2-2〉 지난 1년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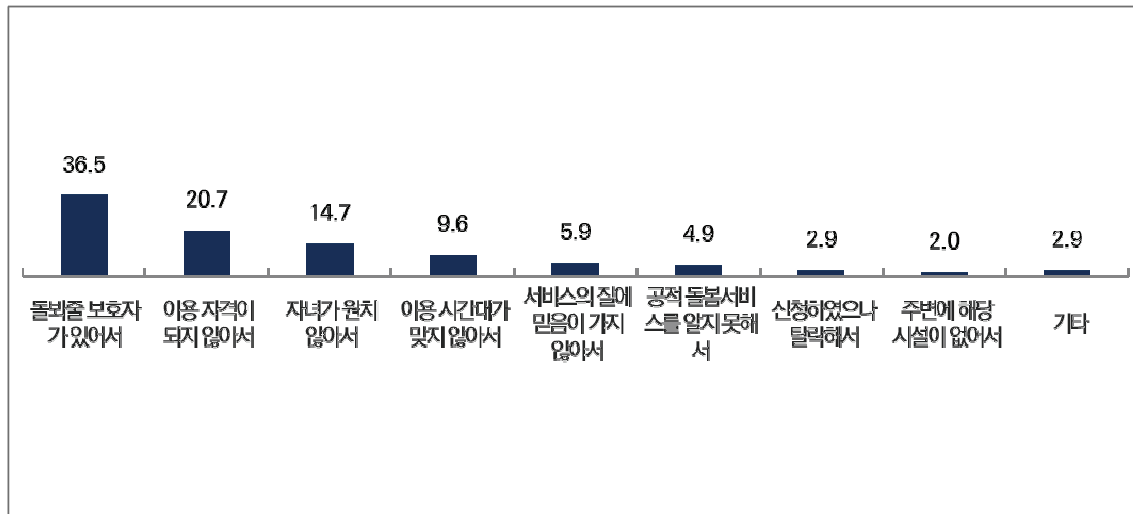
-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돌봐줄 보호자가 있어서(36.5%)'였고, 다음으로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20.7%)', '자녀가 원치 않아서(14.7%)', '이용시간대가 맞지 않아서(9.6%)', '서비스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5.9%)', '공적 서비스를 알지 못해서(4.9%)' 순으로 나타났음.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먼저 자녀 학년의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돌봐줄 보호자가 있어서(38.6%)',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21.2%)', '서비스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6.4%)'로, 이들 항목의 비율은 고학년보다 저학년에 높게 나타났음. 반면, 고학년의 경우 '자녀가 원치 않아서(16.7%)'와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10.4%)'의 비율이 저학년(12.0%, 8.5%)에 비해 높게 나타나, 저학년과 고학년 간의 차이를 보여줌.
-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도시 지역은 '돌봐줄 보호자가 있어서'의 응답이 3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의 응답이 22.0%로 나타났음. 반면, 농촌 지역은 '돌봐줄 보호자가 있어서'의 응답이 35.1%로 도시 지역과 동일하게 나타났지만, 다음으로 '자녀가 원치 않아서'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또한, '이용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공적 돌봄서비스를 알지 못해서', '주변에 해당 시설이 없어서'의 비율 또한 각각 11.4%, 6.0%, 3.7%로, 도시보다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대중교통 및 차량의 이동 거리, 서비스 시설 분포, 상대적인 정보의 박탈 등과 같은 농촌의 지리적 특성과 자원의 빈약들이 농촌 지역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됨.
- 맞벌이 여부를 살펴보면, 외벌이의 경우 '이용자격이 되지 않아서(23.8%)'와 '돌봐줄 사람이 있어서(49.6%)'의 항목에서만 맞벌이(18.0%, 24.6%)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이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항목에서 맞벌이 유형은 외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가구 유형별로 비교해보면, '공적 돌봄서비스를 알지 못해서'의 항목에서 부부 외 가구(12.4%)의 비율은 부부 가구(4.4%)의 약 3배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가 원치 않거나(23.3%)', '이용시간대가 맞지 않아서(10.9%)', '주변에 해당 시설이 없는 경우(4.7%)', '신청했으나 탈락해서(3.1%)'의 항목에서도 부부 외 가구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한부모 및 조손 가정인 부부 외 가구의 경우 지역 내 서비스 기관의 종류 및 이용시간대, 신청 자격 등의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과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표 IV-2-3〉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돌봄종 보호자가 있어서	신청하였으나 탈락해서	자녀가 원치 않아서	주변에 해당 시설이 없어서	공적돌봄 서비스를 일지 못해서	기타	계	χ ² (p)
전체	191(9.6)	117(5.9)	412(20.7)	726(36.5)	58(2.9)	292(14.7)	40(2.0)	97(4.9)	57(2.9)	1,990(100)	
자녀 성별											
남성	105(10.2)	62(6.0)	213(20.7)	367(35.6)	23(2.2)	160(15.5)	15(1.5)	52(5.0)	33(3.2)	1,030(100)	10.017 (.264)
여성	86(9.0)	55(5.7)	199(20.7)	359(37.4)	35(3.6)	132(13.8)	25(2.6)	45(4.7)	24(2.5)	960(100)	
자녀 학년											
저학년	73(8.5)	55(6.4)	181(21.2)	330(38.6)	40(4.7)	103(12.0)	20(2.3)	37(4.3)	16(1.9)	855(100)	34.466 (.000***)
고학년	118(10.4)	62(5.5)	231(20.4)	396(34.9)	18(1.6)	189(16.7)	20(1.8)	60(5.3)	41(3.6)	1,135(100)	
거주지											
도시	157(9.3)	99(5.9)	372(22.0)	621(36.7)	55(3.3)	230(13.6)	29(1.7)	79(4.7)	49(2.9)	1,691(100)	29.555 (.000***)
농촌	34(11.4)	18(6.0)	40(13.4)	105(35.1)	3(1.0)	62(20.7)	11(3.7)	18(6.0)	8(2.7)	299(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43(13.7)	92(8.8)	188(18.0)	258(24.6)	39(3.7)	196(18.7)	26(2.5)	67(6.4)	38(3.6)	1,047(100)	209.836 (.000***)
외벌이	48(5.1)	25(2.7)	224(23.8)	468(49.6)	19(2.0)	96(10.2)	14(1.5)	30(3.2)	19(2.0)	943(1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118(8.9)	74(5.6)	269(20.3)	491(37.1)	38(2.9)	197(14.9)	28(2.1)	65(4.9)	45(3.4)	1,325(100)	15.007 (.524)
2명	70(11.3)	42(6.8)	130(21.1)	217(35.2)	20(3.2)	85(13.8)	11(1.8)	30(4.9)	12(1.9)	617(100)	
3명 이상	3(6.3)	1(2.1)	13(27.1)	18(37.5)	0(0.0)	10(20.8)	1(2.1)	2(4.2)	0(0.0)	48(100)	
가구 유형											
부부	177(9.5)	110(5.9)	401(21.5)	690(37.1)	54(2.9)	262(14.1)	34(1.8)	81(4.4)	52(2.8)	1,861(100)	41.195 (.000***)
부부 외	14(10.9)	7(5.4)	11(8.5)	36(27.9)	4(3.1)	30(23.3)	6(4.7)	16(12.4)	5(3.9)	129(100)	

1) 응답기준이 2019년으로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IV-2-3〉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이유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1,563명을 대상으로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이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서비스를 이용한 주된 이유는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서’가 44.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돌봄 보호자가 없어서(29.0%)’,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16.0%)’, ‘자녀가 원해서(6.0%)’, ‘비용이 저렴해서(3.1%)’ 순으로 나타났음. 그 밖의 ‘질이 높아서’와 ‘기타’의 이유는 1%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이유는 자녀 학년, 거주지, 맞벌이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자녀 성별,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가구 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 먼저 자녀 학년과 공적 돌봄서비스 선택 이유를 살펴보면, 저학년의 경우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서(46.8%)’와 ‘돌봄 보호자가 없어서(32.7%)’가 서비스 이용의 주된 이유로서 고학년(40.0%, 20.7%)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음. 반면, 고학년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24.0%)’, ‘자녀가 원해서(8.2%)’, ‘비용이 저렴해서(5.3%)’, ‘질이 높아서(0.8%)’의 이유가 저학년 응답 비율 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특징은 공적 돌봄서비스 선택에 있어 저학년의 경우 안전 및 돌봄이라는 양육적 측면이 중요하게 반영되고, 고학년은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인 자녀의 욕구가 반영된다고 볼 수 있음.
- 거주지별 차이에서는 ‘돌봄 사람이 없어서’와 ‘비용이 저렴해서’의 이유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농촌의 응답 비율이 도시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항목에 대한 농촌의 응답 비율은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서(47.9%)’,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20.6%)’, ‘자녀가 원해서(8.1%)’, ‘질이 높아서(0.6%)’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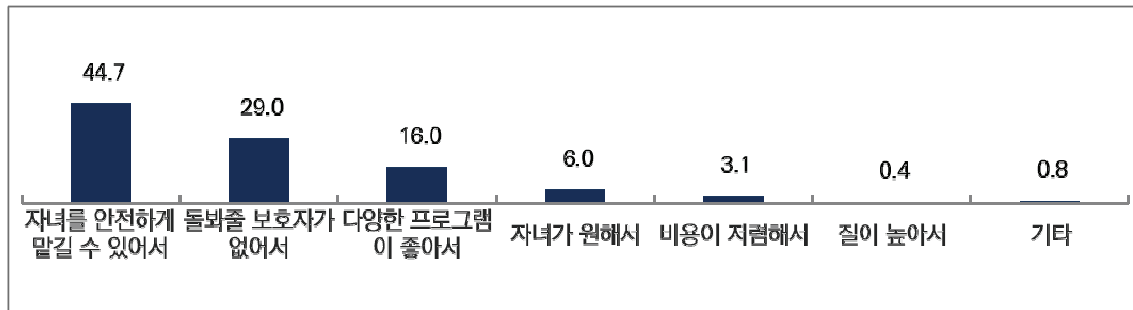
- 맞벌이 여부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의 이유를 살펴본 결과, 맞벌이의 경우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서(47.0%)’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32.2%)’는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의 주된 이유로써 외벌이(36.8%, 17.7%)보다 높게 나타남. 반면, 외벌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25.5%)’, ‘자녀가 원해서(11.6%)’, ‘비용이 저렴해서(6.4%)’의 항목에 있어서 맞벌이 가구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이는 공적 돌봄서비스 선택에 있어 맞벌이의 경우 자녀의 ‘안전 및 보호’라는 돌봄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 돌봄의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한 외벌이의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의 이용에 돌봄 자체의 목적 이외에 돌봄서비스의 질적 측면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표 IV-2-4〉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서	질이 높아서	자녀가 원해서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비용이 저렴해서	기타	계	$\chi^2(p)$
전체	699 (44.7)	7 (0.4)	93 (6.0)	453 (29.0)	250 (16.0)	49 (3.1)	12 (0.8)	1,563 (100)	
자녀 성별									
남성	360 (44.7)	4 (0.5)	37 (4.6)	250 (31.0)	124 (15.4)	27 (3.3)	4 (0.5)	806 (100)	9.865
여성	339 (44.8)	3 (0.4)	56 (7.4)	203 (26.8)	126 (16.6)	22 (2.9)	8 (1.1)	757 (100)	(.130)
자녀 학년									
저학년	504 (46.8)	3 (0.3)	53 (4.9)	352 (32.7)	133 (12.4)	23 (2.1)	8 (0.7)	1,076 (100)	67.849
고학년	195 (40.0)	4 (0.8)	40 (8.2)	101 (20.7)	117 (24.0)	26 (5.3)	4 (0.8)	487 (100)	(.000***)
거주지									
도시	402 (42.6)	3 (0.3)	43 (4.6)	331 (35.1)	122 (12.9)	38 (4.0)	4 (0.4)	943 (100)	65.261
농촌	297 (47.9)	4 (0.6)	50 (8.1)	122 (19.7)	128 (20.6)	11 (1.8)	8 (1.3)	620 (100)	(.0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72 (47.0)	5 (0.4)	53 (4.4)	392 (32.2)	162 (13.3)	27 (2.2)	7 (0.6)	1,218 (100)	92.144
외벌이	127 (36.8)	2 (0.6)	40 (11.6)	61 (17.7)	88 (25.5)	22 (6.4)	5 (1.4)	345 (100)	(.0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448 (44.4)	4 (0.4)	61 (6.1)	307 (30.5)	154 (15.3)	27 (2.7)	7 (0.7)	1,008 (100)	8.441
2명	221 (45.1)	3 (0.6)	27 (5.5)	132 (26.9)	85 (17.3)	18 (3.7)	4 (0.8)	490 (100)	(.750)
3명 이상	30 (46.2)	-	5 (7.7)	14 (21.5)	11 (16.9)	4 (6.2)	1 (1.5)	65 (100)	
가구 유형									
부부	608 (45.0)	5 (0.4)	81 (6.0)	380 (28.1)	224 (16.6)	45 (3.3)	9 (0.7)	1,352 (100)	8.793
부부 외	91 (43.1)	2 (0.9)	12 (5.7)	73 (34.6)	26 (12.3)	4 (1.9)	3 (1.4)	211 (100)	(.186)

1) 응답기준이 2019년으로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IV-2-4〉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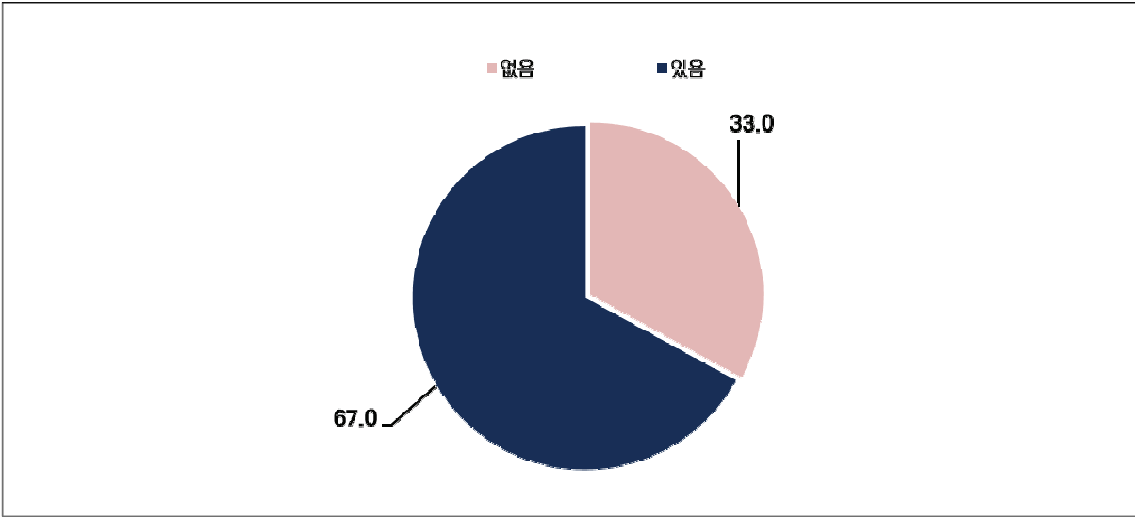
- 지난 1년간 응답자 3,553명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 경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67.0%(2,381명)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경험했으며, 자녀 성별, 자녀 학년, 거주지, 맞벌이 여부에 따라 프로그램 이용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학년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 경험 유무의 차이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이용한 저학년의 비율(73.8%)은 고학년의 비율(58.9%)보다 높게 나타났고, 거주지별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농촌 지역의 비율은 77.9%로 도시 지역(63.2%)보다 높았음. 또한 맞벌이(68.4%)의 이용률은 외벌이(64.5%)의 이용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에 따른 프로그램 이용률에 있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77.9%), 자녀가 2명인 가정(67.5%), 그리고 자녀가 1명인 가정(66.3%) 사이에 이용률의 차이가 나타남.

〈표 IV-2-5〉 지난 1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경험		계	$\chi^2(p)$
	없음	있음		
전체	1,172(33.0)	2,381(67.0)	3,553(100)	
자녀 성별	남성	634(34.5)	1,202(65.5)	4.105 (.043*)
	여성	538(31.3)	1,179(68.7)	
자녀 학년	저학년	505(26.2)	1,426(73.8)	89.366 (.000***)
	고학년	667(41.1)	955(58.9)	
거주지	도시	969(36.8)	1,665(63.2)	66.590 (.000**)
	농촌	203(22.1)	716(77.9)	
맞벌이 여부	맞벌이	715(31.6)	1,550(68.4)	5.690 (.017*)
	외벌이	457(35.5)	831(64.5)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787(33.7)	1,546(66.3)	6.729 (.035*)
	2명	360(32.5)	747(67.5)	
	3명 이상	25(22.1)	88(77.9)	
가구 유형	부부	1,059(33.0)	2,154(67.0)	0.011 (.918)
	부부 외	113(33.2)	227(66.8)	

1) 응답기준이 2019년으로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IV-2-5〉 지난 1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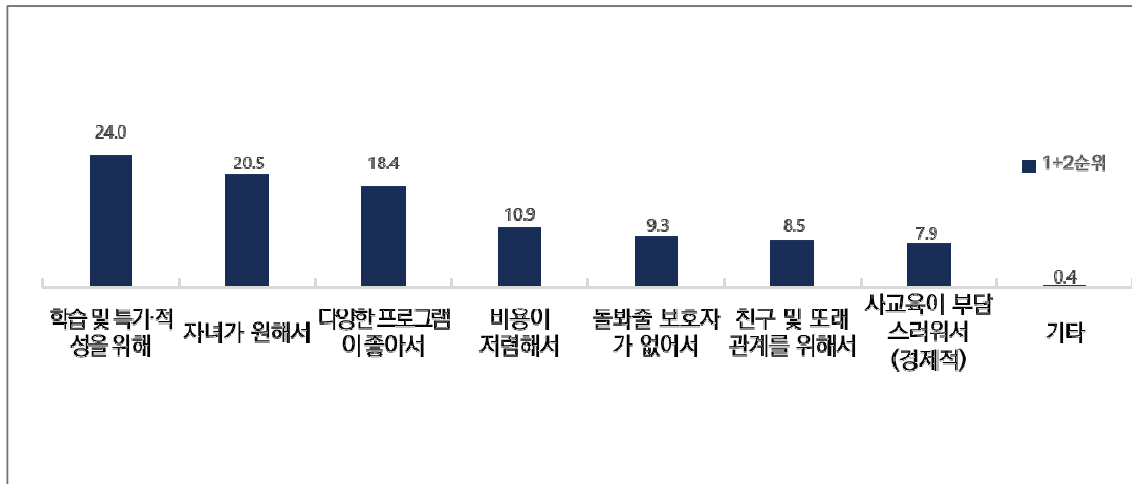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한 이유에 대한 응답 결과를 먼저 1순위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2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녀가 원해서(24.8%)’,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16.9%)’,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11.6%)’의 순으로 나타났음. 2순위 응답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의 응답이 19.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서(18.7%)’, ‘자녀가 원해서(16.3%)’, ‘비용이 저렴해서(16.0%)’, ‘친구 및 또래 관계를 위해서(11.1%)’의 순으로 나타났음.
-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서’가 24.0%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였으며, 다음으로 ‘자녀가 원해서’는 20.5%,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는 18.4% 순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선택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 및 진로, 특기, 적성과 같이 학생들의 잠재된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의 질적인 측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의미함.

〈표 IV-2-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2순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이유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	697(29.3)	446(18.7)	1,143(24.0)
	친구 및 또래관계를 위해서	140(5.9)	265(11.1)	405(8.5)
	자녀가 원해서	590(24.8)	388(16.3)	978(20.5)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	276(11.6)	169(7.1)	445(9.3)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403(16.9)	473(19.9)	876(18.4)
	비용이 저렴해서	138(5.8)	381(16.0)	519(10.9)
	사교육이 부담스러워서(경제적)	132(5.5)	244(10.2)	376(7.9)
	기타	5(0.2)	15(0.6)	20(0.4)
	전체	2,381(100)	2,381(100)	4,762(100)

1) 응답기준이 2019년으로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IV-2-6〉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유

- 응답자 5,332명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사교육 이용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만이 사교육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사교육 이용을 세분화하면, 취미 및 특기·적성의 예체능 사교육 이용이 3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습학원(31.0%), 학습지/방문 학습지(23.2%), 개인 및 그룹 과외(6.3%) 순으로 이용하였음.
- 자녀 학년, 거주지, 맞벌이 여부,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가구 유형에 따라 사교육 이용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자녀 학년에 따른 사교육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예체능 학원을 이용하는 비율에 있어 저학년(36.2%)의 비율이 고학년(27.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 학습지 이용 비율에서도 저학년(24.9%)이 고학년(21.2%)보다 높았음. 반면, 학습학원과 개인 및 그룹 과외에서의 고학년 비율은 각각 36.3%, 7.1%로 저학년(26.6%, 5.7%)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 사교육 이용 경험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학습지/방문 학습지의 경우를 제외한 학습학원(33.3%), 개인 및 그룹 과외(6.7%), 예체능 학원(32.6%) 등 모든 사교육 경험에서 도시 지역이 농촌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음. 이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촌 지역의 사교육 자원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추측됨.
- 맞벌이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교육을 경험하지 않는 비율은 외벌이(8.0%)가 맞벌이(6.2%)보다 높았으며, 한 명의 양육자가 가정에 상주 가능한 외벌이의 경우 사교육 유형에서 개인 및 그룹 과외(7.4%)와 학습지/방문학습지(23.9%) 이용 경험이 맞벌이(5.7%, 22.8%)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에 따라 사교육 이용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12.3%)은 자녀가 2명인 가정(6.6%)과 자녀가 1명인 가정(6.8%)에 비해 지난 1년간 사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학습지/방문학습지 경험 비율은 28.6%로 자녀가 1명인 가정(22.1%)과 자녀가 2명인 가정(25.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학습학원, 개인 및 그룹 과외, 예체능 학원 경험에서는 두 유형의 가정보다 낮은 비율을 보여줌. 학교 성적과 직결되지 않는 예체능 학원 경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녀가 1명인 가정(33.5%)이 자녀가 2명인 가정(30.6%)과 3명 이상의 가정(27.9%)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줌으로써, 자녀 수에 따른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남.
- 가구 유형별로 사교육 경험을 비교해보면, 지난 1년간 사교육을 경험하지 않은 부부 외 가구는 16.4%, 부부 가구는 6.0%로 나타났으며, 사교육 경험의 모든 항목에서 부부 가구 유형은 부부 외 가구 유형보다 더 높은 사교육 이용 비율을 보여줌.

〈표 IV-2-7〉 지난 1년간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사교육 이용 경험(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학습학원	개인 및 그룹과외	취미 및 특기 적성, 예체능 학원	학습지 /방문 학습지	기타	사교육 경험 없음	계	$\chi^2(p)$
전체		1,652 (31.0)	338 (6.3)	1,728 (32.4)	1,239 (23.2)	8 (0.2)	367 (6.9)	5,332 (100)	
자녀 성별	남성	852 (31.2)	171 (6.3)	858 (31.4)	637 (23.3)	6 (0.2)	206 (7.5)	2,730 (100)	10.749 (.096)
	여성	800 (30.7)	167 (6.4)	870 (33.4)	602 (23.1)	2 (0.1)	161 (6.2)	2,602 (100)	
자녀 학년	저학년	776 (26.6)	166 (5.7)	1,056 (36.2)	728 (24.9)	5 (0.2)	187 (6.4)	2,918 (100)	150.845 (.000***)
	고학년	876 (36.3)	172 (7.1)	672 (27.8)	511 (21.2)	3 (0.1)	180 (7.5)	2,414 (100)	
거주지	도시	1,376 (33.3)	275 (6.7)	1,346 (32.6)	918 (22.2)	6 (0.1)	206 (5.0)	4,127 (100)	239.210 (.000***)
	농촌	276 (22.9)	63 (5.2)	382 (31.7)	321 (26.6)	2 (0.2)	161 (13.4)	1,205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090 (32.3)	193 (5.7)	1,102 (32.7)	770 (22.8)	6 (0.2)	210 (6.2)	3,371 (100)	23.899 (.001**)
	외벌이	562 (28.7)	145 (7.4)	626 (31.9)	469 (23.9)	2 (0.1)	157 (8.0)	1,961 (1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1,086 (30.8)	240 (6.8)	1,181 (33.5)	781 (22.1)	3 (0.1)	239 (6.8)	3,530 (100)	39.062 (.000***)
	2명	526 (31.9)	90 (5.5)	504 (30.6)	414 (25.1)	5 (0.3)	109 (6.6)	1,648 (100)	
	3명 이상	40 (26.0)	8 (5.2)	43 (27.9)	44 (28.6)	-	19 (12.3)	154 (100)	
가구 유형	부부	1,538 (31.4)	322 (6.6)	1,603 (32.8)	1,129 (23.1)	7 (0.1)	295 (6.0)	4,894 (100)	105.601 (.000***)
	부부 외	114 (26.0)	16 (3.7)	125 (28.5)	110 (25.1)	1 (0.2)	72 (16.4)	438 (100)	

1) 응답기준이 2019년으로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함.

■ 사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3,186명을 대상으로 사교육 이용의 이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학습 및 적성·특기를 위해서'가 59.2%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원해서(16.0%)',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11.7%)', '질이 높아서(7.0%)', '프로그램이 다양해서(2.8%)',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2.3%)'의 순으로 나타났음.

■ 사교육 이용 이유는 자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자녀가 원해서 사교육을 선택하는 비율은 여성 집단(17.8%)이 남성 집단(14.2%)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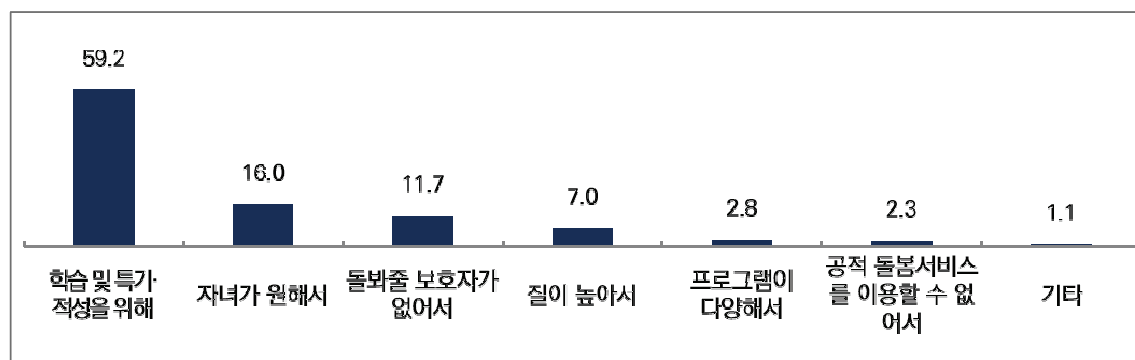
- 자녀 학년에 따른 사교육 선택 이유의 유의한 차이를 살펴보면,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 사교육을 선택한 비율이 저학년(15.3%)은 고학년(7.3%)보다 약 2배 높았으며, 자녀가 원해서 사교육을 선택하는 경우 또한 저학년(17.4%)이 고학년(14.3%)에 비해 높게 나타남. 반면, 학습 및 적성·특기를 위해서 사교육을 선택한 고학년의 비율은 63.7%로 저학년(55.5%)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 사교육 선택을 살펴본 결과,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농촌 지역은 '학습 및 적성·특기를 위해서(60.6%)', '자녀가 원해서(18.3%)', '프로그램이 다양해서(3.3%)'의 항목에서 도시 지역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도시 지역은 '질이 높아서(7.8%)',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2.6%)'의 항목에서 농촌 지역보다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줌.
- 사교육 선택에 있어 맞벌이 및 외벌이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의 이유로 사교육을 선택한 맞벌이 가정의 비율(16.1%)은 외벌이 가정(3.6%)보다 약 5배 정도 높게 나타남.
- 가구 유형별로 사교육 이용 이유를 비교해보면, 부부 외 가구 유형은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17.5%)'와 '자녀가 원해서(17.5%)'의 이유에서 사교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부부 가구 유형보다 높았으며, 부부 가구 유형은 '학습 및 적성·특기를 위해서(59.8)', '질이 높아서(7.1%)',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2.4%)'의 항목에서 부부 외 가구 유형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표 IV-2-8〉 사교육을 이용한 이유

(단위: 명, %)

구분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	자녀가 원해서	돌봄돌봄 보호자가 없어서	공적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질이 높아서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기타	계	$\chi^2(p)$
전체	1,886 (59.2)	509 (16.0)	372 (11.7)	74 (2.3)	223 (7.0)	88 (2.8)	34 (1.1)	3,186 (100)	
자녀 성별	남성 974 (59.8)	232 (14.2)	192 (11.8)	35 (2.1)	124 (7.6)	51 (3.1)	22 (1.3)	1,630 (100)	12.879 (.045*)
	여성 912 (58.6)	277 (17.8)	180 (11.6)	39 (2.5)	99 (6.4)	37 (2.4)	12 (0.8)	1,556 (100)	
자녀 학년	저학년 968 (55.5)	303 (17.4)	267 (15.3)	39 (2.2)	104 (6.0)	43 (2.5)	20 (1.1)	1,744 (100)	64.643 (.000***)
	고학년 918 (63.7)	206 (14.3)	105 (7.3)	35 (2.4)	119 (8.3)	45 (3.1)	14 (1.0)	1,442 (100)	
거주지	도시 1,427 (58.8)	370 (15.2)	287 (11.8)	64 (2.6)	189 (7.8)	63 (2.6)	28 (1.2)	2,428 (100)	18.999 (.004**)
	농촌 459 (60.6)	139 (18.3)	85 (11.2)	10 (1.3)	34 (4.5)	25 (3.3)	6 (0.8)	758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80 (57.4)	293 (14.3)	331 (16.1)	43 (2.1)	133 (6.5)	53 (2.6)	22 (1.1)	2,055 (100)	115.445 (.000***)
	외벌이 706 (62.4)	216 (19.1)	41 (3.6)	31 (2.7)	90 (8.0)	35 (3.1)	12 (1.1)	1,131 (1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1,232 (58.8)	335 (16.0)	264 (12.6)	39 (1.9)	149 (7.1)	56 (2.7)	19 (0.9)	2,094 (100)	16.599 (.165)
	2명 599 (60.0)	157 (15.7)	100 (10.0)	30 (3.0)	67 (6.7)	30 (3.0)	15 (1.5)	998 (100)	
	3명 이상 55 (58.5)	17 (18.1)	8 (8.5)	5 (5.3)	7 (7.4)	2 (2.1)	0 (0.0)	94 (100)	
가구 유형	부부 1,745 (59.8)	462 (15.8)	325 (11.1)	71 (2.4)	206 (7.1)	80 (2.7)	29 (1.0)	2,918 (100)	15.004 (.020*)
	부부 외 141 (52.6)	47 (17.5)	47 (17.5)	3 (1.1)	17 (6.3)	8 (3.0)	5 (1.9)	268 (100)	

1) 응답기준이 2019년으로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함.



〈그림 IV-2-7〉 사교육을 이용한 이유

- 지난 1년간 방학기간 중 돌봄공백 해결 방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3,553명 중 45.9%인 1,631명이 양육자에 의해 직접 보살핌을 받았고, 21.3%인 757명은 자녀 혼자(형제자매끼리) 지냈으며, 474명(13.3%)은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보살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 밖의 10% 미만의 수준에서 사교육을 이용한 경우(8.7%, 308명),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한 경우(6.5%, 232명), 공적 돌봄서비스와 사교육을 병행한 경우(3.7%, 132명)의 순으로 나타남. ‘공적 돌봄서비스만 이용’과 ‘공적 돌봄서비스와 사교육과 병행’의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합한 경우에도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전체의 10% 수준이고, 보호자 없이 자녀끼리 머무는 나홀로 아동의 경우는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남.
- 방학기간 중 돌봄공백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 자녀 학년, 거주지, 맞벌이 여부,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가구 유형에 따라 해결 방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자녀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40% 이상이 직접 돌봄에 의해 돌봄공백 문제가 해결되고 있었으며, 고학년의 경우 자녀 혼자(형제끼리) 지내거나 사교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각각 26.4%, 10.3%로, 저학년(17.0%, 7.3%)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반면, 저학년의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한 돌봄(16.5%),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8.4%), 공적 돌봄서비스와 사교육을 병행(5.5%)의 비율이 고학년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도시 지역의 직접 돌봄 비율은 47.8%로 농촌 지역(40.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교육 이용에서도 도시 지역(9.4%)이 농촌 지역(6.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적 돌봄서비스와 사교육 병행이용에서 또한 도시 지역(5.0%)과 농촌 지역(3.3%) 간의 차이가 나타남. 한편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농촌 지역(12.2%)의 비율이 도시 지역(4.6%)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
- 돌봄공백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맞벌이와 외벌이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나머지 양육자에 의한 자녀 돌봄이 가능한 외벌이 가정의 직접 돌봄 비율은 82.5%로, 맞벌이 가정(25.1%)과의 분명한 차이를 보임. ‘조부모나 친인척에 의해 보살핌’,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한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와 사교육을 병행한 경우’, ‘사교육 기관 이용’, ‘자녀 혼자 지냄’의 모든 항목에서 맞벌이 비율은 외벌이보다 5~12배 정도까지 높게 나타났음.
-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에 따른 공백돌봄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자녀 수가 많은 경우 자녀 혼자(자녀끼리) 지내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3명 이상인 가정의 자녀 혼자(끼리) 지내는 비율은 25.7%, 2명인 경우는 24.0%, 1명인 경우는 19.8%로 조사되었음. 한편 일반적으로 자녀 수가 적을수록 돌봄이 용이한 ‘조부모 및 친인척 보살핌’

과 경제적 지원이 여유로운 '사교육 이용'에서는 자녀 수가 적은 집단의 비율이 자녀 수가 많은 집단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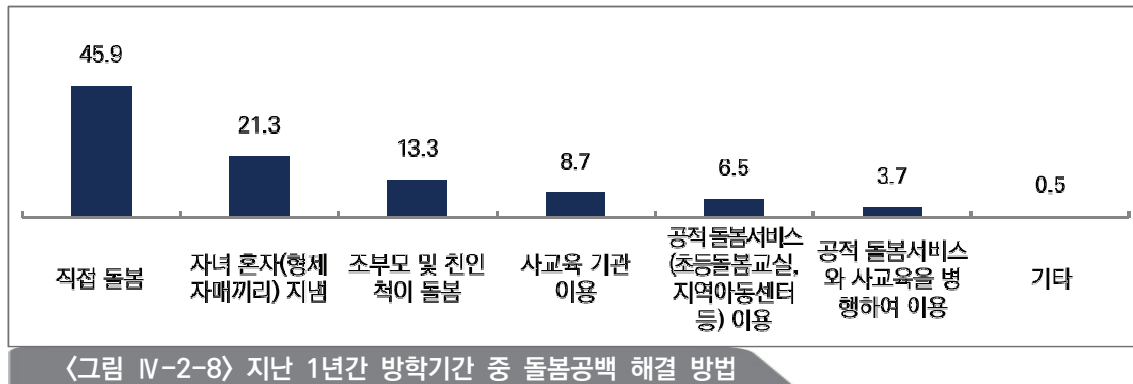
- 가구 유형에서는 부부 외 집단의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과 공적 돌봄서비스와 사교육 병행 항목의 비율이 각각 14.1%, 5.3%로 부부 가구 유형(5.7%, 3.5%)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부 가구의 직접 돌봄서비스의 비율은 48.3%로 부부 외 가구 유형(23.5%)으로 2배 이상 높았고, 한부모나 조부모로 구성된 부부 외 가구 유형의 경우, 조부모 및 친인척의 보살핌 비율이 27.4%로 부부 가구(11.9%)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IV-2-9〉 지난 1년간 방학기간 중 돌봄공백 해결 방법

(단위: 명, %)

구분		직접 돌봄	조부모 및 친인척이 돌봄	공적돌봄 서비스 이용	공적돌봄 서비스와 사교육 병행	사교육 기관 이용	자녀 혼자(형제 자매끼리) 자녀	기타	계	$\chi^2(p)$
전체		1,631 (45.9)	474 (13.3)	232 (6.5)	132 (3.7)	308 (8.7)	757 (21.3)	19 (0.5)	3,553 (100)	
자녀 성별	남성	820 (44.7)	236 (12.9)	122 (6.6)	71 (3.9)	167 (9.1)	406 (22.1)	14 (0.8)	1,836 (100)	7.914 (.245)
	여성	811 (47.2)	238 (13.9)	110 (6.4)	61 (3.6)	141 (8.2)	351 (20.4)	5 (0.3)	1,717 (100)	
자녀 학년	저학년	864 (44.7)	318 (16.5)	163 (8.4)	107 (5.5)	141 (7.3)	329 (17.0)	9 (0.5)	1,931 (100)	139.538 (.000***)
	고학년	767 (47.3)	156 (9.6)	69 (4.3)	25 (1.5)	167 (10.3)	428 (26.4)	10 (0.6)	1,622 (100)	
거주지	도시	1,260 (47.8)	346 (13.1)	120 (4.6)	86 (3.3)	248 (9.4)	560 (21.3)	14 (0.5)	2,634 (100)	81.472 (.000***)
	농촌	371 (40.4)	128 (13.9)	112 (12.2)	46 (5.0)	60 (6.5)	197 (21.4)	5 (0.5)	919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569 (25.1)	439 (19.4)	197 (8.7)	117 (5.2)	260 (11.5)	668 (29.5)	15 (0.7)	2,265 (100)	1094.548 (.000***)
	외벌이	1,062 (82.5)	35 (2.7)	35 (2.7)	15 (1.2)	48 (3.7)	89 (6.9)	4 (0.3)	1,288 (1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1,082 (46.4)	324 (13.9)	147 (6.3)	102 (4.4)	209 (9.0)	462 (19.8)	7 (0.3)	2,333 (100)	34.418 (.001**)
	2명	491 (44.4)	138 (12.5)	80 (7.2)	25 (2.3)	95 (8.6)	266 (24.0)	12 (1.1)	1,107 (100)	
	3명 이상	58 (51.3)	12 (10.6)	5 (4.4)	5 (4.4)	4 (3.5)	29 (25.7)	0 (0.0)	113 (100)	
가구 유형	부부	1,551 (48.3)	381 (11.9)	184 (5.7)	114 (3.5)	286 (8.9)	680 (21.2)	17 (0.5)	3,213 (100)	134.448 (.000***)
	부부 외	80 (23.5)	93 (27.4)	48 (14.1)	18 (5.3)	22 (6.5)	77 (22.6)	2 (0.6)	340 (100)	

1) 응답기준이 2019년으로 해당하지 않는 초등학교 1학년 데이터는 분석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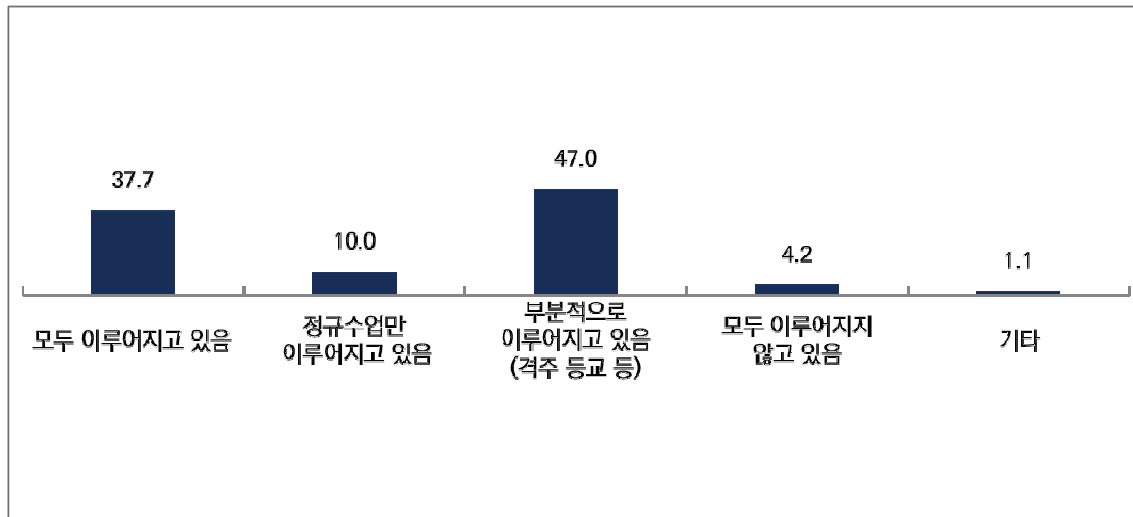
-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의 정규수업 및 돌봄서비스 운영 여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0%인 2,397명이 학교 정규수업 및 돌봄서비스를 부분적으로 받는 것으로 조사됨. 37.7%(1,921명)는 모두 받고 있으며, 10.0%(512명)는 정규수업만 받으며,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4.2%인 213명으로 조사됨.
- 자녀 학년, 거주지, 맞벌이 여부,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가구 유형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의 정규수업 및 돌봄서비스 운영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별 코로나 확산 정도가 조사 시점 및 응답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며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우선 자녀 학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고학년은 '부분적 운영(50.1%)'과 '정규수업만 운영(12.0%)'에 응답한 비율이 저학년보다 높게 나타남.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항목에서는 저학년(41.0%)은 고학년(30.6%)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두 운영'의 경우 농촌 지역(69.6%)이 도시 지역(26.8%)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고, '정규수업만 운영' 항목 또한 농촌 지역(12.5%)이 도시 지역(9.2%)보다 높았음. '부분적 운영'에 있어서는 도시 지역(58.0%)이 농촌 지역(14.8%)보다 높게 나타남.
-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두 운영'의 맞벌이(42.1%) 비율은 외벌이(30.0%)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정규수업만 운영'에서 외벌이와 맞벌이의 비율은 각각 11.6%, 9.1%로, '부분적 운영'에서 외벌이와 맞벌이는 각각 53.1%, 43.5%로 나타나, 두 항목 모두에서 외벌이가 더 높은 비율을 보임.
- 다음은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 수가 많은 집단의 경우 '정규수업만 운영'과 '모두 운영' 두 가지 항목에서 재학 자녀 수가 적은 집단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부분적 운영'의 항목에서는 자녀 수가 적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 가구 유형별로는 부부 가구의 '부분적 운영'에 응답한 비율은 48.3%로 부부 외 가구 (34.2%)보다 높음. 부부 외 가구는 '모두 운영'과 '정규수업만 운영'에 각각 49.5%, 12.3%로 응답하여 부부 가구의 응답 비율(36.5%, 9.8%)과 차이를 보임.

〈표 IV-2-10〉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의 정규수업 및 돌봄서비스 운영 여부

(단위: 명, %)

구분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	정규수업만 이루어지고 있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격주 등교 등)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기타	계	$\chi^2(p)$
전체		1,921 (37.7)	512 (10.0)	2,397 (47.0)	213 (4.2)	56 (1.1)	5,099 (100)	
자녀 성별	남성	974 (37.7)	253 (9.8)	1,207 (46.7)	118 (4.6)	30 (1.2)	2,582 (100)	2.511 (.643)
	여성	947 (37.6)	259 (10.3)	1,190 (47.3)	95 (3.8)	26 (1.0)	2,517 (100)	
자녀 학년	저학년	1,425 (41.0)	318 (9.1)	1,584 (45.6)	120 (3.5)	30 (0.9)	3,477 (100)	64.723 (.000***)
	고학년	496 (30.6)	194 (12.0)	813 (50.1)	93 (5.7)	26 (1.6)	1,622 (100)	
거주지	도시	1,018 (26.8)	350 (9.2)	2,205 (58.0)	181 (4.8)	47 (1.2)	3,801 (100)	879.766 (.000***)
	농촌	903 (69.6)	162 (12.5)	192 (14.8)	32 (2.5)	9 (0.7)	1,298 (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58 (42.1)	294 (9.1)	1,400 (43.5)	144 (4.5)	26 (0.8)	3,222 (100)	85.938 (.000***)
	외벌이	563 (30.0)	218 (11.6)	997 (53.1)	69 (3.7)	30 (1.6)	1,877 (1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1,284 (37.0)	337 (9.7)	1,669 (48.1)	136 (3.9)	46 (1.3)	3,472 (100)	19.442 (.013*)
	2명	568 (38.4)	156 (10.5)	678 (45.8)	70 (4.7)	9 (0.6)	1,481 (100)	
	3명 이상	69 (47.3)	19 (13.0)	50 (34.2)	7 (4.8)	1 (0.7)	146 (100)	
가구 유형	부부	1,688 (36.5)	454 (9.8)	2,236 (48.3)	200 (4.3)	50 (1.1)	4,628 (100)	42.636 (.000***)
	부부 외	233 (49.5)	58 (12.3)	161 (34.2)	13 (2.8)	6 (1.3)	471 (100)	



〈그림 IV-2-9〉 코로나19에 따른 학교의 정규수업 및 돌봄서비스 운영 여부

-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의 해결 방법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직접 돌보는 경우(1,626명, 51.2%)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녀 혼자 지냄(808명, 25.4%),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361명, 11.4%), 사교육 기관 이용(346명, 10.9%) 순으로 조사 됨.
- 자녀 학년, 거주지, 맞벌이 여부,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가구 유형에 따라 코로나에 따른 돌봄공백 해결 방법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성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자녀 학년을 살펴보면, 직접 돌봄, 조부모 및 친인척의 돌봄, 사교육 기관 이용에 있어 저학년의 응답 비율은 고학년의 응답 비율보다 높았음. 자녀 혼자 지내는 비율은 고학년(34.4%)이 저학년(20.5%)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지별로는 도시의 직접 돌봄의 비율은 52.0%로 농촌 지역(45.3%)보다 높은 반면, 자녀 혼자 지내는 비율은 농촌 지역(31.1%)이 도시 지역(24.6%)보다 높은 상반된 결과를 보여줌.
-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직접 돌봄이 용이한 외벌이(88.5%)의 직접돌봄의 비율은 맞벌이(24.8%)보다 높게 나타남. 맞벌이는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18.3%), 사교육 기관 이용(15.5%), 자녀 혼자 지냄(39.5%)에 있어서 외벌이 집단(1.5%, 4.4%, 5.4%)과 큰 차이를 보였음.
-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 비율은 6.5%, 2명인 가정은 9.7%, 1명인 가정은 12.2%로 자녀 많은 가정과 적은 가정 간의 응답률 차이를 보임. 반면, 자녀가 혼자(형제끼리) 지내는 3명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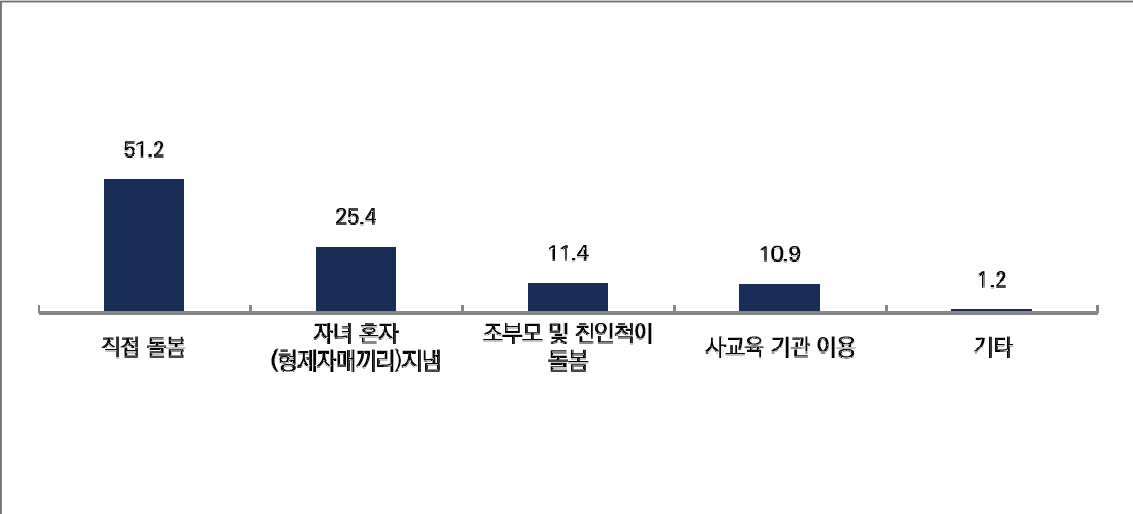
상인 가정의 비율은 36.4%, 2명인 가정은 33.0%, 1명인 가정은 21.9%로, 자녀 수가 많은 가정의 자녀 혼자(자녀끼리) 지내는 비율이 다른 두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가구 유형별로는 직접 돌봄은 부부 가구 유형이,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은 부부 외 가구 유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자녀 혼자 지내는 경우는 부부 외 가구 유형이 36.6%로 부부 가구(24.5%)보다 높았음.

〈표 IV-2-11〉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의 해결 방법

(단위: 명, %)

구분		직접 돌봄	조부모 및 친인척이 돌봄	사교육 기관 이용	자녀 혼자 (형제자매 끼리) 지냄	기타	계	$\chi^2(p)$
전체		1,626(51.2)	361(11.4)	346(10.9)	808(25.4)	37(1.2)	3,178(100)	
자녀 성별	남성	814(50.6)	179(11.1)	176(10.9)	417(25.9)	22(1.4)	1,608(100)	1,838 (.765)
	여성	812(51.7)	182(11.6)	170(10.8)	391(24.9)	15(1.0)	1,570(100)	
자녀 학년	저학년	1,075(52.4)	287(14.0)	237(11.5)	421(20.5)	32(1.6)	2,052(100)	101,860 (.000***)
	고학년	551(48.9)	74(6.6)	109(9.7)	387(34.4)	5(0.4)	1,126(100)	
거주지	도시	1,447(52.0)	314(11.3)	304(10.9)	685(24.6)	33(1.2)	2,783(100)	9,040 (.060)
	농촌	179(45.3)	47(11.9)	42(10.6)	123(31.1)	4(1.0)	395(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463(24.8)	341(18.3)	288(15.5)	737(39.5)	35(1.9)	1,864(100)	1260.635 (.000***)
	외벌이	1,163(88.5)	20(1.5)	58(4.4)	71(5.4)	2(0.2)	1,314(1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1,150(52.6)	267(12.2)	263(12.0)	479(21.9)	29(1.3)	2,188(100)	52,883 (.000***)
	2명	439(48.1)	89(9.7)	76(8.3)	301(33.0)	8(0.9)	913(100)	
	3명 이상	37(48.1)	5(6.5)	7(9.1)	28(36.4)	-	77(100)	
가구 유형	부부	1,562(53.1)	307(10.4)	317(10.8)	721(24.5)	33(1.1)	2,940(100)	72,220 (.000***)
	부부 외	64(26.9)	54(22.7)	29(12.2)	87(36.6)	4(1.7)	238(100)	



〈그림 IV-2-10〉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의 해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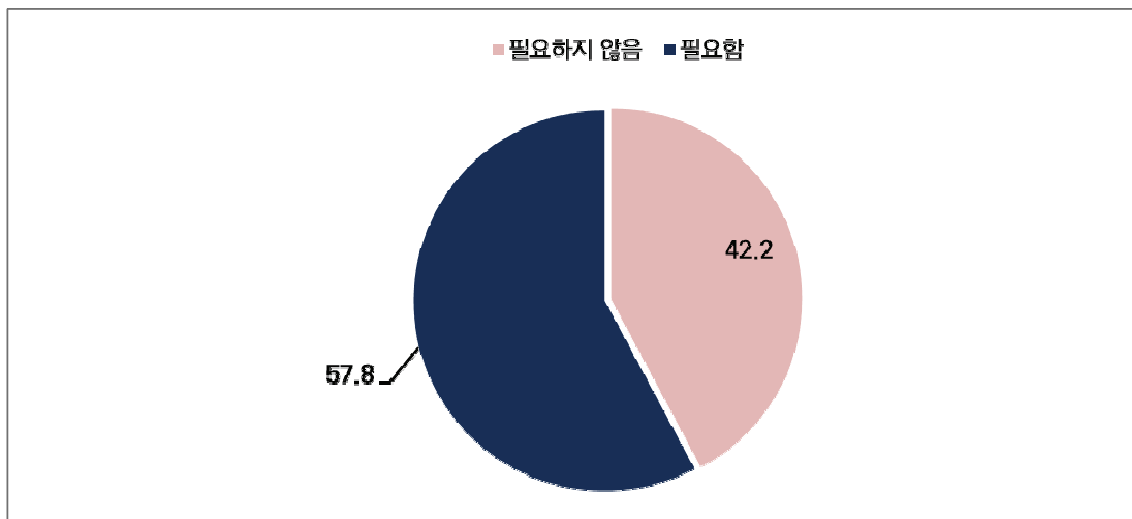
3.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욕구

- 정규수업 전후의 공적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남. 세부적으로 57.8%(2,949명)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42.2%(2,150명)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함.
- 응답 결과는 자녀 학년, 거주지, 맞벌이 여부, 가구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었음. 정규수업 후의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저학년(66.9%)이 고학년(38.5%)보다, 농촌(69.7%)이 도시(53.8%)보다, 맞벌이(69.7%)가 외벌이(37.4%)보다, 부부 외 가구 유형(74.7%)이 부부 가구 유형(56.1%)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비교집단 간의 차이를 보여줌. 자녀 성별과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음.

〈표 IV-3-1〉 정규수업 전후의 공적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단위: 명, %)

구분		공적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계	$\chi^2(p)$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전체		2150(42.2)	2949(57.8)	5099(100)	
자녀 성별	남성	1068(41.4)	1514(51.3)	2582(100)	1.379 (.240)
	여성	1082(43.0)	1435(57.0)	2517(100)	
자녀 학년	저학년	1152(33.1)	2325(66.9)	3477(100)	365.739 (.000***)
	고학년	998(61.5)	624(38.5)	1622(100)	
거주지	도시	1757(46.2)	2044(53.8)	3801(100)	100.907 (.000***)
	농촌	393(30.3)	905(69.7)	1298(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975(30.3)	2247(69.7)	3222(100)	508.651 (.000***)
	외벌이	1175(62.6)	702(37.4)	1877(1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1488(42.9)	1984(57.1)	3472(100)	2.142 (.343)
	2명	603(40.7)	878(59.3)	1481(100)	
	3명 이상	59(40.4)	87(59.6)	146(100)	
가구 유형	부부	2031(43.9)	2597(56.1)	4628(100)	60.776 (.000***)
	부부 외	119(25.3)	352(74.7)	471(100)	



〈그림 IV-3-1〉 공적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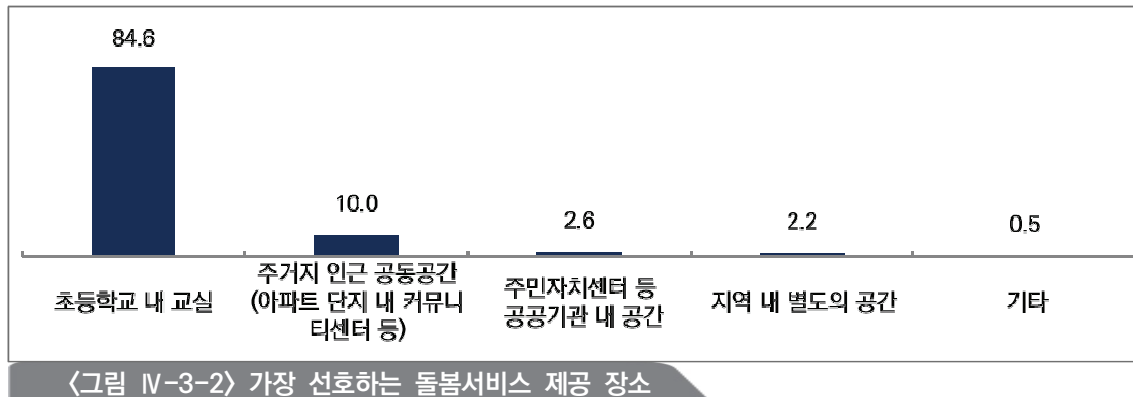
- 응답자 2,949명을 대상으로 가장 선호하는 돌봄서비스 장소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이 84.6%로, 선호도가 매우 높았으며, 그 밖에 10% 이하의 수준에서 ‘주거지 인근 공동공간(10.0%)’,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내 공간(2.6%)’, ‘지역 내 별도의 공간(2.2%)’ 순으로 선호하였음.

- 돌봄서비스 선호 장소는 자녀 학년, 거주지, 그리고 가구 유형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자녀 성별, 맞벌이 여부,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 저학년의 초등학교 내 교실 선호도는 87.5%로, 고학년(74.0%)보다 높았으며, 고학년은 주거지 인근 공간(14.7%),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내 기관(5.3%), 지역 내 별도의 공간(5.0%)과 같이 학교 밖의 공간에 대한 선호가 저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거주지별로 도시(85.0%)의 초등학교 내 교실에 대한 선호도는 농촌 지역(83.8%)보다 높았고, 주거지 인근 공간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도시 지역(11.2%)이 농촌 지역(7.5%)보다 높았음. 가구 유형별로는 부부 가구와 부부 외 가구의 초등학교 내 돌봄교실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84.9%, 83.0%로 나타났으며, 지역 내 별도의 공간에서는 부부 외 가구(3.1%)의 비율이 부부 가구(2.0%)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IV-3-2〉 가장 선호하는 돌봄서비스 제공 장소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내 교실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내 공간	주거지 인근 공동공간	지역 내 별도의 공간	기타	계	$\chi^2(p)$
전체		2,496(84.6)	78(2.6)	296(10.0)	64(2.2)	15(0.5)	2,949(100)	
자녀 성별	남성	1,277(84.3)	48(3.2)	152(10.0)	30(2.0)	7(0.5)	1,514(100)	3.921 (.417)
	여성	1,219(84.9)	30(2.1)	144(10.0)	34(2.4)	8(0.6)	1,435(100)	
자녀 학년	저학년	2,034(87.5)	45(1.9)	204(8.8)	33(1.4)	9(0.4)	2,325(100)	80.621 (.000***)
	고학년	462(74.0)	33(5.3)	92(14.7)	31(5.0)	6(1.0)	624(100)	
거주지	도시	1,738(85.0)	45(2.2)	228(11.2)	25(1.2)	8(0.4)	2,044(100)	42.686 (.000***)
	농촌	758(83.8)	33(3.6)	68(7.5)	39(4.3)	7(0.8)	905(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906(84.8)	56(2.5)	223(9.9)	51(2.3)	11(0.5)	2,247(100)	1.489 (.829)
	외벌이	590(84.0)	22(3.1)	73(10.4)	13(1.9)	4(0.6)	702(1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1,693(85.3)	54(2.7)	191(9.6)	37(1.9)	9(0.5)	1,984(100)	8.267 (.408)
	2명	725(82.6)	23(2.6)	98(11.2)	26(3.0)	6(0.7)	878(100)	
	3명 이상	78(89.7)	1(1.1)	7(8.0)	1(1.1)	0(0.0)	87(100)	
가구 유형	부부	2,204(84.9)	71(2.7)	261(10.1)	53(2.0)	8(0.3)	2,597(100)	19.680 (.001**)
	부부 외	292(83.0)	7(2.0)	35(9.9)	11(3.1)	7(2.0)	35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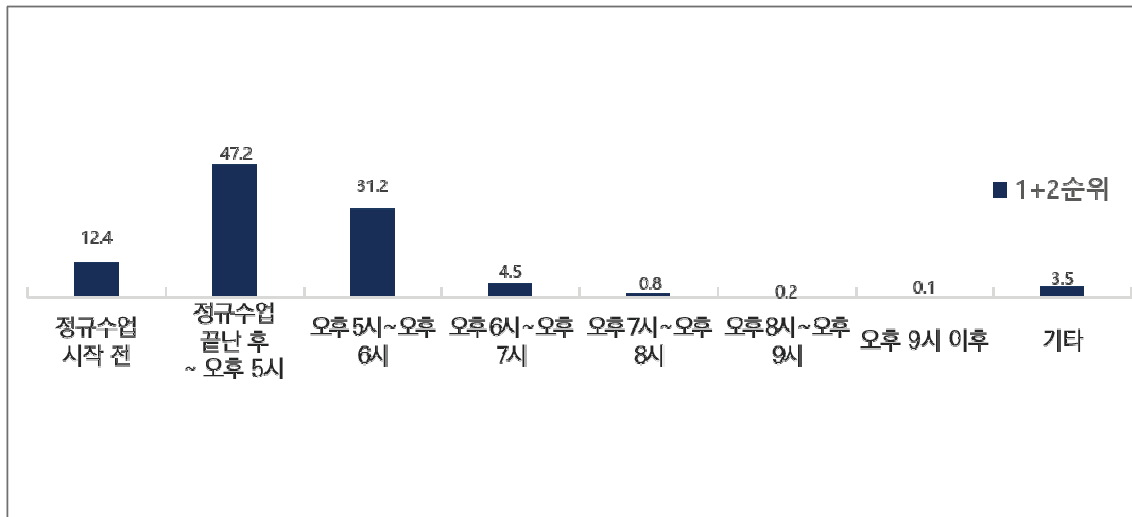


- 학교 정규수업 전후 공적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에 대한 조사결과를 1순위 응답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규수업 끝난 후~오후 5시'의 응답률이 88.0%로 가장 많았고, '오후 5시~오후 6시(4.8%)', '정규수업 시작 전(4.6%)' 순으로 나타났음. 2순위 응답에서는 '오후 5시~오후 6시(57.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정규수업 시작 전(20.1%)', '오후 6시~오후 7시(7.7%)', '정규수업 끝난 후~오후 5시(6.4%)'의 순으로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1순위와 2순위의 응답자를 합한 2,785명(47.2%)은 '정규수업 끝난 후~오후 5시'의 시간대에 돌봄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후 5시~오후 6시'의 시간대에 1,843명(31.2%)이, '정규수업 시작 전'에는 729명(12.4%)이 응답하였음. 따라서 응답자의 대다수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 시간대는 출근 전까지의 공백 시간대와 퇴근시간대인 것으로 나타남.

〈표 IV-3-3〉 학교 정규수업 전후 공적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 + 2순위
돌봄서비스 욕구 시간대	정규수업 시작 전	135(4.6)	594(20.1)	729(12.4)
	정규수업 끝난 후 ~ 오후 5시	2,595(88.0)	190(6.4)	2,785(47.2)
	오후 5시 ~ 오후 6시	141(4.8)	1,702(57.7)	1,843(31.2)
	오후 6시 ~ 오후 7시	37(1.3)	228(7.7)	265(4.5)
	오후 7시 ~ 오후 8시	11(0.4)	38(1.3)	49(0.8)
	오후 8시 ~ 오후 9시	3(0.1)	9(0.3)	12(0.2)
	오후 9시 이후	-	7(0.2)	7(0.1)
	기타	27(0.9)	181(6.1)	208(3.5)
	전체	2,949(100)	2,949(100)	5898(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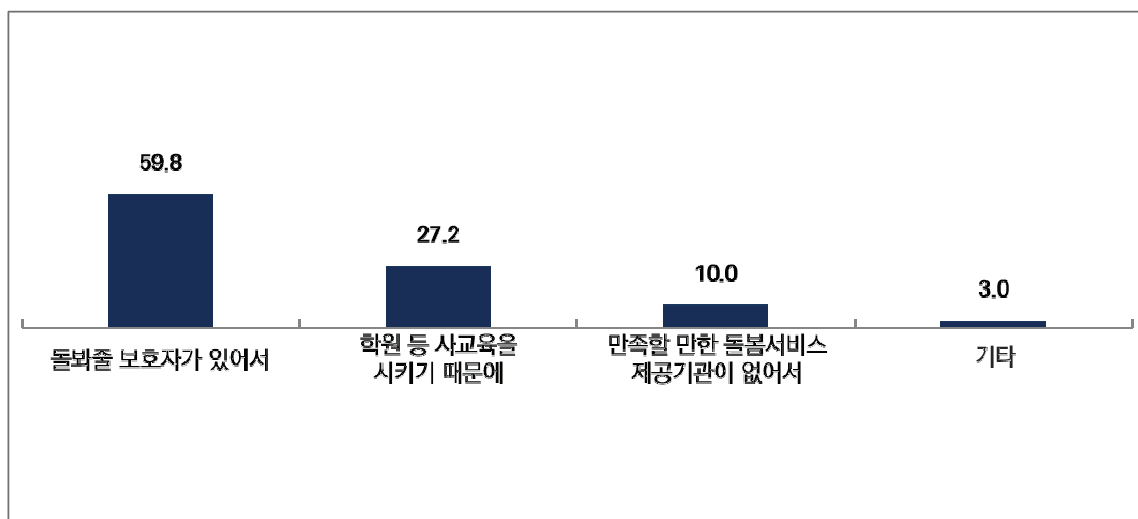
〈그림 IV-3-3〉 공적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

-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2,15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9.8%(1,286명)는 ‘돌봐줄 보호자가 있어서’로 응답하였으며, 27.2%(585명)는 ‘학원 등 사교육의 이유’에 의해서, 10.0%(214명)는 ‘만족할 만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다’는 이유로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응답 결과는 자녀 성별과 거주지 유형을 제외한 자녀 학년, 맞벌이 여부, 가구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여주었음.
- 자녀 학년과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돌봐줄 보호자가 있어서’의 응답률은 저학년이 67.0%로, 고학년(51.5%)보다 높았으며, 사교육의 이유로 불필요한 경우는 고학년이 33.4%로, 저학년(21.9%)보다 높게 나타남.
- 맞벌이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돌봐줄 보호자가 있어서’의 외벌이(79.1%) 응답률은 맞벌이(36.5%) 응답률의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사교육의 이유로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맞벌이(43.2%)가 외벌이(14.0%)의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여줌. ‘만족할 만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다’는 이유에서도 맞벌이(14.7%)가 외벌이(6.0%)보다 높게 나타남.
-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에 따른 응답률을 비교하면, 자녀가 1명인 가정(29.4%)은 자녀 2명인 가정(22.1%)과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25.4%)보다 사교육에 의한 불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가구 유형별로 비교하면, 돌봐줄 보호자가 있어서 서비스가 불필요한 경우는 부부 가구(60.3%)가 부부 외 가구(52.1%)의 비율보다 높았음.

〈표 IV-3-4〉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돌봄종 보호자가 있어서	학원 등 사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서	기타	계	$\chi^2(p)$
전체		1,286(59.8)	585(27.2)	214(10.0)	65(3.0)	2,150(100)	
자녀 성별	남성	638(59.7)	284(26.6)	112(10.5)	34(3.2)	1,068(100)	1.086 (.780)
	여성	648(59.9)	301(27.8)	102(9.4)	31(2.9)	1,082(100)	
자녀 학년	저학년	772(67.0)	252(21.9)	108(9.4)	20(1.7)	1,152(100)	61.897 (.000***)
	고학년	514(51.5)	333(33.4)	106(10.6)	45(4.5)	998(100)	
거주지	도시	1,057(60.2)	484(27.5)	169(9.6)	47(2.7)	1,757(100)	5.533 (.137)
	농촌	229(58.3)	101(25.7)	45(11.5)	18(4.6)	393(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6(36.5)	421(43.2)	143(14.7)	55(5.6)	975(100)	409.423 (.000***)
	외벌이	930(79.1)	164(14.0)	71(6.0)	10(0.9)	1,175(1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867(58.3)	437(29.4)	140(9.4)	44(3.0)	1,488(100)	14.140 (.028*)
	2명	382(63.3)	133(22.1)	67(11.1)	21(3.5)	603(100)	
	3명 이상	37(62.7)	15(25.4)	7(11.9)	0(0.0)	59(100)	
가구 유형	부부	1,224(60.3)	551(27.1)	200(9.8)	56(2.8)	2,031(100)	10.342 (.016*)
	부부 외	62(52.1)	34(28.6)	14(11.8)	9(7.6)	11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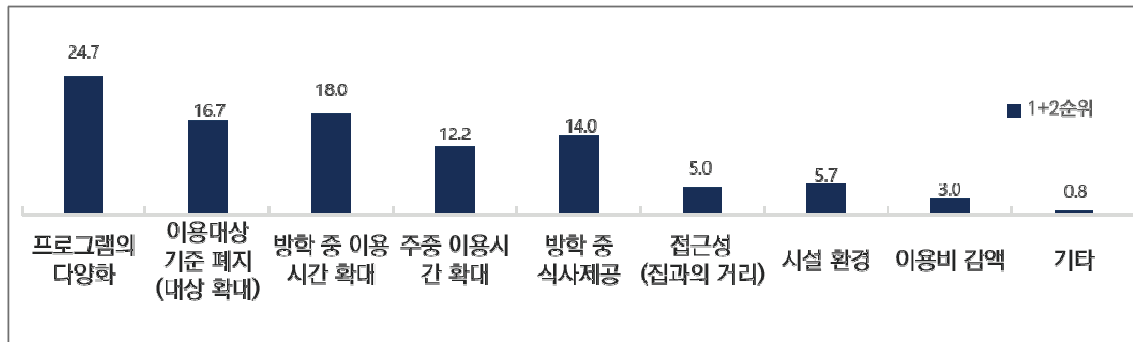
〈그림 IV-3-4〉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 공적 돌봄서비스 개선사항 조사를 1순위 응답 중심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25.6%가 '프로그램의 다양화'의 개선사항을 가장 많이 요구하였음. 다음으로 '이용 대상 기준 폐지(23.5%)', '방학 중 이용시간 확대(19.0%)', '주중 이용시간 확대(14.1%)'가 주요한 개선사항으로 조사됨. 그 외 '방학 중 식사제공(9.0%)', '접근성(3.6%)', '시설환경(2.8%)' 순으로 나타났음. 2순위 응답에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23.7%)', '방학 중 식사제공(19.0%)', '방학 중 이용시간 확대(17.0%)', '주중 이용시간 확대(10.3%)' 순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음.
- 1순위와 2순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1순위와 2순위의 응답자를 합한 2,516명(24.7%)이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18.0%는 '방학 중 이용시간 확대'를, 16.7%는 '이용 대상 기준폐지(대상 확대)'를, 12.2%는 '주중 이용시간 확대'를 주요한 개선 사항으로 보았음. 따라서 응답자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대상자의 수용 및 이용시간의 확대라는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모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5〉 공적 돌봄서비스 개선사항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 + 2순위
돌봄 서비스 개선사항	주중 이용시간 확대	719(14.1)	525(10.3)	1,244(12.2)
	방학 중 이용시간 확대	969(19.0)	865(17.0)	1,834(18.0)
	이용대상 기준 폐지(대상 확대)	1,197(23.5)	502(9.8)	1,699(16.7)
	이용비 감액	79(1.5)	224(4.4)	303(3.0)
	프로그램의 다양화	1,307(25.6)	1,209(23.7)	2,516(24.7)
	접근성(집과의 거리)	186(3.6)	319(6.3)	505(5.0)
	방학 중 식사제공	461(9.0)	966(19.0)	1,427(14.0)
	시설환경	143(2.8)	441(8.7)	584(5.7)
	기타	38(0.7)	46(0.9)	84(0.8)
	전체	5,099(100)	5,099(100)	10,19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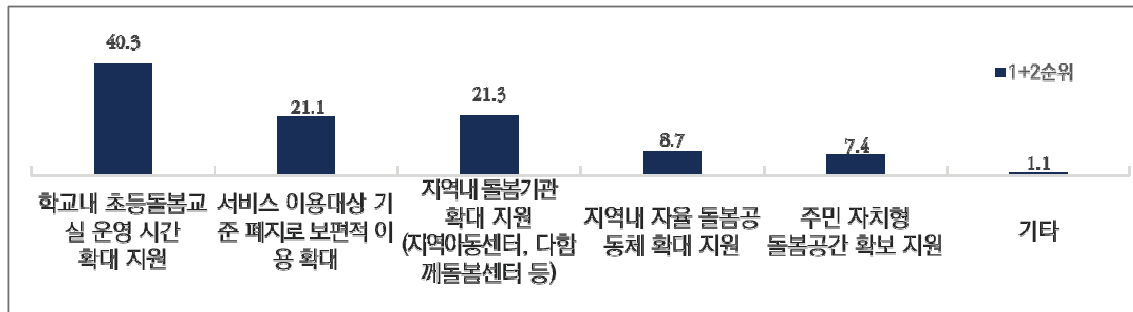
〈그림 IV-3-5〉 공적 돌봄서비스 개선사항

- 공적 돌봄서비스 우선 확대 영역을 1순위 응답 중심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65.6%가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지원'을 가장 원하고 있었으며, 16.3%는 '서비스 이용 대상 기준 폐지로 보편적 이용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2순위 응답에서는 '지역 내 돌봄기관 확대(33.0%)', '서비스 이용 대상 기준 폐지로 보편적 이용확대(26.0%)',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지원(15.1%)', '지역 내 자율 돌봄공동체 확대 지원(13.4%)' 순으로 개선사항에 대한 욕구가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지원(40.3%)'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지역 내 돌봄기관 확대(21.3%)'와 '서비스 이용 대상 기준 폐지로 보편적 이용확대(21.1%)' 순으로 나타났음.

〈표 IV-3-6〉 공적 돌봄서비스 우선 확대 영역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1순위 + 2순위
우선 확대 영역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 확대 지원	3,344(65.6)	768(15.1)	4,112(40.3)
	지역 내 돌봄기관 확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494(9.7)	1,681(33.0)	2,175(21.3)
	지역 내 자율 돌봄공동체 확대 지원	202(4.0)	684(13.4)	886(8.7)
	주민자치형 돌봄공간 확보 지원	200(3.9)	558(10.9)	758(7.4)
	서비스 이용대상 기준 폐지로 보편적 이용 확대	830(16.3)	1,324(26.0)	2,154(21.1)
	기타	29(0.6)	83(1.6)	112(1.1)
	전체	5,099(100)	5,098(100)	10,197(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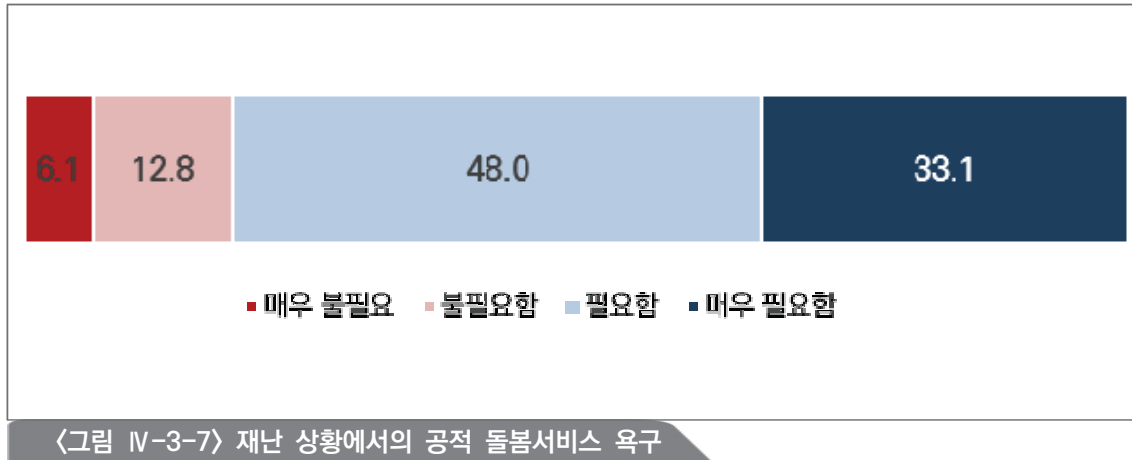
〈그림 IV-3-6〉 공적 돌봄서비스 우선 확대 영역

-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 필요성에 관한 욕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81.1%가 재난 상황에서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18.9%는 필요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또한, 성별, 거주지,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를 제외한 자녀 학년, 맞벌이 여부, 가구 유형에 따라 응답 결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
-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 특성들을 중심으로 필요성을 살펴보면, 재난 상황에서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년은 저학년(83.9%)이 고학년(75.2%)보다 높았으며, '매우 불필요함', '불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의 네 가지 범주 중 '매우 필요함'에 응답한 저학년의 응답률은 36.5%로, 고학년 25.8%보다 높았음.
- 맞벌이 여부에서 네 가지 범주 중 '필요함'에 응답한 외벌이(55.0%) 비율은 맞벌이(44.0%)보다 높았으나, '매우 필요함'에서는 맞벌이(39.6%)가 외벌이(21.9%)보다 더 높게 나타남. '필요'와 '불필요'의 두 가지 구분에서도 맞벌이(83.6%)가 외벌이(76.9%)보다 응답률이 높았음.
- 가구 유형별로는 네 가지 범주 중 '필요함'에 응답한 가구는 부부 가구가 48.5%로, 부부 외 가구(43.7%)보다 비율이 높았음. '매우 필요함'에서는 부부 외 가구(39.7%)의 응답률이 부부 가구(32.4%)의 응답률보다 높았고, '필요'와 '불필요'의 두 가지 구분에서는 '필요'에 응답한 부부 외 가구는 83.4%, 부부 가구는 80.9%로 나타남.
- 상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의 필요성을 네 가지 응답 범주로 구분할 때, '필요함'에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던 집단은 '고학년', '맞벌이', '부부 가구'였음. 한편, '필요(필요vs.불필요)'와 '매우 필요함'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인 집단은 '저학년', '외벌이', '부부 외 가구'로 나타났음. 이는 전체 응답자 81.1%의 대다수가 재난 상황에서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특별히 재난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저학년, 경제 및 육아 부담 커지는 외벌이, 빈약한 경제력과 정보력을 가진 부부 외 가구 유형의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함.

〈표 IV-3-7〉 재난 상황에서 공적 돌봄서비스의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매우 불필요함	불필요함	필요함	매우 필요함	불필요	필요	계	$\chi^2(p)$	
전체	310(6.1)	652(12.8)	2,450(48.0)	1,687(33.1)	962(18.9)	4,137(81.1)	5,099(100)		
자녀 성별	남성	165(6.4)	351(13.6)	1,233(47.8)	833(32.3)	516(20.0)	2,066(80.0)	2,582(100)	4.663 (.198)
	여성	145(5.8)	301(12.0)	1,217(48.4)	854(33.9)	446(17.7)	2,071(82.3)	2,517(100)	
자녀 학년	저학년	194(5.6)	366(10.5)	1,648(47.4)	1,269(36.5)	560(16.1)	2,917(83.9)	3,477(100)	87.605 (.000***)
	고학년	116(7.2)	286(17.6)	802(49.4)	418(25.8)	402(24.8)	1,220(75.2)	1,622(100)	
거주지	도시	219(5.8)	499(13.1)	1,843(48.5)	1,240(32.6)	718(18.9)	3,083(81.1)	3,801(100)	5.404 (.144)
	농촌	91(7.0)	153(11.8)	607(46.8)	447(34.4)	244(18.8)	1,054(81.2)	1,298(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203(6.3)	326(10.1)	1,418(44.0)	1,275(39.6)	529(16.4)	2,693(83.6)	3,222(100)	190.493 (.000***)
	외벌이	107(5.7)	326(17.4)	1,032(55.0)	412(21.9)	433(23.1)	1,444(76.9)	1,877(1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206(5.9)	456(13.1)	1,647(47.4)	1,163(33.5)	662(19.1)	2,810(80.9)	3,472(100)	9.219 (.162)
	2명	88(5.9)	182(12.3)	734(49.6)	477(32.2)	270(18.2)	1,211(81.8)	1,481(100)	
	3명 이상	16(11.0)	14(9.6)	69(47.3)	47(32.2)	30(20.5)	116(79.5)	146(100)	
가구 유형	부부	283(6.1)	601(13.0)	2,244(48.5)	1,500(32.4)	884(19.1)	3,744(80.9)	4,628(100)	10.537 (.015*)
	부부 외	27(5.7)	51(10.8)	206(43.7)	187(39.7)	78(16.6)	393(83.4)	47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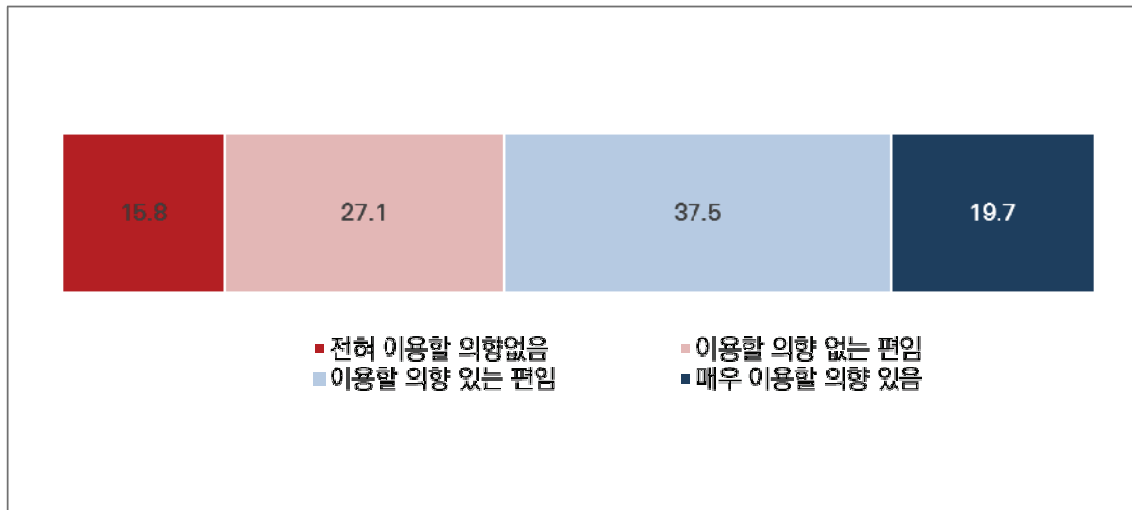
-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15.8%는 전혀 이용 의향이 없었고, 27.1%는 이용 의향이 없는 편,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37.5%였으며, 매우 이용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19.7%로 나타남.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용 의향 정도를 살펴보면, 자녀 학년, 거주지, 맞벌이 여부, 가구 유형에 따라 이용 의향에 통계적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자녀 학년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을 살펴보면, '전혀 이용 의향이 없음'과 '매우 이용 의향이 있음'의 응답에서 학년에 따른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음. '전혀 이용 의향이 없음'의 응답률 경우 고학년(22.9%)이 저학년(12.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매우 이용 의향이 있음'에서 저학년(23.8%)이 고학년(10.8%)보다 높게 나타남. 이용 의향의 유무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용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고학년(59.0%)이 저학년(35.4%)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거주지 유형별로 비교하면, '이용 의향이 있는 편임'의 항목에서 농촌 지역(43.6%)의 비율이 도시 지역(35.4%)보다 높았으며, '매우 이용 의향이 있음'에서도 농촌 지역(21.9%)이 도시 지역(18.9%)보다 높게 나타남. 이용 의향의 유무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농촌 지역의 65.5%는 이용 의향이 있었으며, 도시 지역은 54.3%가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맞벌이 여부를 살펴보면, '전혀 이용 의향이 없음'에 응답한 외벌이(24.9%)의 비율은 맞벌이(10.4%)보다 약 2배 이상 높았고, '매우 의향이 있음'의 맞벌이(26.5%) 응답률은 외벌이(7.9%)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음. 이용 의향의 유무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용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맞벌이와 외벌이의 비율은 각각 32.4% 60.9%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가구 유형별 이용 의향 차이에서는 '전혀 이용 의향 없음'에 응답한 부부 외 가구(7.6%)의 응답률은 부부 가구(16.6%)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매우 이용 의향 있음'에서 부부 가구(18.6%)의 응답률은 부부 외 가구(29.7%)의 응답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용 의향의 유무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이용 의향이 없는 부부 가구와 부부 외 가구의 응답률은 각각 44.1%, 31.2%로 높게 나타남.

〈표 IV-3-8〉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단위: 명, %)

구분		전혀 이용 의향 없음	이용 의향 없는 편임	이용 의향 있는 편임	매우 이용 의향 있음	계	$\chi^2(p)$
전체		804(15.8)	1,383(27.1)	1,910(37.5)	1,002(19.7)	5,099(100)	
자녀 성별	남성	419(16.2)	703(27.2)	943(36.5)	517(20.0)	2,582(100)	2.316 (.510)
	여성	385(15.3)	680(27.0)	967(38.4)	485(19.3)	2,517(100)	
자녀 학년	저학년	432(12.4)	798(23.0)	1,420(40.8)	827(23.8)	3,477(100)	276.058 (.000***)
	고학년	372(22.9)	585(36.1)	490(30.2)	175(10.8)	1,622(100)	
거주지	도시	651(17.1)	1,088(28.6)	1,344(35.4)	718(18.9)	3,801(100)	51.869 (.000***)
	농촌	153(11.8)	295(22.7)	566(43.6)	284(21.9)	1,298(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36(10.4)	708(22.0)	1,325(41.1)	853(26.5)	3,222(100)	482.584 (.000***)
	외벌이	468(24.9)	675(36.0)	585(31.2)	149(7.9)	1,877(1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545(15.7)	943(27.2)	1,275(36.7)	709(20.4)	3,472(100)	6.003 (.423)
	2명	239(16.1)	402(27.1)	577(39.0)	263(17.8)	1,481(100)	
	3명 이상	20(13.7)	38(26.0)	58(39.7)	30(20.5)	146(100)	
가구 유형	부부	768(16.6)	1,272(27.5)	1,726(37.3)	862(18.6)	4,628(100)	51.296 (.000***)
	부부 외	36(7.6)	111(23.6)	184(39.1)	140(29.7)	471(100)	



〈그림 IV-3-8〉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이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9%(1,452명)는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23.4%(681명)는 ‘자녀가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 12.1%(353명)는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서’, 11.8%(343명)는 ‘친구 및 또래 관계를 위해서’, 2.4%(71명)는 ‘자녀가 원해서’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 의향 이유를 밝힘.
-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이유는 자녀 학년, 거주지, 맞벌이 여부,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자녀 학년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의 항목에서 저학년 응답률은 54.1%로,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의 주된 이유였으며, 고학년(35.5%)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남. 고학년은 ‘자녀가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27.5%)’,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서(17.9%)’, ‘친구 및 또래 관계를 위해서(16.4%)’의 항목에서 저학년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거주지 별로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의 항목에서 도시 지역(51.4%)은 농촌 지역(46.2%)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자녀가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 ‘친구 및 또래 관계를 위해서’, ‘자녀가 원해서’의 항목에서는 농촌의 응답률이 도시보다 높게 나타남.
- 맞벌이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맞벌이 가정은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와 ‘자녀가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의 이유에서 각각 57.4%, 24.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외벌이 응답률 27.4%, 20.2%보다 높게 나타났음.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서’, ‘친구 및 또래 관계를 위해서’, ‘자녀가 원해서’의 이유에서 외벌이가 맞벌이보다 약 3~6배 정도 높게 나타나는 차이를 보임.

-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를 중심으로 응답률을 비교해보면,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 항목에서 세 비교집단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자녀가 1명인 가정은 51.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자녀 2명과 3명 이상인 가정의 응답률은 각각 46.8%, 43.2%로 나타남.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서’와 ‘친구 및 또래 관계를 위해서’의 항목에서 자녀 수가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 간의 차이를 보임.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서’의 경우 자녀가 1명·2명, 3명 이상인 가정의 각각의 응답률은 11.4%, 13.3% 15.9%로 나타났으나, ‘친구 및 또래 관계를 위해서’에서는 각각 12.7%, 9.9%, 9.1%의 역순으로 나타남.

4<표 IV-3-9> 재난 상황에서의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의향 이유

(단위: 명, %)

구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	자녀가 안전 하다고 생각 되어서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	친구 및 또래관계를 위해서	자녀가 원해서	기타	계	$\chi^2(p)$
전체	1,452(49.9)	681(23.4)	353(12.1)	343(11.8)	71(2.4)	12(0.4)	2,912(100)	
자녀 성별	남성	722(49.5)	343(23.5)	182(12.5)	184(12.6)	23(1.6)	1,460(100)	11.027 (.051)
	여성	730(50.3)	338(23.3)	171(11.8)	159(11.0)	48(3.3)	1,452(100)	
자녀 학년	저학년	1,216(54.1)	498(22.2)	234(10.4)	234(10.4)	55(2.4)	2,247(100)	81.520 (.000***)
	고학년	236(35.5)	183(27.5)	119(17.9)	109(16.4)	16(2.4)	665(100)	
거주지	도시	1,059(51.4)	469(22.7)	252(12.2)	234(11.3)	39(1.9)	2,062(100)	14.343 (.014*)
	농촌	393(46.2)	212(24.9)	101(11.9)	109(12.8)	32(3.8)	850(10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51(57.4)	533(24.5)	190(8.7)	173(7.9)	25(1.1)	2,178(100)	356.991 (.000***)
	외벌이	201(27.4)	148(20.2)	163(22.2)	170(23.2)	46(6.3)	734(100)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1,021(51.5)	425(21.4)	227(11.4)	252(12.7)	50(2.5)	1,984(100)	35.205 (.000***)
	2명	393(46.8)	235(28.0)	112(13.3)	83(9.9)	14(1.7)	840(100)	
	3명 이상	38(43.2)	21(23.9)	14(15.9)	8(9.1)	7(8.0)	88(100)	
가구 유형	부부	1,285(49.7)	609(23.5)	308(11.9)	312(12.1)	62(2.4)	2,588(100)	4.544 (.474)
	부부 외	167(51.5)	72(22.2)	45(13.9)	31(9.6)	9(2.8)	324(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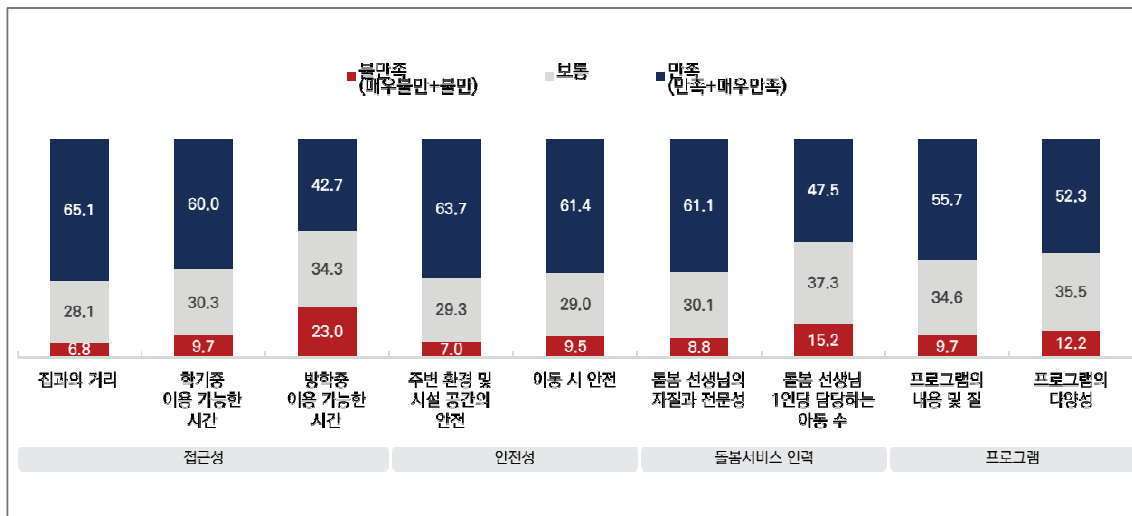
4.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 응답자 1,563명을 대상으로 공적 돌봄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 만족도 점수는 3.63점으로 나타났음. 하위영역별로는 ‘안전성’ 평균이 3.7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접근성’의 평균이 3.61점, ‘인력’과 ‘프로그램’의 평균이 각각 3.58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남.

〈표 IV-4-1〉 하위영역별 공적 돌봄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점)

척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만족도(전체)	1,563	1	5	3.63	0.802
접근성	1,563	1	5	3.61	0.868
안전성	1,563	1	5	3.75	0.922
인력	1,563	1	5	3.58	0.945
프로그램	1,563	1	5	3.58	0.968



〈그림 IV-4-1〉 공적 돌봄서비스 만족도

- 자녀 성별, 자녀 학년, 거주지, 맞벌이 여부,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가구 유형별로 공적 돌봄서비스 만족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거주지와 가구 유형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음. 먼저 거주지 유형에 따라 만족도 차이를 비교하면, 농촌 지역의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3.29점)는 도시 지역(3.17점)보다 높게 나타나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의 거주지 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보여줌. 가구 유형과 공적 돌봄서비스 만족도에서는 부부 가구(3.20점)의 만족도는 부부 외 가구(3.3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공적 돌봄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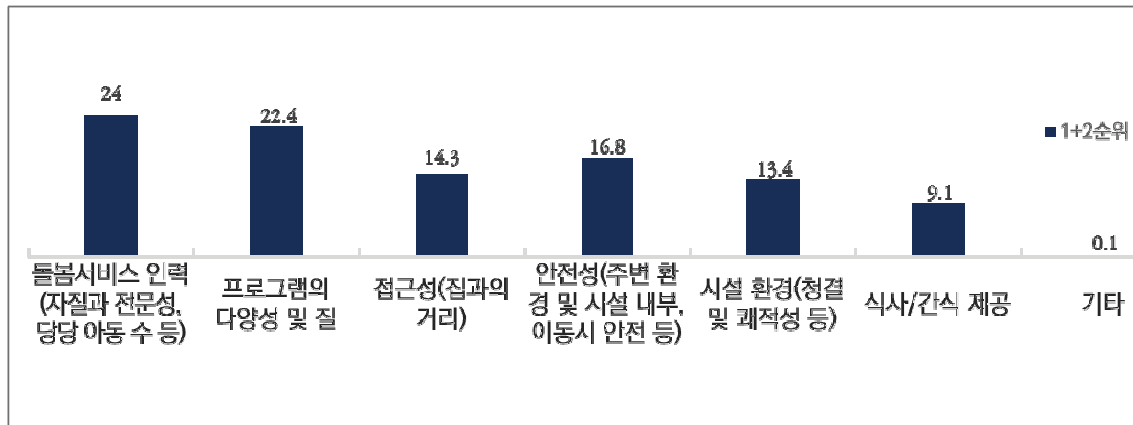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F (p)
전체		1,563	3.22	0.718	
자녀 성별	남성	806	3.20	0.727	-0.932
	여성	757	3.23	0.708	(.352)
자녀 학년	저학년	1076	3.21	0.699	-0.227
	고학년	487	3.22	0.758	(.821)
거주지	도시	943	3.17	0.707	-3.205
	농촌	620	3.29	0.729	(.001**)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18	3.23	0.723	1.806
	외벌이	345	3.15	0.698	(.071)
초등학교 재학	1명	1008	3.21	0.712	0.362
	2명	490	3.21	0.742	(.696)
자녀 수	3명 이상	65	3.29	0.618	
가구 유형	부부	1352	3.20	0.709	-1.977
	부부 외	211	3.31	0.766	(.048*)

- 공적 돌봄서비스에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조사한 결과, ‘돌봄서비스 인력’은 1순위와 2순위 모두에서 24.8%와 23.3%의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줌.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은 1순위에서 23.1%, 2순위에서 21.7%로 나타나, ‘돌봄서비스 인력’ 다음의 주요한 요소로 조사됨. ‘접근성’은 1위 순위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요소로 조사되었고, 2순위에서는 ‘안전성’이 세 번째 주요 요소로 나타남.
- 1순위와 2순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돌봄서비스 인력(24.0%)’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22.4%)’, ‘안전성(16.8%)’, ‘접근성(14.3%)’, ‘시설 환경(13.4%)’, ‘식사/간식 제공(9.1%)’ 순으로 나타남.

〈표 IV-4-3〉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단위: 명, %)

구분		빈도(비율)		
		1순위	2순위	1순위 + 2순위
	접근성(집과의 거리)	1,082(21.2)	373(7.3)	1,455(14.3)
	시설 환경(청결 및 쾌적성 등)	668(13.1)	699(13.7)	1,367(13.4)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	1,176(23.1)	1,104(21.7)	2,280(22.4)
	돌봄서비스 인력 (자질과 전문성, 담당 아동 수 등)	1,263(24.8)	1,188(23.3)	2,451(24.0)
	안전성(주변 환경 및 시설 내부, 이동 시 안전 등)	689(13.5)	1,022(20.0)	1,711(16.8)
	식사/간식 제공	217(4.3)	706(13.8)	923(9.1)
	기타	4(0.1)	6(0.1)	10(0.1)
	전체	5,099(100)	5,099(100)	10,197(100)



〈그림 IV-4-2〉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 다양한 공적 돌봄서비스를 통합돌봄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주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사에서 응답자의 41.2%(2,100명)는 '충청남도교육청'이라고 응답하였으며, 22.2%(1,131명)는 '학교', 17.5%(892명)는 '충청남도', 11.9%(606명)는 '시·군', 5.1%(258명)는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돌봄기관' 순으로 응답함.
- 운영주체에 대한 응답률은 자녀 학년, 거주지, 가구 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비교집단 간의 차이가 나타남.
- 자녀 학년을 살펴보면, 저학년과 고학년 두 집단이 '충청남도교육청'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41.1%, 41.4%로, 전체 대비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학교'를 선택한 비율에서는 저학년(23.1%)이 고학년(20.2%)보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기관'의 선택에서는 고학년(6.2%)이 저학년(4.5%)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 거주지 별로 비교해보면, '충청남도교육청'의 선택에 있어 도시 지역(42.3%)의 응답률은 농촌 지역(38.0%)의 응답률보다 높았으며,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기관'에서도 농촌 지역(6.7%)이 도시 지역(4.5%)보다 높게 나타남.
- 가구 유형별로는 '충청남도교육청'을 선택한 부부 가구 비율은 41.5%로, 부부 외 가구(38.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의 선택에서도 부부 가구(22.4%)의 비율이 부부 외 가구(20.4%)보다 높게 나타남. 부부 가구의 경우 공적 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한 운영 주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임. 반면 부부 외 가구의 '충청남도(19.7%)'와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기관(8.9%)'를 선택한 비율은 부부 가구(17.3% 4.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 외 가구의 경우 지역 기반의 운영 주체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짐.

〈표 IV-4-4〉 공적 돌봄서비스를 통합돌봄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주체

(단위: 명, %)

구분	충청남도 교육청	학교	충청남도	시·군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 돌봄센터 등 돌봄기관	지역사회 단체	기타	계	$\chi^2(p)$
전체	2,100(41.2)	1,131(22.2)	892(17.5)	606(11.9)	258(5.1)	89(1.7)	23(0.5)	5,099(100)	
자녀 성별	남성 1,069(41.4) 여성 1,031(41.0)	596(23.1) 535(21.3)	452(17.5) 440(17.5)	296(11.5) 310(12.3)	117(4.5) 141(5.6)	38(1.5) 51(2.0)	14(0.5) 9(0.4)	2,582(100) 2,517(100)	8.854 (.182)
자녀 학년	저학년 1,428(41.1) 고학년 672(41.4)	804(23.1) 327(20.2)	611(17.6) 281(17.3)	413(11.9) 193(11.9)	158(4.5) 100(6.2)	47(1.4) 42(2.6)	16(0.5) 7(0.4)	3,477(100) 1,622(100)	19.923 (.003**)
거주지	도시 1,607(42.3) 농촌 493(38.0)	846(22.3) 285(22.0)	652(17.2) 240(18.5)	446(11.7) 160(12.3)	171(4.5) 87(6.7)	61(1.6) 28(2.2)	18(0.5) 5(0.4)	3,801(100) 1,298(100)	16.797 (.0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00(40.3) 외벌이 800(42.6)	718(22.3) 413(22.0)	569(17.7) 323(17.2)	405(12.6) 201(10.7)	160(5.0) 98(5.2)	51(1.6) 38(2.0)	19(0.6) 4(0.2)	3,222(100) 1,877(100)	10.334 (.111)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1명 1,436(41.4) 2명 600(40.5) 3명 이상 64(43.8)	786(22.6) 316(21.3) 29(19.9)	601(17.3) 263(17.8) 28(19.2)	400(11.5) 190(12.8) 16(11.0)	169(4.9) 80(5.4) 9(6.2)	62(1.8) 27(1.8) 0(0.0)	18(0.5) 5(0.3) 0(0.0)	3,472(100) 1,481(100) 146(100)	8.571 (.739)
가구 유형	부부 1,921(41.5) 부부 외 179(38.0)	1,035(22.4) 96(20.4)	799(17.3) 93(19.7)	552(11.9) 54(11.5)	216(4.7) 42(8.9)	84(1.8) 5(1.1)	21(0.5) 2(0.4)	4,628(100) 471(100)	20.271 (.002**)

5. 소결

- 본 조사는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해 방과후 초등돌봄 이용 실태를 분석하고 돌봄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와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음.
- 첫째,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돌봄 여건에 따른 상이한 돌봄 욕구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났음.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시간 확대는 공통적인 욕구이지만, 도시 지역의 경우 주중 이용시간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농촌 지역의 경우 방학 중 이용시간 확대에 대한 욕구가 다소 강했음. 이는 도시 지역의 경우 맞벌이 직장인 많아서 주말보다는 주중 이용시간 확대에 더 높은 욕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도시 지역은 이용 대상 기준 폐지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반면, 농촌 지역은 프로그램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이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률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과 다르게 학생 수가 과밀하지 않아서 고학년까지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니,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됨. 반면, 도시 지역은 프로그램의 질 향상 이전에 돌봄서비스의 이용 욕구가 있음에도 제약이 많아서 우선순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이러한 돌봄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돌봄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둘째, 돌봄공백의 해결 방법으로 여전히 사교육을 활용한다는 것임. 학교 정규수업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거나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사교육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4.0%로 낮지 않았음. 특히, 저학년이나 맞벌이의 경우에는 더욱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또한, 방학기간 중에 발생하는 돌봄공백 해결 방법으로 사교육 기관 이용 및 공적 돌봄 서비스와 사교육 병행 비율도 12.4%로 낮지 않았음. 사교육 기관 의존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낮아졌지만, 맞벌이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교육 이용 비율은 15.5%로 더욱 높아졌음. 이는 돌봄공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교육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아동이 공적 돌봄서비스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돌봄 기반을 강화해야 함.
- 셋째,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의 증가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정규수업 및 돌봄 서비스가 축소되고, 그로 인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였음. 본 연구의 조사결과, 일반적으로 돌봄공백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방학기간보다 코로나19 기간의 나홀로 아동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돌봄공백으로 인한 휴직 및 사직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을 한 비율은 49.9%로 절반을 차지하여, 돌봄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공적 돌봄서비스의 이용 의향은 57.1%로 절반이 넘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돌봐줄 보호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차지하여,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도 돌봄에 대한 우려나 공백 없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함.
- 넷째, 공적 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 확대임.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초등돌봄교실이 끝나는 17시 이후부터 18시까지의 돌봄 욕구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정규수업 시작 전의 돌봄 욕구가 높게 나타났음.
- 돌봄 욕구가 높은 정규수업 시작 전부터 18시까지의 돌봄을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 확대나 틈새돌봄 등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돌봄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 다섯째,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임. 돌봄서비스의 질은 돌봄서비스를 구성하는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인력으로 나누어 짐. 돌봄서비스의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나, 그 중에서 프로그램과 인력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수요자 중심의 공적 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나 돌봄서비스 이용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또한,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의 중요한 사항으로 돌봄서비스 인력이라고 응답한 반면, 돌봄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공적 돌봄서비스가 초등아동의 보호 차원을 넘어 활동,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초등아동의 학습과 심신의 발달을 위한 서비스가 되도록 질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함.

충남형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방안 기초 연구



V. 결론

V. 결론

1. 정책 추진 방향

- 본 연구는 충남 방과후 공적 초등돌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실태를 파악하고 돌봄수요자의 돌봄실태 및 돌봄 욕구를 분석함으로써 충남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충남의 공적 초등돌봄서비스 개선 및 실효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공적 초등돌봄서비스 개선 및 실효성 제고와 충남 방과후 초등돌봄 통합체계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하여 충남의 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 현황을 분석하였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및 인식, 욕구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음.
-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첫째, 충남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는 수요 대비 공급이 매우 낮다는 것임. 충남 전체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공급률은 34.33%로 절반도 못 미치는 상황임. 또한, 공적 돌봄서비스 중 75.8%가 초등돌봄교실에 치중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공적 돌봄서비스의 확대 및 질 제고를 위한 정책은 초등돌봄교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임.
- 둘째,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인식이 지역별, 가구 유형별로 차이를 보였음.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돌봄서비스 욕구는 다르게 나타났고, 맞벌이 여부에 따른 격차와 이용 자격에 따라 돌봄서비스에 대한 실태 및 욕구, 인식에서 차이를 보였음.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 지역의 경우, 주로 이용 대상 기준이나 주중 이용시간 확대 등의 욕구가 강했으나 농촌 지역의 경우, 프로그램의 질이나 방학 기간 중의 이용시간 확대에 대해 높은 욕구를 나타냈음. 충남과 같이 지역별 산업구조에 따른 지역적 특성이 명확하고, 그에 따른 가구 유형별 차이에서 나타나는 돌봄서비스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돌봄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프로그램 및 돌봄 인력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충남은 전체적으로 수요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자체가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임. 그러나 공적 돌봄서비스의 내적 요소인 프로그램이나 돌봄 인력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은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 제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로 접근해야 함.

- 넷째,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공적 돌봄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이 이미 100%를 넘는 지역이 있는 반면, 20%도 넘지 못하는 지역도 있음. 이러한 지역의 편차를 줄이고, 돌봄서비스의 중복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의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나 지역 돌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조정, 연계, 조사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돌봄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한다면, 지역 내의 특성이 반영된 자생적인 돌봄생태계가 마련될 것임.

2. 제안

가. 돌봄서비스 확대 및 질 제고

(1) 공적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간 확대

- 초등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서비스는 다양하지만, 운영 시간이나 이용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음.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5시까지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부모가 귀가하는 시간까지의 돌봄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반면, 지역아동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은 이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일반 초등아동 모두가 이용할 수 없음. 다함께돌봄센터는 운영 시간이나 이용 대상에서 가장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센터 수가 매우 미비한 수준임. 따라서, 다양한 공적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일반 초등아동이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시간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정규수업 전이나 방과후 부모의 귀가 전, 방학 기간의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인프라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시간대별 나홀로 아동이 발생 비율이 차이가 나타남. 시간대별 돌봄공백은 고학년보다 저학년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저학년의 경우, 사교육 기관을 통한 돌봄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 공적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은 '정규수업 끝난 후~오후 5시'의 시간대가 47.2%로 돌봄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오후 5시~오후 6시'의 시간대가 31.2%, '정규수업 시작 전'이 12.4%로 나타났음.
 - 방학기간 중 돌봄공백 해결 방법은 '직접 돌봄'의 45.9% 이외에 '자녀 혼자(형제자매 끼리)지냄'이 21.3%로 나홀로 아동 비율이 매우 높았고, 다음으로 '조부모 및 친인척이 돌봄'이 13.3%, '사교육 기관 이용'도 8.7%로 높았음.
 - 수요자 중심의 공적 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24.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방학 중 이용시간 확대'가 18.0%, '이용 대상 기준폐지(대상 확대)'가 16.7%, '주중 이용시간 확대'가 12.2% 순으로 나타나, 방학 및 주중 이용시간 확대에 대한 욕구가 높았음.

-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나홀로 아동의 발생 시간대를 고려하여, 학기 중이나 방학 기간과 상관없이 공적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간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정규수업과 연계가 되도록 초등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대인 18시까지 운영 시간 확대를 고려해야 함.
- 또한, 18시 이후에는 지역 내에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이 이용 가능한 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돌봄 기관 이용을 최우선으로 하되, 돌봄 기관 자원이 부족한 농촌의 경우에는 지역 내 돌봄 기관이 학교에 인력을 투입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돌봄공백이나 초등아동의 이동에 따른 위험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2) 돌봄 인력 확대 및 대체인력풀 운영

- 공적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공적 돌봄서비스의 질은 돌봄 인력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돌봄 인력과 프로그램으로, 근본적으로 돌봄 인력이 확대되지 않으면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은 ‘돌봄서비스 인력(자질과 전문성, 담당 아동 수 등)’이 48.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돌봄서비스 인력(자질과 전문성, 담당 아동 수 등)’과 ‘프로그램(프로그램의 내용 및 질, 다양성)’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현재 담당 인력 기준을 살펴보면, 초등돌봄교실은 돌봄교실 당 아동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편성·운영하고 있고, 학교 여건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가능함. 일반적으로 초등돌봄교실 당 담당 인력 1명이 담당하고 있음.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10명 이상 30명 미만은 담당 인력 1명, 다함께돌봄센터는 담당 인력 1명 당 아동 20명 내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담당 인력 기준은 동일한 수준임.
- 다만, 아동의 안전과 보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담당 아동의 수가 적어도 담당 인력은 최소 2명 이상이 되어야 함. 돌봄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2명의 담당 인력이 있어야 유기적으로 놀이와 프로그램, 입·출입 시의 배웅까지 역할 분담이 가능함.
- 특히,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의 휴가나 병가 등으로 인한 부재 시 적기에 돌봄 전담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워 교사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돌봄 인력으로 인한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인력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대체인력풀을 구성하고 돌봄 관련 기관에서 돌봄 인력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공통으로 대체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기관별 돌봄 인력 자격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격기준의 통합적 적용이 전제되어야 함.

(3)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

- 체계적인 돌봄체계 구축 및 지원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함. 현재 지역별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즉 학교 및 교육청(지원청), 지자체, 민간단체 등 주체가 다르고, 운영 형태도 다름. 또한, 마을의 지역 주민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자생적인 단체도 존재함.
- 이러한 지역의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이나 프로그램, 대상별 이용 가능한 돌봄서비스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지원조직이 개인 상황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돌봄 관련 각종 정보의 생산 및 수집, 관리, 제공뿐만 아니라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돌봄전담사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 전문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지역 돌봄 기관의 허브 역할을 통해 유기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및 협력을 도모할 수 있음.
 - 돌봄서비스 이용에서 중요한 사항으로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23.1%)'과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위해서 '프로그램의 다양화(25.6%)'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의 중요한 사항으로 '돌봄서비스 인력(24.8%)'이라고 응답한 반면, '돌봄교사의 자질과 전문성'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음.
- 충남의 돌봄 관련 중간지원조직은 영유아와 관련된 기관에서 함께 운영한다면, 돌봄이 영유아에서 아동까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예를 들어, 충남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인성학습원 등과 같은 기관에서 초등돌봄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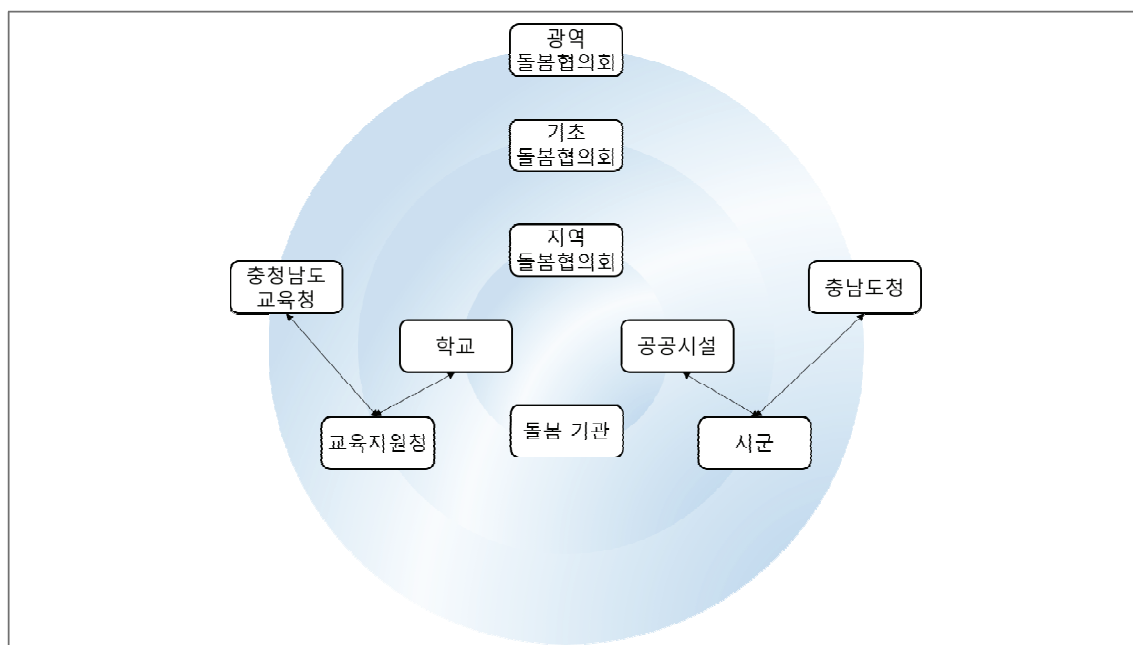
나. 통합돌봄체계 기반 구축

(1)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 및 컨트롤타워 구축

- 기존의 공적 돌봄서비스는 부처별 다양한 방식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연계함에 한계성이 드러남. 이는 서비스 대상의 중복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됨.
- 따라서 충남은 서비스 중복을 최소화하고 돌봄 사각지대가 없는 온종일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행정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전

담 부서를 지정하여 방과후 돌봄서비스 관련 업무를 단일화하고 돌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함.

- 또한, 충남은 지역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협의와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컨트롤타워가 부재함. 충남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협의와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광역돌봄협의회와 시군 단위의 기초돌봄협의회, 읍면동 단위의 지역돌봄협의회를 구축하여 돌봄서비스 및 돌봄체계의 조정, 연계, 협의 등 돌봄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함.
- 돌봄협의회는 지자체와 교육청(지원청),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대표 등 돌봄서비스 관련 제공 주체를 모두 포함하여 구성하고 방과후 돌봄 관련 제반 사안의 논의기구로 활용함으로써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분절적이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함.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돌봄협의회를 통해 긴급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긴급돌봄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시적 긴급돌봄 기관 지정 및 긴급돌봄 수요 배분 등의 빠른 대응도 가능할 것임.



〈그림 V-2-1〉 충남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 및 컨트롤타워

(2) 지자체의 권한 및 책임 강화

- 초등돌봄체계에서 돌봄서비스는 각 부처별 다양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각각의 돌봄서비스 목적이나 자원, 대상, 운영방안, 전달체계가 상이함. 충청남도 중앙정부의 전달체계에 따른 상이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특히, 교육청과 충청도에서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상이하여 통합 및 연계 운영에 걸림돌이 됨.
- 초등 돌봄서비스가 전달체제로 인한 분절된 전달체계가 아닌 통합, 조정, 연계가 가능한 일원화된 체계로의 검토가 필요함.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은 전체 초등 돌봄서비스의 약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방과후 돌봄과 관련된 욕구가 높아지면서 학교의 부담은 커지고, 이는 학교의 본질적 역할인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서는 역할 분리를 명확히 하여, 학교에서의 돌봄 영역을 충청도에 이관할 필요가 있음.
- 충청도-충남도교육청-학교 협력을 통해 학교는 공간을 대여해 주고 지자체는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검토해야 함.
- 학교는 공간만 제공하고, 인적·물적 사고 발생 시 책임 및 사후 처리 문제, 시설 관리, 프로그램 운영, 인력 수급 등의 운영에서도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초등학교 내의 돌봄 영역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함.
- 이는 충청도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연계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전달체계보다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충청도의 지원을 통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학교 등을 활용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돌봄서비스 운영의 우수 사례들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또한, 관(官) 주도에서 민(民) 주도의 통로를 마련할 수 있고,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 내의 마을돌봄 활성화나 돌봄공동체 기반 마련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

(3) 충남형 ‘(가칭)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제정

- 공적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칭)충청남도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함. 부처별 돌봄서비스는 각각의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어서 돌봄서비스 간의 연계 및 조정이 어려움.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특히, 충남의 초등학생 방과후돌봄에 대한 서비스 공급률을 살펴보면,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초등돌봄교실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돌봄교실은 교육부의 방과후 돌봄지원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에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황으로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초등돌봄교실의 확장에도 장애가 됨.
-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충남형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의 확장이 필수불가결함. 따라서, ‘(가칭)충청남도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제정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학교 내 돌봄과 학교 밖 마을돌봄을 연계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함.
- ‘(가칭)충청남도 온종일 돌봄 지원 조례’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온종일 돌봄의 범위와 주요 내용, 예산, 지원 기관, 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구성되어야 함. 특히, 돌봄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돌봄사업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음.

(4)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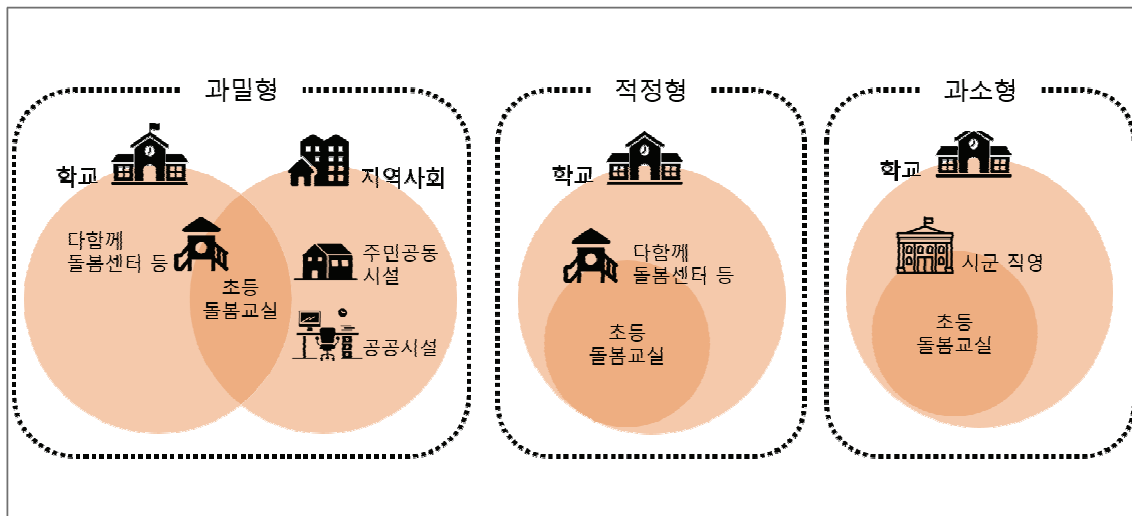
- 충남은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경계가 뚜렷하게 나누어지는 특징을 보임. 지역 경제나 인구 밀집도와 같이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특성이 뚜렷하고 지역에 따른 돌봄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남.
- 도시 지역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농촌 지역은 수급에 대한 공급은 적정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수요가 적은 반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한계로 프로그램 질이나 다양성 제고가 시급한 문제로 지적됨. 충남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같은 지역이라도 이러한 특징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지역이 대다수임. 따라서, 획일화된 돌봄체계가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마을 단위로 특징에 맞는 돌봄체계를 적용·운영할 필요가 있음.
- 충남의 경우, 지속가능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체계 운영 모델을 학교-지자체 협력형 모델을 기반으로 해야 함. 학교-지자체 협력형 모델은 돌봄 수요의 대다수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 내 돌봄교실을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 형태로,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예산 및 인력 등은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함.
- 도시 지역(과밀형)은 초등아동의 과밀로 인해 학교 내 돌봄교실에서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교 내 돌봄교실을 다함께돌봄센터나 돌봄 관련 기관, 마을 공동체 등 위탁 운영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대응할 수 없는 수요는 학교 밖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대응하도록 함. 학교를 중심으로 걸어서 10분 이내의 장소를 중심으로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이나 주민센터, 도서관 등의 주민 공공시설, 운영이 어려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초등돌봄 시설로 전환하여 활용하는 등 필요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해야 함.

- 농촌 지역(적정형)은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초등돌봄교실의 질적 향상 및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해 학교 내 다함께돌봄센터나 마을공동체 및 단체, 돌봄 기관에 돌봄교실 공모를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돌봄서비스의 운영 시간 확대 및 질 확보를 도모해야 함.
- 농촌 지역(과소형)은 초등아동의 과소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공급은 충분한 반면, 수요 부족으로 인해 효율성이 낮음.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의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권역으로 묶고 거점형 학교를 지정하여 돌봄교실을 시군 직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함. 또한, 장기적으로 농촌 지역(과소형)의 수요를 파악하여 수요가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형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학교 내 돌봄에서 지역 내 돌봄으로 전환해 갈 필요가 있음. 농촌 지역에서 거점형 돌봄교실이나 센터를 운영할 경우, 지리적 접근성 문제로 인해 방과후 아동들의 이동 수단 확보 및 이동 시 안전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여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다만,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사업 지침상, 학교 내는 설치장소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돌봄시설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할 경우, 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기준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표 V-2-1〉 충남형 방과후 돌봄체계 운영 모델

구분	과밀형	적정형	과소형
돌봄 여건	· 초등아동의 과밀로 인해 학교 내 돌봄교실 및 지역 돌봄 기 관에서의 돌봄 수요에 대한 대 응이 불가능	· 학교 내 돌봄교실 및 지역 돌봄 기관에서의 돌봄 수요 에 대한 대응이 가능	· 초등아동의 과소로 인해 학 교 내 돌봄교실 운영의 한계
추진 방향	· 학교 내 돌봄교실은 다함 께돌봄센터 우선 설치하여 최대 한 활용하되 대응할 수 없는 수요는 학교 밖 돌봄으로 대응 ·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걸어서 10분 이내의 공공시설, 아파트 단지 내 민간 돌봄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 설치	· 초등돌봄교실의 돌봄 시간 확대 및 질 확보 · 다함께돌봄센터 우선 설치 ·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의 인적 자원 활용	· 초등학교의 지리적 분포를 고려하여 권역으로 묶고 거 점형 학교를 지정하여 돌봄 교실 운영
돌봄 제공 주체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 마을공동체 및 단체, 기관에 위탁 운영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 마을공동체 및 단체, 기관에 위탁 운영	· 시군 직영



〈그림 V-2-2〉 충남형 방과후 돌봄체계 운영 모델

[참고문헌]

- 강지원·이세미. (2015).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포럼, 225, 60-70.
- 김미정·백선정·남승연. (2018). 마을 중심 보육·돌봄체계 운영에 관한 기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은정·장수정·정영모·오신휘. (2019). 초등아동 대상의 공적 돌봄 서비스 공급 체계 분석과 정책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조선주·선보영·배호중·김진석·정영모. (2018). 초등학생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종호·심영미. (2015). 방과 후 돌봄서비스 실태 및 만족도 비교 연구: 의정부시, 고양시, 연천군의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5(1), 399-419.
- 김진석·백선희·정영모·김소영. (2018).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 및 제도화방안. 범정부공동추진단 연구보고서.
- 경기도교육청. (2020).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 김창복·양애경·양윤이·김선례·김정은. (2018). 초등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연구정보원.
- 관계부처 합동. (2018).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기본계획.
- _____.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 지자체 및 교육청(학교) 협력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성과 확산(2019. 06. 25일자 기사).
- 보건복지부. (2020).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0).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침.
- 여성가족부. (2020).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 유경준·김정호. (2009). 아동·청소년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20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유해미·이윤진·박은영. (2018). 아동 돌봄 분야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재희. (2018). 초등 자녀 방과후 돌봄 지원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혜숙·이영주. (2018).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서울연구원.
- _____. (2019). 서울시 방과후돌봄 활성화 방안. 서울연구원.
- 이희현·장명림·황준성·유경훈·김성기·김위정·이덕난. (201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우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부.
- 임혜정. (2017). 패널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공백 영향 요인분석, 보건사회연구, 37(4), 510-534.
- 장수정·송다영·백경흔. (2019). 초등돌봄 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 비판사회정책, (62),

- 251-287.
- 장혜경 · 황정임 · 최인희 · 김영란 · 주재선 · 김소영. (2015). 2015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 전미양. (2018). 온종일 돌봄을 위한 ‘키움센터’ 운영 매뉴얼(안) 개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정영모. (2019).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월간복지동향, (252), 13-18.
- 정익중 · 박현선 · 오승환 · 임정기. (2009).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체.
- 주재현 · 신동석. (2014). 공공서비스 중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 연구: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28(1), 103-128.
- 최영. (2019). 문재인 정부 방과후 초등돌봄 정책의 개편 내용 및 방향. 월간복지동향, (252), 5-12.
- 한국교육개발원. (2018).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https://www.korea.kr>>
 서울시 우리동네키움 포털. <<https://icare.seoul.go.kr>>

[부록]

[illegible]

충청남도 초등돌봄 실태 및 욕구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실태를 분석하고 돌봄 수요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충남형 초등돌봄체계의 개선과 제 및 실효적인 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충남형 방과후 초 등돌봄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소중한 의견은 충청남도의 초등돌봄체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문항에 솔직하고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8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연구책임 맹준호

조사 기관 : (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조사 문의 : 박선현 선임컨설턴트(02-3415-5157)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1.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2.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 귀하는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양육자(보호자) 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I 자녀의 일반적 현황

A1. 다음은 초등학교 자녀의 일반적 사항입니다. 다자녀의 경우, **돌봄이 가장 필요한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거주지역	① 천안시 ② 공주시 ③ 보령시 ④ 아산시 ⑤ 서산시 ⑥ 논산시 ⑦ 계룡시 ⑧ 당진시 ⑨ 금산군 ⑩ 부여군 ⑪ 서천군 ⑫ 청양군 ⑬ 홍성군 ⑭ 예산군 ⑮ 태안군
3) 초등학교명	_____ 초등학교
4) 학 년 (현재 2020년 기준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5) 장애 유무	① 없음 ② 있음

II 돌봄실태

다음은 귀하 가정의 돌봄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자녀의 경우, **돌봄이 가장 필요한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B1. 귀하의 자녀는 현재(2020년도)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 **공적 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방과후학교 제외**).
- ① 이용하고 있지 않음 ② 이용하고 있음

B2.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자녀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공적 돌봄서비스에 모두** √ 표 해주십시오. (복수응답) (**2019년 기준**)

- * **공적 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방과후학교 제외**).
- ① 초등돌봄교실 ②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③ 지역아동센터
④ 다함께돌봄센터 ⑤ 방과후 아카데미 ⑥ 아이돌봄서비스
⑦ 공동육아나눔터 ⑧ 기타(_____) (**▶B2-2번으로**)
⑨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경험 없음(**▶B2-1번으로**)

B2-1.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B3번으로**)

- ①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② 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③ 이용 자격이 되지 않아서 ④ 돌보줄 보호자가 있어서
⑤ 신청하였으나 탈락해서(정원제한 등으로) ⑥ 자녀가 원치 않아서
⑦ 주변에 해당 시설이 없어서 ⑧ 공적 돌봄서비스를 알지 못해서
⑨ 기타(_____)

B2-2.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서 | ② 질이 높아서 |
| ③ 자녀가 원해서 | ④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 |
| ⑤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 ⑥ 비용이 저렴해서 |
| ⑦ 기타() | |

B3.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자녀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2019년 기준)

- ① 없음(▶B4번으로) ② 있음(▶B3-1번으로)

B3-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①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 | ② 친구 및 또래관계를 위해서 |
| ③ 자녀가 원해서 | ④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 |
| ⑤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아서 | ⑥ 비용이 저렴해서 |
| ⑦ 사교육이 부담스러워서(경제적) | ⑧ 기타() |

B4.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자녀가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 **사교육을 이용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교육**을 모두 √ 표 해주십시오(복수응답) (2019년 기준).

- | | |
|---------------------|----------------------|
| ① 학습학원 | ② 개인 및 그룹과외 |
| ③ 취미 및 특기 적성, 예체능학원 | ④ 학습지/방문학습지 |
| ⑤ 기타() | ⑥ 사교육 경험 없음 (▶B5번으로) |

B4-1. **사교육**을 이용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 | ② 자녀가 원해서 |
| ③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 | ④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서 |
| ⑤ 질이 높아서 | ⑥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
| ⑦ 기타() | |

B5. **지난 1년 동안** 귀하는 자녀가 **방학기간 중 돌봄공백**을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2019년 기준)

- | | |
|---------------------------------|--------------------|
| ① 직접 돌봄 | ② 조부모 및 친인척이 돌봄 |
| ③ 공적 돌봄서비스(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 이용 | |
| ④ 공적 돌봄서비스와 사교육을 병행하여 이용 | |
| ⑤ 사교육 기관 이용 | ⑥ 자녀 혼자(형제자매끼리) 지냄 |
| ⑦ 기타() | |

B6.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귀하의 자녀 학교는 **정규수업 및 돌봄서비스**가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① 모두 이루어지고 있음(▶B7번으로)
- ② 정규수업만 이루어지고 있음(▶B6-1번으로)
- ③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격주 등교 등)(▶B6-1번으로)
- ④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B6-1번으로)
- ⑤ 기타() (▶B6-1번으로)

B6-1.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을 주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 ① 직접 돌봄 ② 조부모 및 친인척이 돌봄
③ 사교육 기관 이용 ④ 자녀 혼자(형제자매끼리) 지냄
⑤ 기타()

B7.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돌봄공백으로 가족 중에서 휴직이나 사직을 생각하거나 휴직 또는 사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휴직이나 사직을 생각한 적 없음 ② 휴직이나 사직을 생각한 적 있음
③ 휴직이나 사직 경험이 있음

III 공적 돌봄서비스 욕구

C1. 귀하는 자녀의 학교 정규수업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이후에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 ① 필요하지 않음(▶C1-3번으로) ② 필요함(▶C1-1번으로)

C1-1. 귀하가 가장 선호하는 돌봄서비스 제공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초등학교 내 교실 ②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내 공간
③ 주거지 인근 공동공간(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 등)
④ 지역 내 별도의 공간 ⑤ 기타()

C1-2. 귀하는 자녀의 학교 정규수업이 시작되기 전이나 끝난 이후에 공적 돌봄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정규수업 시작 전 ② 정규수업 끝난 후 ~ 오후 5시
③ 오후 5시 ~ 오후 6시 ④ 오후 6시 ~ 오후 7시
⑤ 오후 7시 ~ 오후 8시 ⑥ 오후 8시 ~ 오후 9시
⑦ 오후 9시 이후 ⑧ 기타()

C1-3. 공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돌봐줄 보호자가 있어서 ② 학원 등 사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③ 만족할 만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서
④ 기타()

C2. 수요자 중심의 공적 돌봄서비스가 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선되어야 할 내용을 우선순위에 따라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 ① 주중 이용시간 확대 | ② 방학 중 이용시간 확대 |
| ③ 이용대상 기준 폐지(대상 확대) | ④ 이용비 감액 |
| ⑤ 프로그램의 다양화 | ⑥ 접근성(집과의 거리) |
| ⑦ 방학 중 식사제공 | ⑧ 시설 환경 |
| ⑨ 기타(_____) | |

C3. 정부에서 공적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면, 어느 영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
|-------------------------------------|
| ① 학교내 초등돌봄교실 운영 시간 확대 지원 |
| ② 지역내 돌봄기관(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확대 지원 |
| ③ 지역내 자율 돌봄공동체 확대 지원 |
| ④ 주민 자치형 돌봄공간 확보 지원 |
| ⑤ 서비스 이용대상 기준 폐지로 보편적 이용 확대 |
| ⑥ 기타(_____) |

C4.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공적 돌봄서비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매우 불필요함 | ② 불필요함 |
| ③ 필요함 | ④ 매우 필요함 |

C5.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의향이 있습니까?

- | | |
|----------------|----------------|
| ① 전혀 이용할 의향 없음 | ② 이용할 의향 없는 편임 |
| ③ 이용할 의향 있는 편임 | ④ 매우 이용할 의향 있음 |

C5-1. 재난 상황에서도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자녀가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서 | ② 학습 및 특기·적성을 위해 |
| ③ 친구 및 또래관계를 위해서 | ④ 자녀가 원해서 |
| ⑤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서 | ⑥ 기타(_____) |

IV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다음은 귀하 가정의 돌봄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자녀의 경우, **돌봄이 가장 필요한 자녀 1명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공적 돌봄서비스**: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방과후학교 제외).

D1. 다음은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질문**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이용하신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셨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2019년 기준)

* 문항 B2번에서 "있음"으로 응답하신 경우에만 작성

* 공적 돌봄서비스를 2개 이상 이용하신 경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접근성	집과의 거리	①	②	③	④	⑤
	학기중 이용 가능한 시간	①	②	③	④	⑤
	방학중 이용 가능한 시간	①	②	③	④	⑤
안전성	주변 환경 및 시설 공간의 안전	①	②	③	④	⑤
	이동 시 안전	①	②	③	④	⑤
돌봄서비스 인력	돌봄 선생님의 자질과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돌봄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 수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질	①	②	③	④	⑤
	프로그램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 전체 응답자 기준

D2. 만약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 자격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면, 귀하는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접근성(집과의 거리) ② 시설 환경(청결 및 쾌적성 등)
 ③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질
 ④ 돌봄서비스 인력(자질과 전문성, 담당 아동 수 등)
 ⑤ 안전성(주변 환경 및 시설 내부, 이동시 안전 등)
 ⑥ 식사/간식 제공 ⑦ 기타(_____)

D3. 현재의 다양한 공적 돌봄서비스를 통합돌봄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청남도
- ② 시·군
- ③ 충청남도 교육청
- ④ 학교
- ⑤ 지역사회 단체
- ⑥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기관
- ⑦ 기타(_____)

IX

일반적 사항

Q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Q2. 연령대	① 20대		② 30대	
	④ 50대		③ 40대	
			⑤ 60대 이상	
Q3. 아동과의 관계	① 부		② 모	
	⑤ 기타(_____)		③ (외)조부	
			④ (외)조모	
	*가정위탁아동의 경우, 부모 중 선택			
Q4. 가구 유형	① 부부 + 자녀			
	② 한부모(어머니 또는 아버지) + 자녀			
	③ (외)조부모 + 한부모(어머니 또는 아버지) + 자녀			
	④ (외)조부모 + 손자녀(조손가정)			
	⑤ (외)조부모 + 부부 + 자녀			
	⑥ 기타(_____)			
Q5. 경제활동 여부	① 하고 있지 않음		② 하고 있음	
Q6. 배우자의 경제활동 여부	① 하고 있지 않음		② 하고 있음	
	③ 해당없음(한부모 및 조부모 등)			
Q7. 초등학교 재학 자녀 수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이상	

-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